

메가부동산
문미애
대표 / Principal Broker
703.534.4989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나이티드 홈게이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중영일보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장미원 부동산
Associate Broker
VA / DC / MD
703.486.6082

JJ Watch & Jewelry
Repair
금은
매입 합니다
703.691.1993
11706-L Fair Oaks Mall, Fairfax, VA 22033

대표전화: (703)281-9660 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RIGHT 2024 제 691557호

Wednesday, May 20 2026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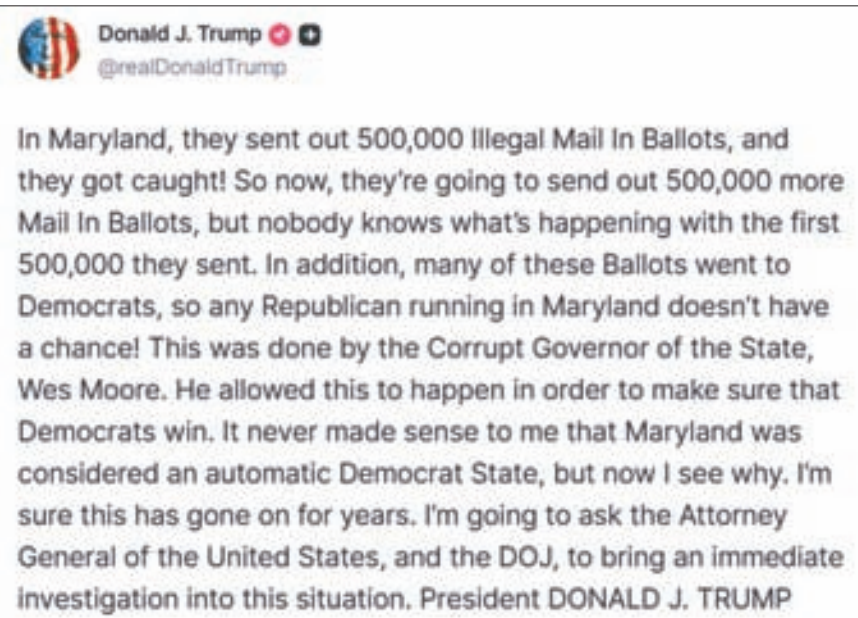
메릴랜드, 오류 우편 투표용지 50만장 발송 '논란'

트럼프 대통령, 조사 요구
선관위, 대체 용지 재발송

메릴랜드 주가 예비선거를 코앞에 두고 일부 잘못된 정당 우편 투표용지를 발송해 논란이 야기되자, 신청한 50만명에게 대체 투표용지를 발송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메릴랜드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주 다가오는 예비선거에서 우편 투표용지를 잘못된 정당 소속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실수를 인정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부정행위의 지적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즉각 수습에 나선 주정부는 모든 우편 투표자에게는 새 투표용지와 함께 오류를 설명하고 이전 투표용지를 폐기해 달라는 내용의 레터를 보낼 계획이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메릴랜드주가 50만 장의 불법 우편 투표용지를 발송했다"며, 연방 법무부에 조사



트럼프 대통령은 잘못된 투표용지 사건과 관련 법무부에 조사를 요청했다.

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자신이 메릴랜드 선거와 관련된 투표용지, 투표 신청서, 또는 유권자 홍보 자료를 언급하는 것인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는 메릴랜드주의 잘못된 투표용지 적발에 대해 "이제 다시 50만 장의 우편 투표용지를 발송할 예정이지만,

처음 보낸 50만 장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지 아무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잘못된 투표용지 중 상당수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배달됐기 때문에 메릴랜드 주의 공화당 후보들은 승산이 거의 없다"면서, 이 모든 일은 웨스 무어 주지사의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번 문제에 대해 토드 블랜치 법무부장관 대행과 법무부에 즉각적인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릴랜드 주는 이유를 밝히지 않고도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데, 등록된 유권자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도 우편 투표용지를 요청할 수 있다.

2020년 선거 기간 동안, 메릴랜드 주는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유권자들에게 부재자 투표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는데, 이는 당시 다른 여러 주에서 취했던 조치와 유사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이후 우편투표 확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비판하며, 이러한 시스템이 부정행위와 선거 부정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해왔다.

여러 주의 선거 관리 당국과 연방 기관, 그리고 수많은 법원 판결은 2020년 대선 결과를 바꿀 만한 광범위한 부정행위와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메릴랜드 주의회는 1920년부터 지금까지 106년이나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1988년부터 38년이나 민주당 후보가 이겼고, 연방상원 의석도 1986년부터 40년째 민주당이 두 자리 모두를 차지하고 있고, 연방하원은 8개 의석 중 7개를 차지하고 있다. 예외가 되고 있는 주지사 선거는 종종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기도 했다. 메릴랜드 주에 등록된 유권자 당원은 민주당 약 220만명, 공화당 약 102만명, 무소속 약 107만명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기자

트럼프, 미국·캐나다 합동방위위 중단

미국이 86년간 이어온 캐나다와의 영구합동방위위원회(PJBD) 참여를 중단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미국 등 강대국에 맞서 중견국끼리 뭉쳐야 한다는 취지의 연설을 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차관은 이날 X(옛 트위터)에 "레토릭(수사)보다 실질적인 군사력을 우선시하는 강한 캐나다는 우리 모두에 이익이 되지만 안타깝게도 캐나다는 방위 공약에서

신뢰할 만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PJBD가 북미 공동 방위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주는지 재검토하기 위해 참여를 중단한다"고 적었다. 그는 또 카니 총리의 WEF 연설 링크를 공유하며 "더는 레토릭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외면할 수 없다. 진정한 강국들은 공동의 방위·안보 책임으로 레토릭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연설이 PJBD 참여 중단 이유라는 점을 시사한 셈이다.

카니 총리는 지난 1월 WEF에서 "중견국들은 함께 행동해야 한다. 만약 우

리가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으면 우리가 (강대국의) 메뉴판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연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성조기를 꽂고, 캐나다-베네수엘라를 미국 영토로 표시한 합성 사진을 트루스소셜에 올린 직후 이뤄졌다. 트럼프를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PJBD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0년 8월 양국이 체결한 오그덴스버그 협정을 통해 설립됐다. 북미 방위정책을 논의하는 기구로 양국 국방 협력의 핵심이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엔 운영이 중단됐다.

이승호 기자



기관총 달린 핑크 군용차 - 이란 결혼식 풍경 18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에서 열린 합동 결혼식 행사 중 한 부부가 기관총, 국기 그리고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사진으로 장식된 분홍색 군용 차량을 타고 입장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100여쌍이 혼인사약을 했다. [로이터-연합뉴스]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원장 Dr. 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야기 환불지불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교통사고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알맞는 치료를 받으시는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메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노폴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IP커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서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 할지도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고자 한다면 정해놓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내가 과실하지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폴트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않을까요?

사고후 서류 처리
변호사 선임
통역 및 교통편 제공

치료 전문 LMT마사지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각종 보험
BlueCross
BlueShield

CareFirst BlueCross BlueShield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직장사고 등 상해**에 관한 후유증은 20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지난 3년안에 **본인 혹은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Mocurry Chiropractic |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410-480-0083

트럼프와 언제든 통화한다... “스틸 지명, 한국엔 좋은 기회”

(주한미대사 지명자)

“역대 대사 중 대통령과 가장 친밀
해잡수함 도입 등 큰 도움 될 것”
트럼프도 과거 “스틸 전폭 지지”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또 아내이자 엄마, 그리고 전 하원의원
의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
한 미국대사로 지명한 미셸 스틸(한
국명 박은주·71)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SNS) 때문에 걸어 놓은 글이다. 그는
“비록 내 영어가 서툴지 몰라도 나의
목소리는 분명하고 입장은 확고하다”
며 이민자 출신 정치인으로서의 정체
성을 당당히 밝히고 있다.

스틸 지명자는 이달 초 자신의 정치
적 기반인 캘리포니아를 떠나 워싱턴
에서 20일(현지시간)로 예정된 상원 인
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그의 측근

들은 18일 본지에 “대통령과 직접 소통
할 수 있는 스틸의 기용은 한국에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측근들이 말하는 ‘대통령과의 소통’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2024년 11월 트
럼프 대통령은 하원의원 3선에 도전하
던 스틸 지명자를 “미국에서 가장 강
력한 여성 하원의원”이라고 치켜세우
며 “나의 완전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
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으로
분류되는 프레드 플라이트 미국우선
주의정책연구소(AFP) 부소장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주
한 미국대사 가운데 대통령과 언제든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며
“스틸은 미국 대통령이 자신과 가장 가
까운 사람을 직접 한국에 보낼 대사로
임명할 사실상의 최후 사채”라고 평가
했다. 이와 관련 현지 소식통은 “금융계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왼쪽)와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 [스틸 X 캡처]

출신인 조지 글라스 현 주일대사와 상
원의원 출신 데이비드 퍼듀 주중대사
는 둘 다 트럼프의 측근”이라며 “한국
에 국무부 출신 ‘실무형 인사’가 아닌 대
통령 측근을 보낸 것은 한국에 대한 외
교적 우선순위를 중·일과 동급으로 올
린다는 시그널”이라고 해석했다.

스틸은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1975년 실향민 출신 부모와 함께 미국

에 이민한 그는 캘리포니아주 조세형
평국 위원과 오렌지카운티 행정책임
자를 거쳐 공화당 불모지인 캘리포니
아에서 두 차례 연방 하원의원으로 당
선된 ‘아메리칸 드림’의 산증인이다. 전
업주부였던 그는 1992년 로스앤젤레스
(LA) 폭동 사태를 계기로 한국계 정치
인의 필요성을 절감해 정치에 뛰어들
었다.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의장을 지
낸 남편 스틸 변호사는 스틸이 공화
당의 핵심으로 발돋움하는 과정에서
든든한 후원자가 됐다.

손 스틸은 레이건, 부시, 트럼프로 이
어지는 미국 보수정치를 모두 거친 공
화당의 거물이다. 특히 2003년 민주당
소속 그레이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주
지사를 끌어내리고 아널드 슈워제네
거를 지지사로 만든 ‘주지사 리콜 운동’
을 주도했다. 스틸 지명자 부부와 가까
운 정치권 인사는 “2016년 대선 당시

손 스틸은 캘리포니아 전당대회 of 재
정 부문을 쥐며 트럼프의 확실한 우군
이 됐다”며 “한국으로선 스틸 대사 부
임을 장기적으로 손 스틸의 ‘공화당 네
트워크’까지 우군으로 확보할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해 1월 필립 골
드버그 전 대사가 이임한 후 1년 4개월
간 공석 상태다. 한국이 트럼프 정부의
외교 우선순위에 계속 밀리고 있다
는 지적 속에 관세와 대미 투자 등 무역
문제와 ‘동맹의 현대화’로 상징되는 안
보 문제, 북한 비핵화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플라이트 부소장은 “트럼프 대통
령이 미셸에 기대하는 최우선 과제는
무역 협정을 통한 양국의 경제 협력 증
진”이라며 “한국 입장에서 양 정상이
합의한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에 스틸
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
조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내일 의회 일정있어 술 고민”

“하루 더 있게 전화해볼까요”

(이 대통령)

‘오모테나시(おもてなし·진심을 담은 일
본식 접대)’ 외교에 화답하는 ‘선비정
신’ 외교.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
에서 19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관통
하는 수석어는 선비정신에 빛나는 극
진한 환대였다.

지난 1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
苗) 일본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縣)에
서 열린 정상회담 당시 일본 측이 오모
테나시 외교를 선보였다면, 이번엔 한
국 측이 ‘군자는 벼를 맞이함에 있어 정
성을 다한다’는 안동의 선비정신을 담
아 환대한 것이다.

올해 들어 두 번째 성사된 한·일 정
상의 서둘 외교는 이 대통령이 오후 1
시 40분쯤 정상회담 장소인 안동시내
의 호텔 입구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직
접 맞이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다카이
치 총리의 차량이 호텔 입구로 들어서
자 전통 의상대와 취타대가 아리랑을
연주하며 호위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선물받은 티타
늄 안경을 쓰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차 문을 열고 내리자 서서 기다리고 있
던 이 대통령은 환하게 웃으며 손뼉을
친 뒤 악수했다.

이 대통령은 선비와 양반, 각시 등 여
러 얼굴을 담은 안동 하회탈 9점을 이
어붙인 목조각 액자, 홍삼과 한지(韓
紙)로 만든 가족가방을 조선통신사 행
렬도로 포장한 ‘조선통신사 세트’ 등
을 다카이치 총리에게 선물했다. 강유
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조선통신사

당시 양국 간 상징적인 교류 품목 중 하나
였던 한지 가족가방과 홍삼도 준비
해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양국의 견고한
유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자신의 고향인 나라현(縣)에서
생산한 도제 전통 잔과 후쿠이현에서
만든 티타늄 안경대를 이 대통령에게
선물했다.

회담 후 만찬에는 조선시대 종가에서
귀한 손님을 맞을 때 상에 올리던 영
계 조림 ‘전계아(煎雞兒)’가 주 요리로
올랐다. 전계아는 안동 지역 종가의 고
(古)조리서 『수운잡방(需雲雜方)』(보
물 제2134호)에 등장하는 여름철 보
양식이다. 오늘날 전국으로 퍼진 안동
찜닭의 원형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를 위해 고춧가루를 모
두 뺀 음식들로 준비했다”고 소개했다.

또 안동 전통술인 태사주·안동소주
와 함께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
현의 사케가 만찬주로 함께 올랐다. 양
국의 화합을 기원하는 취지다.

다카이치 총리가 “내일 의회 일정이
있어 술을 마셔야 할지 매우 고민했다”
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제가 전화해서
하루 더 머무를 수 있도록 해볼까요?”
라고 농담을 건넸다.

오현석 기자

이화동창회, 봄맞이 야유회 개최

모금액 2천7백불
학용품 지원사업에 기부

음이 끊이지 않았으며, 지역사회의 후
원으로 준비된 풍성한 경품 추첨도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저소득
층 아동들을 돕기 위한 ‘Little Lights
Backpack Drive’ 기금 마련 캠페인
을 함께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 동창
회는 ‘이화 함께 걷기(Ewha Walk
Together)’와 ‘이화 베이킹 세일(Ewha
Baking Sale)’을 통해 마련된 수익금
\$2700 전액을 백팩과 학용품 지원 사업
에 기부할 예정이다.

한편, 여름방학 동안 이화여자대학교
캠퍼스를 직접 방문하는 장학금 수혜
학생들도 이날 야유회에 함께 참석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홍발벗 기자**

이화여자대학교 워싱턴 DC 지회 동창
회(회장 김원)가 지난 16일 버지니아 레
스틴의 Lake Fairfax Park에서 동창과
가족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화
정기 봄 야유회 및 함께 걷기’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함께 맨손체조로 몸을
풀 뒤 호수 둘레길을 걸으며 자연 속에
서 담소를 나눴으며, 이어 동문들의 후
원으로 마련된 맞춤 도시락과 과일, 커피
를 즐기며 서로의 근황을 나누는 화
기에애한 시간을 가졌다. 이후에는 다
양한 게임과 레크리에이션이 이어져 웃



이화여대 동창회 워싱턴지회는 지난 16일 봄 야유회를 갖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워싱턴 날씨 (°F)

21일(목)	64-53	☁	24일(일)	63-58	☀
22일(금)	57-50	☁	25일(월)	71-62	☁
23일(토)	58-52	☁	26일(화)	77-64	☁

5월 20일(수) 95-62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센터빌 중앙장로교회 근처
5 에어커 전월주택
\$1,050,000 **즉집**
최신 수영장, 차고 2, 방 3, 욕 3

레스턴 싱클레 **셀러 클레**
타운센터/메트로 근처
\$799,000 **즉집**
차고 2, 방 5, 욕 3, 워드아웃 부엌

현던 럭셔리
타운홈
\$850,000 **즉집**
차고 3, 방 3, 욕 3 1/2

세금 줄이고, 노후 준비까지!

“자영업자와 고소득 전문직 오너분들을 위한 똑똑한 절세”

지금은 절세가 곧 생존이고 경쟁력입니다.

**[은퇴 후 소득에 대한 미리하는 세금플랜,
Mega Backdoor 등 Roth Conversion 을 이용한 절세 전략!]**

왜 이 플랜이 필요할까요?
개인 401(K) 보다 훨씬 높은 납입 한도!
사업주에게 조기 은퇴 자금 마련 기회 제공!
세금 공제와 은퇴 준비를 한 번에!

이런 분들께 꼭 필요합니다!
직원이 없는 부부 자영업자: Solo 401(K)로 세금 공제 + 은퇴 플랜을 동시에!
고소득 전문직 오너 (직원 10 ~ 15명 이하): 큰 세금 혜택 + 은퇴 플랜 마련!

UNIFinancial
worldwide Marketing

로리 문 Cell. 703.895.7648
Office. 703-865-8788
send2lorimoon@gmail.com

재정 플랜 전문가 & 연방 세무사

페어팩스 VA 3701 Pender Dr. Suite 160 Fairfax, VA 22030
리치몬드 VA 14321 Winter Breeze Dr. Suite 15 Midlothian, VA 23113
엘리콧 시티 MD 3277 Pine Orchard Ln. Suite 3 Ellicott City, MD 21042
페이트빌 NC 5085 Morganton Road, Suite 300 Fayetteville, NC 28314
보스톤 MA 100 Summit Drive, Burlington, MA 01803

메모리얼 연휴기간 특별 교통단속

페어팩스 카운티 전역서
과속·음주·안전벨트 주의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은 메모리얼 연휴 특별 교통단속을 실시한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은 메모리얼 연휴 기간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교통위반 사항을 단속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전국적인 '안전벨트 착용 캠페인(Click It or Ticket)'을 비롯한 지속적인 안전활동의 일환으로 연휴 기간 동안 계속된다.

메모리얼 데이 연휴는 비공식적으로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시기로, 교통량 증가, 소풍가 혼잡, 동네 모임, 야외 활동, 그리고 도로 위의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증가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은 이번에 과속음주 운전, 난폭 운전, 부주의 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위반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안전벨트 착용과 관련, 버지니아는 주법에 따라 운전자와 앞좌석 탑승자

는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어린이는 나이, 키, 몸무게에 맞는 승인된 유아용 안전시트, 부스터 시트, 또는 안전벨트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고정해야 한다.

또한 최소 2살이 될 때까지는 후방 장착형 안전 시트에 앉아야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경찰은 △음주 전 사전에 운전할 사람 지정해 술

을 마시지 말고 △차량 공유 서비스나 택시 이용 △필요하면 하룻밤을 묵고 △술에 취한 친구가 가족에게 절대 운전대를 맡기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그리고 주택가나 공원에서는 △제한 속도 준수 △산만 운전 금지 △횡단보도서 보행자에 무조건 양보 △자전거 운전자 추월 시 충분한 공간 확보 △주택가·공원 주차장에서 서행 운전할 것을 요청했다.

김성한 기자

미/니/인/터뷰

정명훈 미연방총한인회 총회장

“이제는 안방 주인이 돼야 한다”

올해 초 미연방총한인회 정명훈 총회장만큼 바쁜 시간을 보낸 사람도 드물다. 분주하게 미연방총한인회를 챙기고 한국과 미주 전 지역을 오가며 한인들과 한인 커뮤니티의 권익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비지땀을 흘렸다.

이제 그는 정기총회(시간 미정)까지 약 몇 개월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다. 미연방총한인회를 국내외로 널리 알리고 있는 가운데 17일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기도·찬양감사축제’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 DC를 방문한 정명훈 총회장을 만나 그의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지난 2년간 실적과 성과

“밤낮 없이 뛰다보니 어느새 2년이 훌쩍 지났다. 여러 가지 성과가 있지만, 그 중에서 ‘지적재산권 확보’와 ‘한인 정체성 확립’, 그리고 ‘한인 정치 참여 활성화’와 ‘미래 세대 한글교육’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한인 단체가 연방 정부에 그랜트 신청하는 방법도 다각도로 모색했다. 주인 의식과 관련해서는 한인이 이제는 더 이상 셋방살이가 아니라 안방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는 데도 소귀의 성과를 올렸다고 본다.”

-차기 총회장 후보자가 없는데

“미연방총한인회 제2대 총회장 선거 공고를 1차에 이어 2차에 걸쳐 했는데도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아



건국 250주년 기도회서 인터뷰를 하는 정명훈 총회장.

안타깝다. 현재 시간이 없는 관계로 선거관리위원회와 이사회 회의를 통해 정기총회와 차기 총회장 선출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연방총한인회 비전을 제시한다면
“전국화·전문화·다양화라고 정의할 수 있고, 미주 250만 동포와 각 지역 한인 커뮤니티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데 있다.”

-한인사회에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는
“국내외적으로 정치, 경제, 안보 상황이 어려운 시기지만, 이럴 때일수록 미주 지역의 한인들이 더욱 더 화합과 단결을 도모해 노력한다면 우리가 뻗어나갈 기회는 아직도 무수히 많다.”

김성한 기자

제21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 성황리 개최

재미한국학교협의회
김아리 학생 대상 영예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총회장 권예순)가 주최한 제21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가 지난 16일 온라인(Zoom)으로 개최됐다.

이날 대회는 미주 각 지역협의회를 대표하는 학생들이 참가해 자신의 꿈과 경험, 가치관을 한국어로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는데, 학생들은 자신만의 진솔한 이야기와 미래에 대한 비전은 자신감 있게 발표하며 큰 감동을 전했다.

권예순 총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자신의 생각

과 꿈을 한국어로 표현하는 경험은 차세대 정체성 교육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회 심사는 김정남 경희대학교 교수, 문영숙 최재형기념사업회 이사장 등이 맡았다.

학생들의 발표는 의료, 우주, 유전학,

리더십, 음악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단순히 장래희망을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 자신의 경험과 삶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진심을 담아 전달해 많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특히 대상을 수상한 김아리 학생(새달라스한국학교 플래노캠퍼스)은 ‘나의 작은 행동들이 누군가의 옆자리가 될 때’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리더십의 의미를 따뜻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풀어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회 수상자는 김아리(대상, 새달라스한국학교), 김동현(금상, 실리콘밸리한국학교), 김유나(은상, 워싱턴통합한국학교), 박상희(은상, 롱아일랜드한국학교), 박보미(동상, 늘푸른한국학교)의 4명 등이다.

김성한 기자

도미니언 에너지 매각...요금 혜택

넥스타에라 에너지(NextEra Energy)가 도미니언 에너지(Dominion Energy)를 약 670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양사가 18일 발표했다.

합병이 성사되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규제 대상 전력회사가 탄생하게 되는 데, 이는 인공지능과 데이터센터의 성장, 특히 북버지니아

지역의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것이다. 양사는 도미니언 고객들이 이번 합병 완료 후 2년간 22억5000만 달러 상당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병은 규제 당국과 주주들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승인 절차는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한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OMNI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광고는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행 의료시설 완비
- 최신행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침·부항·뜸
한약 (치료제, 보약)

원장 채여혜
- 북경중의대학 중의과 졸업
- 중국국제(대사)연방외교수령(사)사
- 서울중의대학 중의과대학사
- 임상 25년 경력

571-587-4679 / 703-828-0056
4208 Evergreen Ln, Ste 221, Annandale, VA 22003
http://chaoorientalmedicine.com/

교통사고 / 개인파산 전문 신성재 변호사

“ 교통사고 최대보상을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 드립니다. 저희에게 대충 합의란 없습니다. ”

- 교통사고 최대보상
- 개인상해 / 민사소송
- 개인파산 Chapter 7 / Chapter 13 (Payment Plan)

파산을 통하여 경제적 고통으로 부터 해방 되시기 바랍니다. 30년 경력의 파산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소송 전문 변호사 그룹 ★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Fax: 240.775.3004 / E-mail: sjshin.esq@gmail.com

쥐어짜는 가주, 세금 폭탄

판매세·호텔세·주차세 등 세금과 수수료 인상안 12개 결국 중산층·서민만 직격탄

가주에서 각종 세금·수수료 인상안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내달 2일 예비선거와 11월 중간선거에서 추진 또는 상정된 세금·수수료 인상안만 무려 12개에 달하면서, 가주의 높은 세 부담을 일컫는 '텍스포니아(Taxifornia)'라는 용어까지 재등장하고 있다.

먼저 내달 2일 예비선거에서는 LA 카운티 판매세 인상안인 '메저 ER', 호텔세 확대안 '메저 TC', 호텔세 인상안 '메저 TT', 마리화나 세금 확대안

(Proposition CB) 등이 공식 투표안으로 올라와 있다. 부동산 소유주를 대상으로 한 가로등 특별분담금 인상안도 별도 주민투표로 진행된다.

대표적인 안건은 LA 카운티 판매세 인상안인 '메저 ER'이다. 현재 9.5~10% 수준인 판매세를 5년간 0.5% 포인트 인상해 공공병원·응급의료 재원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통과되면 판매세는 최대 10.25%까지 오른다.

LA시 호텔세 확대안인 '메저 TC'는 온라인 예약업체의 수수료까지 호텔세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안건이다. '메저 TT'는 현재 14%인 LA시 호텔·모텔·단기렌탈 숙박세를 2028 LA올림픽 종료 때까지 한시적으로 16%로 올리는 내용이다.

LA시 부동산 소유주들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이번 예비선거에서 주민투표 형식으로 진행되는 LA시 가로등 유

지보수 특별분담금(Prop 218) 때문이다.

LA시는 노후 가로등 교체와 구리전선 절도 대응 비용 등을 부동산 소유주에게 일정 부분 전가하겠다는 방침이다. 11월 중간선거와 향후 주민투표 안건으로 거론되는 주차세 인상안도 직장인 부담을 키우고 있다.

LA시는 현재 10%인 주차 점유세를 15%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우버·리프트 추가 수수료, 온라인 배송 수수료, 스포츠·콘서트 티켓 특별세, 빈집세 등 각종 신규 인상안도 추진되고 있다.

우버·리프트 수수료가 도입되면 차량 호출 때마다 1~2달러의 추가 비용이 붙는다. 온라인 배송 수수료가 현실화 될 경우 아마존 등 온라인 쇼핑 때마다 건당 1달러 안팎을 더 부담할 가능성도 있다.

부에나파크에 거주하는 김지연(38)씨는 "우버 요금이나 온라인 배송비까지 계속 오르면 사는 게 더 팍팍해질 것 같다"며 "결국 이런 비용은 소비자들이 다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여기에 고소득층 자산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부유세' 도입 논란도 커지고 있다. 현재 가주 최고 소득세율은 이미 13.3%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윤주호 회계사는 "최근 몇 년간 가주민들이 텍사스, 네바다, 플로리다 등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주나 애리조나처럼 세금 부담이 낮은 주로 이주하는 현상이 눈에 띄게 증가한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세금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며 "높은 세율은 타주로의 이탈을 더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은영 기자

캐롤튼 총격, 부부 공모 수사 한씨 아내 미네소타서 체포



텍사스주 캐롤튼 한인타운 총격 사건 의 용의자 한승호(69)씨의 아내까지 체포되면서 사건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캐롤튼 경찰국은 한씨의 아내 한애손(67·Ae Son Han·사진)씨를 살인 혐의로 18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씨 부부가 사건 당시 함께 있었으며, 아내가 두 번째 살인을 도운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부부 공모 범행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한애손씨가 두 번째 범행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한애손씨는 사건 직후 남편과 함께 도주했으며, 이날 미네소타에서 검거됐다. 현재 부부를 텍사스로 송환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강한길 기자



시미밸리산불, 800에이커 태워 18일 시미밸리에서 발생한 '샌디산불'이 강풍을 타고 빠르게 확산하면서 주택 등 여러 건물이 화염에 휩싸였다. 벤투라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화재 면적은 800에이커까지 확대됐으며, 인근 지역에는 대피 명령과 경고가 내려졌다. 550여 명의 소방관과 다수의 소방차와 항공기가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KTLA캡처]

"산불 위험땀 뒷마당 바비큐 규제"

시장 후보 라만 발의안 논란

LA시장 선거에 나선 니디아 라만(사진) 시의원이 주택가 뒷마당 바비큐를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라만 시의원은 지난 13일 '레드플래그경보(Red Flag Warning)' 발령 시 바비큐와 화덕, 야외 불 사용 제한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드플래그 경보는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크게 높아질 때 내려진다.

라만 시의원은 동의안을 통해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주택가 야외 화기 사용 제한 필요성을 시 당국

이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사실상 주택가에서 바비큐를 하는 행위를 규제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시의원들은 즉각 반대에 나섰다.

모니카 로드리게스 시의원은 별도 수정안을 제출해 바비큐 제한 관련 내용을 삭제했고, 결국 해당 내용은 동의안에서 빠졌다. 그는 "LA 주민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자기 집 뒷마당 바비큐 금지라고 생각하는가"라며 "가족 생일파티나 멕시코식 바비큐 같은 모임은 LA 주민들의 일상"이라고 비판했다.

강한길 기자

노후자금 401K도 사기 표적

간단한 개인정보만으로 인출

최근 은퇴자들의 노후 자산이 담긴 401K 계좌가 새로운 신변도용 사기 표적으로 떠오르고 있다.

폭스뉴스는 한 사기범이 401K 플랜 기록 관리 업체 콜센터에 전화해 계좌 정보를 변경한 뒤 약 75만 달러를 인출했다고 지난 17일 보도했다. 사기범은 피해자의 사회보장번호

(SSN), 생년월일, 주소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만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만 있으면 사기범들이 고객센터를 속이거나 계정 접근 권한을 재설정해 401K 계좌를 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401K 계좌는 신용카드 사기와 달리 소비자 보호 장치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어 사전 예방과

조기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401K 계좌를 노린 사기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계좌 포탈 다중 인증(MFA) 활성화 ▶비밀번호 재설정, 연락처 변경, 주소 변경 등 모든 계정 변경 사항에 대한 알림 기능 활성화 ▶분기별 계좌 명세서 확인 ▶국세청(IRS)의 신원보호 번호(IP PIN) 발급 등이 권고된다. 송윤서 기자

박하영씨 디카시 공모전 장려상

미 동부 한국디카시인협회 개최

박하영(사진) 가든문화회 회장이 미 동부 한국디카시인협회 주최 제1회 뉴욕 디카시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소설가이자 수필가인 박 회장은 지난달 열린 공모전에 출품한 '초콜릿 밀크레이크' 작품을 통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 회장은 세도나 지역을 여행하면

서 찍은 사진에서를 결합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시는 어렵다고 느꼈는데 디카시라는 장르를 만나며 짧은 언어 안에 깊은 울림을 담는 매력에 끌렸고, 배우는 마음으로 도전하게 됐다."



강한길 기자

한국과 미국에서의 통증·재활 분야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가 **양·한방 통합 치료**로 집중 케어 해드립니다!

교통사고 / 메디케어
여행자 보험, 메디케이드
각종 의료보험, 캐시플랜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통증치료
진료 과목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신경발달 치료 보박스 치료	근육 통증침 치료 한방 침 치료, 전기 치료 관절/근막이완 치료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산전/산후 통증
- 교통사고 손상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뇌졸중/척추손상 후 재활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University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University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Licensed Acupuncturist

원장 김우기 DPT, LAC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김우기 통증·한방·재활 물리치료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받습니다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센터빌, 첼렌리 지역]

전쟁 상처 안고 돌아온 한인, 치유 나섰다

이라크 참전, 센서블케어 폴 김 군인위한 건강 플랫폼 구축 주목 전역 후 후유증 겪는 전우 돌봐

이라크 전장에서 죽음을 수없이 마주했던 남가주 출신의 한인 참전용사가 자신과 같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군인과 가족들의 정신적 회복을 돕는 의료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라크 전쟁 참전용사인 폴 김 센서블케어 대표는 PTSD(외상후스트레스 장애)와 싸웠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신건강 치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는 “전쟁에서 살아남는 것도 힘들었지만, 귀국 후 치료와 도움을 받는 과정 역시 또 다른 전투였다”고 회상했다.

한국에서 태어난 김 대표는 5세 때

가족과 함께 미국에 이민와 남가주인 랜드 엠파이어 지역에서 성장했다. 그의 인생을 바꾼 날은 2001년 9월 11일이었다. 시민권을 취득한 바로 그날, 뉴욕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졌고 사회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김 대표는 “미국 시민이 된 날 나라가 공격받는 모습을 보며 봉사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18세의 나이에 육군 506보병연대에 배치됐다.

그가 투입된 이라크 전장은 미군 역사에서도 가장 격렬했던 전투 지역 가운데 하나였다. 매일 폭발음과 총성이 이어졌고 죽음을 늘 가까이에 있었다.

그는 “함께 웃던 전우가 다음 날 사라지는 일이 반복됐다”며 “전우들의 죽음과 정신적 붕괴를 가까이서 지켜봐야 했다”고 말했다.

전역 후에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이라크전 참전 당시 육군 506보병연대 소속이었던 폴 김(오른쪽) 씨. [Military.com Network]

불면증과 극심한 불안, 우울증이 이어졌고 일부 전우들은 범죄와 약물 중독, 극단적 선택 등으로 삶이 무너졌다.

당시의 참혹한 현실은 2010년 PBS 다큐멘터리 ‘상처 입은 소대(The Wounded Platoon)’를 통해 알려졌다.

그러나 김 대표를 더욱 절망하게 한

것은 치료 시스템이었다. 상담사를 찾기 어려웠고 보험 절차는 복잡했다. 진료 예약은 몇 주씩 밀렸고, 군인 의료보험인 트라이케어를 받는 정신건강 기관은 턱없이 부족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복잡한 시스템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고 결국 고립되는 현

실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그 좌절은 새로운 사명으로 이어졌다. 김 대표는 정신과 병원 운영 업무를 9년간 맡으며 보험 시스템과 정신건강 의료 구조를 직접 익혔다. 이후 해군 항공공군관 출신 폴 정 박사와 함께 2017년 센서블케어를 설립했다. 목표는 분명했다. 참전용사와 군인 가족들이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정신건강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다.

센서블케어는 원격진료 기반 정신건강 플랫폼으로, 정신과 진료와 심리상담을 함께 제공하며 트라이케어 등 주요 보험을 받아 접근성을 높였다. 지금까지 도움을 받은 참전용사와 군인 가족은 5000명을 넘어섰다.

김 대표는 PTSD 치료의 핵심은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영 기자

한인마켓 주차장서 시니어 또 털렸다

고가 시계·귀금속 노리고 접근 가짜 반지로 시선 끈 뒤 범행

대낮에 한인 마켓 주차장에서 한인 시니어를 노린 강도 사건이 또 발생했다.

최근 LA 한인 마켓과 쇼핑몰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고가 시계와 귀금속을 노린 ‘주위 분산 절도(distracted theft)’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인 시니어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제보자 예나 박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5일 정오쯤 밴나이스 지역 그린

랜드마켓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한인 남성 시니어가 장을 본 뒤 주차장으로 향하던 중 차량에 타고 있던 남녀가 접근했다. 이들은 아르메니아어로 보이는 남성과 여성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여성이 먼저 말을 걸며 가짜 반지를 보여주고 주려는 듯 시선을 끌었고, 그 사이 남성이 피해자의 팔목에 있던 고가 롤렉스 시계를 빼앗아 달아났다”며 “역할을 나눠 움직이는 조직적인 범행처럼 보였다”고 전했다.

당시 현장에는 다른 한인 고객들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대낮인데 갑자기 주변 한인들이 소리를 지르고 놀라는 등 현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며 “몸도 불편한 시니어들이 이런 범죄를 당하는 게 너무 안타깝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또 사건 며칠 전에는 인근 다른 한인 마켓 주차장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한인 시니어가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린랜드마켓 측은 18일 CCTV 확인 여부와 주차장 시큐리티 카드 운영 여부 등에 대한 본지 질의에

“답변할 수 없다”고만 밝혔다.

앞서 지난 2월에는 한인타운 로데오 갤러리아 몰 주차장에서 미행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 용의자들은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여는 순간 반대편 문을 열고 가방을 낚아채 달아났다. 범행 시간은 10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최근 유사 사건은 용의자들이 주차장에 대기하다 장을 보고 나오는 시니어들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지르는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다. LA경찰국(LAPD)도 시니어들을 노린 ‘주위 분산 절도’ 범죄 증가에 대해 경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들어 LA 지역에서 만 최소 140건 이상의 유사 사건이 발

생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말을 걸거나 가짜 보석·반지 등으로 접근한 뒤 실제 귀금속을 훔치는 수법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일부는 길을 묻거나 “선물을 주겠다”, “기도해주겠다”며 접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 안이나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이 접근할 경우 대화를 피하고 ▶수상한 차량이 주차장이나 주택 주변을徘徊할 경우 차량 번호판과 인상착의를 기록해 신고하며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가짜 귀금속을 맨손으로 만지지 말고 증거를 보존할 것을 당부했다. 강한길 기자

한인 52% “영어 서투러 정부 혜택 못받아”

전국에 거주하는 한인 중 절반 이상의 영어 능력이 미숙한(LEP) 수준으로 파악됐다. 영어를 구사하는 것이 불편한 탓에 연방정부나 로컬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배니핏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은 설명이다. 18일 초당파적 연방 민권위원회(USCCR)가 발표한 ‘영어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언어 접근성’ 보고서에 따르면, 집에서 모국어를 사용하는 한인 인구 중 52%(55만7162명)는 영어

능력이 미숙한 이들로 구분됐다. 집에서 사용하는 모국어별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베트남어 사용자들 중 영어 능력이 부족한 인구 비율이 5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중국어 사용자 중 영어 능력이 부족한 이들 비율이 한

국어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52%를 기록했다.

이외에 러시아어 사용자(44%), 스페인어 사용자(41%), 벵갈어 사용자(41%)들 중 영어 능력이 부족한 인구 비율이 40%를 넘어서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국에 거주하며 집에서 모국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약 7110만

9132명으로, 이중 39%가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배니핏이나 프로그램의 경우, 다양한 언어로 번역본을 제공하지만 필요한 경우 통역 시스템을 요청하긴 어렵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김은별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280, Ellicott City, MD 21043

HYUNS HOMECARE
Senior Services
Always With You!
703-507-2492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701 Pender Dr. #160, Fairfax, VA 22030

세라젬

내 척추길기와 굴곡도에 맞추는
특허기술 “척추 온열 의료기기”
공간 효율적이고 우아한 안마의자 “파우저”
무료 체험 가능 · 무이자 할부 가능 (K-마켓 안에 위치)

공식 판매 업체 **703.798.7270**
4239 John Marr Dr. #1, Annandale, VA 22003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약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여성용 골프 의류,
가방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퀄리티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40
M&T 대장금(미역조 할) 300m
웨일리노래방 뉴타운홈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For your many sides,
there's Nationwide®.

AUTO - 자동차보험 | HOME - 주택보험 | LIFE - 생명보험
BUSINESS - 사업체보험 | RETIREMENT - 은퇴연금

Nationwide
is on your side

Albert Kim 보험
albert@wkkinc.com
Won K. Kim Insurance Agency, Inc.
Lic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301) 962-8300
Baltimore (410) 465-5499
Virginia (703) 312-0909

12111 Heritage Park Circle
Silver Spring, MD 20906

Products underwritten by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HomeOffice: Columbus, OH 43215. Subject to underwriting guidelines, review, and approval. Availability varies. Nationwide, Nationwide Is On Your Side, and the Nationwide N and Eagle are service marks of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2018 Nationwide CPO-0836A0 (08/16) 7400524

이민자 향한 분노, 유럽을 ‘오른쪽’으로 밀다

주류세력 떠오르는 강경우파

독일대안당, 지지율 29% 역대 최고
영국선 개혁당이 지방의회 제1당 돼
프랑스 르펜·이탈리아 멜로니 견재

2010년 반이민 정서 타고 세력 확장
안보 불안·경제 침체, 우경화 부추겨
한때 모델 삼은 트럼프엔 거리두기

유럽의 ‘우향우’ 흐름이 심상찮다. 2010년대 중반 반(反)이민 정서를 발판으로 세력을 키운 강경 우파 정당들이 주변부를 넘어 주류 세력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독일에선 제1당 자리를 넘보고, 영국에선 양당 체제를 흔드는 등 강경 우파를 빼고 정부의 향방을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

지난 16일(현지시간) 강경 우파 독일대안당(AfD)의 지지율이 29%(여론조사기관 인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일이 대표적이다. 반면에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기독교민주당(CDU)·기독교사회당(CSU)의 중도 우파 연합 지지율은 22%에 그쳐 4년 만의 최저치였다.

영국에선 강경 우파 영국개혁당이 전통적인 노동당·보수당 양강 구도를 깨뜨렸다. 지난 7일 잉글랜드 지방의회 선거에서 1451석을 추가 확보해 총 1453석으로 제1당이 된 것이다.

루마니아에선 좌파 사회민주당(PSD)이 강경 우파 결속동맹(AUR)과 연합해 일리에 블로잔 총리의 중도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시켰다. “강경 우파가 부상하며 기존 주류 정당도 그들과 협력하지 않고는 정부를 구성하기 어려워진 상황”(폴리티코)이 된 것이다.



자유당만큼이나 확고하다”고 평가했다. 유럽 강경 우파는 2010년대 중반 시리아 전쟁으로 불거진 난민 위기를 기점으로 성장했다. 지중해를 건너온 난민과 이주민이 급증하며, 주거·복지·교육 등 사회안전망의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커졌다. 이들 정당은 반이민·반난민 기조를 앞세워 주류 정당에 대한 불만을 파고들었다.

그러다 2016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계기로 그 세력이 더욱 커졌다. 같은 해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의 출범은 유럽 강경 우파 진영에 ‘주류 정치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는 자신감을 심어줬다. 2022년, 멜로니가 이탈리아 총리로 취임하며 그 자신감은 현실이 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안보 불안, 유럽 경제 침체도 강경 우파의 성장을 도왔다.

주변부에 머물렀던 이들이 집권 세력으로 부상한 데는, 극단적 이미지를 과감히 내던진 전략 변화가 있었다. 멜로니 총리는 집권 이후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틀을 유지하며 실용 노선을 걸어 “통치 가능한 세력”임을 증명했다. 마린 르펜은 2011년 당권을 잡은 뒤 거친 언사를 줄이고, 생활물가와 치안 등 일상 의제를 내세워 중도층의 거부감을 낮췄다.

유럽의 강경 우파가 한때 정치적 모델 삼았던 트럼프 미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는 흐름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유럽의 이익을 훼손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16일 영국 런던 보수 집회에서는 “잉글랜드를 다시 위대하게(MEGA)” 등의 구호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박인희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해외에 투입할 수 있는 외교 자원이 고갈되면 서 리더십이 축소됐고, 자연히 유럽 국가들 간 자국 우선주의가 강해졌다”고 짚었다.

전문가·이근평 기자

트럼프 지지율 37%, 2기 최저

NYT·시에나대 여론조사

10명 중 6명 “이란전쟁 잘못” 전쟁·고물가에 중간선거 악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재집권 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란 전쟁 장기화와 가파른 물가 상승의 여파로 분석된다.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대가 18일 발표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지지한다는 미국인 응답자는 37%였다. 이는 NYT·시에나대 조사 기준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후 가장 낮은 수치다. 국정 운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

답은 59%였다. 특히 이란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두드러졌다.

전체 응답자의 64%가 이란 전쟁을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올바른 결정’이라는 응답은 30%에 그쳤다. 55%는 이란 전쟁이 비용을 치를 만큼 가치 있지 않다고 답했다.

정치적으로 중립 성향인 무당층에서는 73%가 이란 전쟁을 잘못된 결정이라 답했다. 또 전체 응답자의 63%는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군사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답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군사행동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도 악화했다. 경제 정책 지지율은 33%(비지지 64%), 물가 대응 지지율은 28%(비지지 69%)



18일 뉴욕타임스스퀘어에 뜬 전광판.

[로이터]

에 그쳤다.

이란 전쟁 관련 지지율은 31%(비지지 65%),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관련 지지율은 31%(비지지 62%)였다.

이민 정책 지지율은 41%(비지지 56%)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을 ‘나쁘다’고 평가한 유권자는 49%로 집계됐다. ‘그

저 그렇다’는 27%, ‘좋다’는 18%, ‘매우 훌륭하다’는 4%였다. 이 같은 민심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가상대결에도 반영됐다. ‘오늘 선거가 열린다면 어느 정당 후보를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0%가 민주당 후보를, 39%는 공화당 후보를 선택했다.

NYT는 “인기 없는 전쟁”과 “어두워지는 공화당의 전망”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라앉고 있다”며 “지지율 하락과 경제적 우려가 겹치며 중간선거로 향하는 공화당의 정치적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
구독 문의
703.281.9660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 리퀴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합니다!(건물·사업체·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쿠쿠 가정의 달 5월 프로모션

렌탈가 월 \$19.99 + 최대 4개월 FREE



기간: 4.29.2026 - 5.27.2026 조건: 기간내 주문 & 5월 내 설치

쿠쿠라서 가능한 혜택! 최고가 신제품 밥솥 증정!

* 고급 렌탈 2건 포함 3건 이상 혜택



* 구매 제품별 사은품 상이함

BRAND STORE 쿠쿠 AS 공식 수리처

• **VA 직영점** 13826 Braddock Rd #C, Centreville, VA 20121 Tel. 571-321-7776

• **힐링마을 Ellicott City** Tel. 443-878-9010

• **H Mart Annandale** Tel. 240-595-2257

• **롯데마트 Ellicott City** Tel. 410-750-8011/ 240-328-5314

프리미엄 제품 CP-SN102HW, CP-TN100S/DS, CP-TN102S, CP-TN102GPK, CP-P012T/G, CP-P011T/G, CP-QN1401SW, CP-KN501HW, CP-FR601HW, CP-FR601SW, CP-FR602SW, CP-ACR1620SW, CP-ABNC100GWH, CP-WN601HW, CP-WN601SW, CAC-F3010FW, CAC-D2020FW, CAC-AH2810FNW

일반 제품 CP-ADR051UW, CP-MN031W/WH, CAC-AA0910FW, CBT-IS1131REW/RRW, CBT-I1030RW, CWS-AO201W

사은품은 지역/매장/판매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모션의 최종 해석권 및 결정권은 CUCKOO RENTAL AMERICA INC. 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쿠쿠 렌탈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판매처 및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해당 프로모션 복수 고객 시 사은품 중복 증정, 단 패키지 상품은 사은품 적용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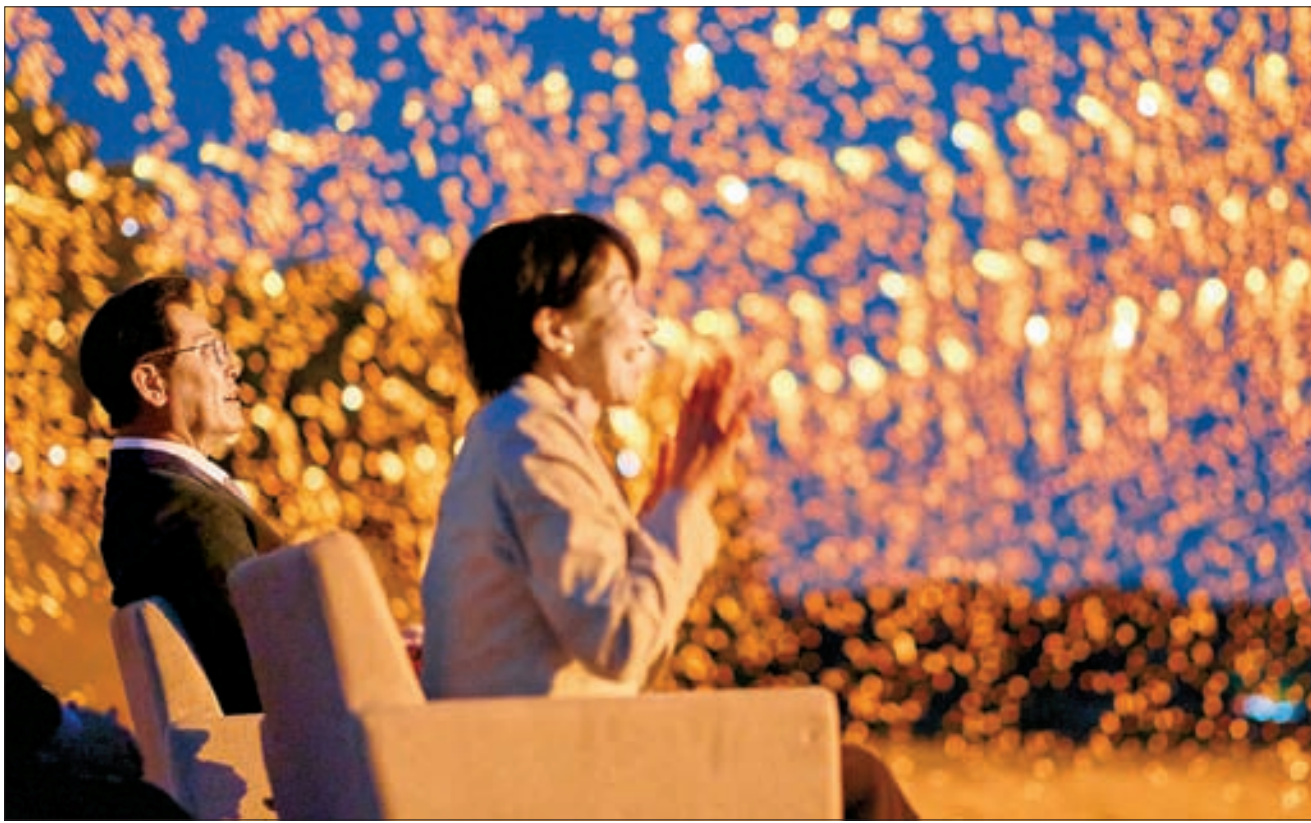
- 동일 계약자 & 동일 빌링 & 동일 설치처 필수
- 구매 후 계약 해지 또는 반품시 지급된 사은품은 회수될 수 있음
- 사은품 관련 부품과 필터 등의 추가 구매 및 A/S는 유상 제공
- 일부 혜택은 중복 적용 불가

CUCKOORENTAL.COM | 888.700.0425

CUCKOO

한·일, 원유 서로 빌려준다... 대북 관련 미묘한 온도차

원유·LNG 스와프 추진, 공급망 협력
이대통령 ‘한·중·일서로 협력해야’
다카이치, 중국 언급없이 동맹 강조



선유줄볼놀이 함께 관람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오후 고향인 경북 안동의 하회마을 나루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함께 선유줄볼놀이를 관람하고 있다.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 1월 이대통령의 다카이치 총리 고향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이다. [사진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 이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105분간 정상회담을 하고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한·일 양국은 원유·석유제품이나 액화천연가스(LNG)가 부족할 때 서로 빌려주는 ‘에너지 스와프’도 추진하기로 했다.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에너지 수급 불안의 직격탄을 맞은 두 나라가 손을 맞잡은 것이다.

회담 직후 공동 언론발표에서 이대통령은 “양국은 핵심 에너지원인 LNG 및 원유 분야의 협력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며 “지난 3월 체결된 ‘LNG 수급협력 협약서’를 바탕으로 양국 간 LNG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원유 수급 및 비축과 관련한 정보 공유와 소통 채널 또한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에너지 공급망 강화, 그리고 원유·석유제품, LNG의 상호 유통과 스와프(교환) 거래를 포함한 한·일 양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뜻을 같이한 데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한·일 원유 스와프 구상은 양국의 장점을 합쳐 원유와 나프타 등 석유제품 공급망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의미가 있다. 한국은 원유를 석

유제품으로 정제하는 능력이 일본보다 뛰어나고, 일본은 원유 비축량이 상대적으로 많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유, 석유제품의 스와프 및 상호공급과 관련된 민관 대화를 장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NG와 관련해서는 세계 1, 2위 LNG 구매 기업인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제라(JERA)가 LNG 운반선 교환 등 협력관계를 구축해 온 것을 더욱 발

전시키기로 했다. 이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 협력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대통령은 “지금 국제정세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우방국 간의 협력과 소통이 필요할 때”라고 했다. 두 정상은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첫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세 차례 정상회담을 했다. 이대통령은 “총리가 지난해 10월 취임했는데 벌써 네 번째 만났다”며 “한·일 간의 서를 외교의 진면목”이라고 했다.

이대통령은 공동 언론발표에선 “한·일 그리고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중·일 3국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공동의 이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도 했다. 다만 중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에 대한 언급 없이 “일·미 동맹, 한·미 동맹”만을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와 북한 문제에 대한 대화도 오갔다. 이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고, 저는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구축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반면에 다카이치 총리는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핵·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북한 대응에 대해 논의했으며, 일·한, 일·한·미가 긴밀히 연계해 대응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북핵 공조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면서 “이대통령이 일본인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한 지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언급도 했다. 다만 강유정 대변인은 사후 브리핑에서 “(이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이대통령은 “일본 조세이탄광에서 발굴된 유해의 DNA 감정이 곧 시작된다”며 “양국이 과거사 문제에 있어 인도주의적 사안부터 협력해 나가는 자치단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조세이탄광 유해 DNA 감정을 제외하고 과거사 문제에 대한 논의는 추가되지 않았다.

윤성민·심석용 기자

“비반도체와 못 해먹겠다” 더 커지는 삼전 노노갈등

노조위원장 “DX와 분리 고민”
반도체 내 적자 사업부는 쟁거

성과급을 두고 3개월 넘게 이어진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임금협상을 넘어 그동안 쌓인 사업부 간 분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세계적인 인공지능(AI) 투자 열풍으로 메모리 반도체가 수퍼사이클(초호황기)을 맞은 가운데, 반도체와 완제품(모바일·가전 등) 부문 간 실적 격차는 크게 벌어진 상태다. 심지어 같은 반도체 부문 안에서도 역대급 실적을 내는 메모리와 적자가 이어지는 비메모리 사업부가 느끼는 온도차는 상당하다.

19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의 2차 사후조정 협상에서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급 재원을 부문별·사업부별로 어떻게 배분할

지를 놓고 극심한 대치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모바일·가전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과의 노조 분리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내부 갈등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날 노조 지도부는 ‘부문 70%, 사업부 30%’ 방식의 배분안을 제시했다. 사업부 간 성과 격차를 완화해 적자를 내고 있는 시스템LSI·파운드리 사업부 직원들도 일정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반면에 회사 측은 부문 공통 재원 비중이 지나치게 커질 경우 적자 사업부 직원들도 흑자 사업부와 사실상 비슷한 수준의 성과급을 받게 돼 성과주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 기조는 삼성전자가 오랜 기간 유지해 온 성

과 보상 철학이다. 삼성전자가 노조 내부에서도 반발 기류가 감지됐다. 반도체연구원 소속이라고 밝힌 한 직원은 사내 게시판에 “만성 적자인 시스템LSI·파운드리가 메모리와 비슷한 수준의 성과급을 받는 구조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업부 성과 반영 비중을 ‘부문 30%, 사업부 70%’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고 적었다. 이와 관련,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전날 텔레그램 ‘초기업 소통방’에 “마무리되면 노조 분리를 고민해 봅시다. 전산노, 동행이 너무하세요. DX는 솔직히 못 해먹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최 위원장은 게시 글을 삭제한 뒤 다른 소통방에 “집행부에 하소연 글을 잘못 올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DX부문 직원들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이하 대응연대)도 초기업노조 지도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대응연대는 이날 노동부에 초기업노조에 대한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승호 위원장이 지난 3월 총파업 계획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파업 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발언한 점이 노조조합법 위반 및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응연대의 법률대리인인 이돈호 변호사는 “파업 참여 여부에 따라 고용상 불이익을 암시해 조합원의 쟁의행위 참여 자율성을 침해했다”며 “단체교섭 요구안 확정 과정에서도 규약상 필요한 총회·대의원회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같은 취지로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단체

교섭 중지 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다. 재계 관계자는 “초기업노조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오히려 부문 간 칸막이를 더 견고히 하고 있다”며 “DS부문 안에서도 적자 사업부 쟁거에만 몰두하는 행태는 노조 스스로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1일로 예고된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삼성 내부에서는 “엔비디아가 파업 기간 생산된 물량은 받지 않겠다고 한다더라”는 설까지 돌고 있다. 이에 DS부문은 파업 돌입 시 발생할 장비 이상과 웨이퍼 손상을 막기 위해 공정 속도를 늦추는 ‘웜다운(Warm-down)’ 작업에 선제적으로 착수했다. 전영현 DS부문장(부회장)은 제조 부서에서 “웨이퍼 투입을 전면 중단하더라도 파업 이후의 품질 확보 방안을 먼저 세우라”며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근·김수민 기자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홈스프링 아동 가족 상담소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팅,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 건강 관련 강의

상담진료분야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선택적 학무증, 조현병, PTSD, ADHD, Autism, 섭식 장애, 발달장애 및 지연,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들, 부모자녀 갈등, 대인관계 갈등, 아동 학대(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별거/사별/이혼/재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관리법

정신건강 전문가 권미경, Ph.D. (Dr. Mi-Kyong Kwon)

- ▶ 한국과 미국에서 25년 이상 임상 경험
- ▶ National Certified Counselor
- ▶ National Certified TF-CBT Therapist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VA)
- ▶ Licensed Clinical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MD)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TX)
- ▶ Registered Play Therapist & Supervisor
- ▶ 전) 한국놀이치료학회 편집 전문위원
- ▶ 전) Kennedy Krieger Institute, Psychotherapist
- ▶ 전) Trauma Training Academy, Faculty

VA 자격증 소유한 심리치료사 구함 이종언·이희영

예약 상담제 각종 건강보험 취급

703-259-5617, 410-241-2520

3915 Blenheim Blvd., STE 23A, Fairfax, VA 22030
www.hopespringchildandfamily.com
info@hopespringchildandfamily.com

가치를 올려 판매하는 부동산 비키리

집을 고쳐,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 드립니다.

- ✓ 수리비 선지출 없음 (클로징 정산)
- ✓ Before / After 전략으로 집값 상승
- ✓ 빠르고 안전한 판매

Before



After



집값 제대로 받고 싶으시면
지금 전화 주세요!

부동산의 모든 상담
애플러스 부동산, 비키리 브로커
Tel: 703-231-5572

매릴랜드, D.C. 임대 주택 면허, 주택검사 대행해 드립니다.
임대주택 관리, 귀중한 재산을 보호해 드립니다.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20년 연속 다이아몬드클럽 멤버
매릴랜드 주택 납성분 검사 인스펙터



애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매릴랜드 / 301-399-0140

문의전화 703.658.1717 / www.hanstravel.com / hanstravelusa@gmail.com / 버지니아 본사 7601 Little River Tnpk., #201 Annandale, VA 22003



캐나다 나이아가라
몬트리올, 퀘벡
 3박4일 5/22(금)-5/25(월)
\$950 마감 임박 **한스** 대형버스
 메모리얼데이

켄터키노아의 방주
 2박3일 5/23(토)-5/25(월)
\$750 마감 임박 **한스** 대형버스
 교회/단체 문의환영
 메모리얼데이

뮤지컬
 6월20일(토)
라이온 킹
 마감! 성원에 감사합니다
한스 대형버스

웨스턴 캐리비안 크루즈
ALLURE OF THE SEAS
 7박8일 2026년 12/13(일)-12/20(일)
보드워 발코니 \$1,930
 워싱턴-마이애미 왕복 항공 포함

1. Nassau-바하마의 수도, 에메랄드빛 바다와 화려한 리조트
 2. Perfect Day at CocoCay-로열캐리비안 전용 프라이빗 아일랜드
 3. Falmouth-자메이카의 전통과 자연을 함께 만날 수 있는 항구 도시

인솔자 동행

2027년 크루즈

1. 이스턴 캐리비안
 11박12일 5/10(일)-5/21(목)
 인사이트 \$1,995 오션뷰 \$2,295
 VA/MD 항구 왕복 트랜스퍼 포함
 인솔자 동행

2. 지중해 그릭 아일랜드 & 몰타
 7박8일 6/19(토)-6/26(토)
 Coming Soon 인솔자 동행

3. 알라스카
 7박8일 8/30(월)-9/6(월)
 Coming Soon 인솔자 동행

6/30까지 \$100 할인 EARLY BIRD SALE

북유럽 4개국 & 발틱 3개국
 북유럽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발틱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13박14일 7/16(목)-7/29(수)
\$6,695 항공불포함 인솔자:재키 조

이스터 아일랜드 & 칠레
 8박9일 9/19(토)-9/27(일)
\$6,590 항공불포함 인솔자:재키 조
 태평양 끝에서 만나는 가장 신비로운 시간

오스트리아 & 체코 음악 역사 기행
 10박11일 10/7(수)-10/17(토)
\$6,595 항공불포함 인솔자:재키 조
 음악의 도시와 아름다운 마을을 따라가는 감동의 여정
스페셜 기획



3명 이상 출발 가능 워싱턴 DC \$100
 당일투어 루레이동굴 \$125

8명 이상 출발 가능 미리 예약하세요!
 뉴욕 1박2일 \$399

캐나다 나이아가라 & 뉴욕 2박3일
 6/4(목) 6/11(목) 출발확정 \$650

미동부 캐나다 5박6일 \$1,350
 나이아가라-토론토-몬트리올-퀘벡-우드버리아울렛-뉴욕
 나이아가라 유람선, 윈월드 전망대, 자유의 여신상 유람선 포함

2026 한스 여행 스케줄
 항공 불포함 (인솔자)

05/18(월)~05/26(화) 동유럽 4개국	마감
05/31(일)-06/11(목) 알프스 파노라마 투어	마감
07/16(목)-07/29(수) 북유럽 4개국 & 발틱 3개국	재키 조
13박14일 \$6,695	
07/16(목)-07/25(토) 북유럽 4개국	재키 조
9박10일 \$5,240(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07/23(목)-07/29(수) 헬싱키 & 발틱 3개국	재키 조
6박7일 \$2,590(헬싱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07/27(월)-08/01(토) 캐나다 록키	마감
08/06(목)-08/12(수) 알라스카 앵커리지호텔 업그레이드	애나 김
6박7일 \$3,090 항공포함	
08/21(금)-08/28(금) 아이슬랜드	재키 조
7박8일 마감임박! \$6,995	
08/15(토)-08/22(토) 그린랜드 7박8일	마감
09/07(월)-09/16(수) 북스페인 & 산티아고 2일 리얼 체험	애나 김
9박10일 \$3,890	
09/17(목)-09/25(일) 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몰도바	세라 정
8박9일 \$3,590	
09/19(토)-09/27(일) 이스터 아일랜드 & 칠레	재키 조
8박9일 \$6,590	
9/27(일)-10/10(토)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3개국	재키 조
13박14일 \$5,390	조앤한
09/28(월)-10/08(목) 서유럽 3개국 프랑스/스위스/이태리	애나 김
10박11일 \$3,590	

10/07(수)-10/17(토) 오스트리아 & 체코 음악 역사 기행	재키 조
10박11일 \$6,595 스페셜 기획!	
10/8(목)-10/17(토) 캐나다&뉴잉글랜드 단풍 크루즈	마감
10/12(월)-10/23(금) 포르투갈 & 스페인	세라 정
11박12일 \$3,790	
10/12(월)-10/24(토) 그리스 & 튀르키예 성지순례	조앤한
12박13일 \$3,490	
10/14(수)-10/24(토) 한국의 맛, 가을 단풍 여행	인솔자
10박11일 \$2,990	
10/26(월)-11/07(토) 그리스 & 튀르키예	조앤한
12박13일 \$3,690	
10/29(목)-11/07(토) 튀르키예	애나 김
9박10일 \$2,980	
10/27(화)-11/7(토) 일본 알프스 투어와 맛여행	재키 조
11박12일 \$5,795	
10/27(화)-10/31(토) 일본 북해도 맛여행	재키 조
4박5일 \$1,950	
10/31(토)-11/7(토) 일본 동경에서 오사카까지	재키 조
7박8일 \$3,950	
11/6(금)-11/19(목) 요르단 & 이집트	데이빗한
13박14일 \$5,890	
11/10(화)-11/19(목) 이집트 & 나일강 크루즈	재키 조
9박10일 \$4,190	
11/18(수)-11/27(금) 파타고니아	재키 조
9박10일 \$7,095	
12/05(토)-12/18(금) 하와이 뉴질랜드 시드니 여행	재키 조
13박14일 \$6,790	

러시모어, 크레이지호스
 록키산맥 국립공원/러시모어/
 베드랜드 국립공원/크레이지 호스
 3박4일 5/22(금), 9/4(금)
\$1,040 항공불포함

엘로스톤 5/8부터 3박4일
\$950 항공 불포함 매주 월, 금 출발

서부4대개년 5박6일
\$990 항공불포함 일요일 출발

미서부 일주 8박9일
\$1,540 항공불포함 일요일 출발

이외에도 다양한 여행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www.hanstravel.com 에서 더 확인하세요. 한스 여행사에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광고상의 가격, 일정, 호텔 등은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토로 인한 가격 오류시 정가를 지불하셔야 하며 상품 예약 후 꼭 권편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상호 뽑아야 기업 유치” “지역 아는 일꾼은 김진태”

집권여당 vs 현직, 강원 민심은
도민들, 강원 경제 회복할 인물 원해
우 “강릉 데이터센터 투자협약의 끝내
김 “2청사 설치한 추진력 알아주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강호축' 철도망 합동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지난 18일 강원도 춘천 강원특별자치도당에서 열린 선대위 발대식 및 공천자 대회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에게 공천장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권여당 프리미엄이나, 현역 지사의 관록이나. 19일 강원 지역 곳곳에서 만난 도민들은 너나 없이 지역 경제 회복을 열망했다. 그러나 강원지사로서 그 책임자가 누구냐에 대한 답은 '대통령이 보낸 사람'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지역 일꾼'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로 팽팽하게 갈렸다.
춘천 풍물시장 상인 민모(57)씨는 “레고랜드 사태 이후 소상공인들이 힘들었다”며 “김진태보단 일하겠다”고 나섰다. 우상호를 뽑겠다”고 했다.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오석조(38)씨는 “우상호가 대통령·정부와 호흡해 강원도의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 청년 유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 기대가 있다”고 했다. 강원대 학생 황세아(19)씨도 “강원도 기업 유치가 부족한데 대통령실 출신 후보가 좀 더 잘할 것 같다”고 했다.
반면에 하지나(23)씨는 “현직의 강

점을 무시 못 한다. 강원도에 오래 머문 김진태 후보에게 마음이 간다”고 했다. 풍물시장 상인 김용엽(80)씨는 “자영업자가 다 죽어가는데 여야가 싸움질만 해 화가 난다”며 “민주당이 서민을 별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서 김진태에게 더 끌린다”고 했다. 박순목(66)씨는 “이번에 우상호를 뽑을까 했는데 민주당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접었다”고 했다.

이날 만난 우상호 후보는 “강원은 보수세가 강하지만, 여당 선호 심리도 강하다. ‘사이 보수’가 결집해도 지지 격차가 유지되는 건 보수 유권자도 우상호가 맡아야 발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반해 김진태 후보는 “바닥 민심을 고려하면 역전이 가능하다”고 했다.
영동권의 핵심 도시인 강릉의 민심도 “마워도 다시 국민의힘에 기회를 주

자”는 보수 결집론과 “부실했던 가뭄 대응을 심판해야 한다”는 보수 책임론이 맞서 있었다. 강릉 중앙시장 상인 홍성자(70)씨는 “윤석열 계엄과 권성동에게 실망했지만, 그만큼 일한 사람도 없다”며 “김진태 본적이 강원인 아니라고 비판하던데 강원 사정은 우상호보다 더 잘 안다”고 했다. 최근 우 후보가 지명을 헛갈려 논란이 일었던 강릉 흥제동에서 만난 김동민(50)씨는 “대

통령이 보냈다는 우상호가 얼마나 잘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김진태보단 낫다”고 했다.
두 후보는 이날 춘천 일대에서 총력전을 펼쳤다. 우 후보는 “5대 기업과 최소 20조~70조원 규모의 강릉 데이터센터 투자 협의를 마쳤다”고 했다. 김 후보는 “취임 1년 만에 영동에 제2청사를 설치한 내 추진력을 알아주실 것”이라고 했다.
여성국·류효림 기자

“정청래·장동혁, 아무것도 하지 말았으면”... 여야 후보들 하소연, 왜

정·장 모두 지지층 결집에만 사활 전문가 “중도 표심이 승패 가를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보름 앞둔 19일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정 대표는 이날 ‘김어준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우리 내부에 안심론·낙관론이 너무 빨리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당원과 지지자들이 호소드린다. 진짜로 이게 선거가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 관세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대구·경북은 많이 어렵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은 해를 만하다. 그런데 어렵다. 서울도 어려워지고 있다”며 지지층의 경각심을 일깨웠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12·3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심판해 달라”고 했다.
장 대표도 연일 강경 메시지를 내놓

으며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걸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첫 통일백서에 ‘평화적 두 국가론’이 명시된 걸 겨냥해 “헌법을 짓밟고, 안보를 무너뜨리고, 평화적 통일마저 포기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했다. 장 대표는 최근 이 대통령에게 ‘대통령’ 호칭도 붙이지 않고 있다. 장 대표는 전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후에 페이스북에 “독재로 가는 대한민국. 그 맨

앞에서 있는 이재명”이라고 적었다.
양당 지도부가 지지층 결집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는 건 지방선거의 특성을 반영한 행동이란 분석이 나온다. 2022년 지방선거 투표율은 50.9%, 2018년 지방선거 투표율은 60.2%였다. 2025년 대선(79.4%)과 2017년 대선(77.2%)은 물론 2024년 총선(67%)이나 2020년 총선(66.2%)에 비해 투표율이 확연히 낮다. 이선우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기 때문

에 지지층을 최대한 투표장을 끌어오기 위해 (두 대표가) 결집 행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러한 지도부에 우려하는 당내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부산시장 선거 캠프 관계자는 “캠프엔 중앙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았으면 하는 정서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수도권 의원도 “장 대표가 전면에서 나설수록 수도권 선거가 특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한영익·김규태 기자

집라인 타고, 번기 뚫고, 뜬금 윗몸일으키기... 후보들 튀어야 산다

격전지·열세 후보들 이색 선거운동 눈길 끌어 지지층 투표 독려 시도
6·3 지방선거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각 지역에선 추격자들의 이색 행동이 눈길을 끌고 있다.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지사 후보는 지난 17일엔 강원도 인제군 내린전에서 ‘진짜를 뽑는 특별한 TWO표(투

표) 껍질을 들고 집라인을 타고, 18일엔 같은 껍질을 목에 걸고 춘천시 한 체육관에서 턱걸이 20개를 했다.
김 후보 측은 “보수층 투표를 독려하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5과전이 벌어진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는 지난 1일 지방선거 ‘D-33일’을 기념해 ‘3분33초’ 플래크를 선보였다.
경북지사 선거에 나선 오중기 민주

당 후보는 지난달 공원의 운동기구에서 윗몸일으키기 등 운동을 하며 “오중기는 에너지”라는 ‘쇼츠(Shorts)’를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다. 오 후보는 같은 달 ‘뿔어뻡’으로 막힌 번기를 뚫으며 “꽉 막힌 경북 경제 오중기가 뚫겠다”는 쇼츠도 제작했다.
삭발과 단식도 선거운동 현장에 등장했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향자 국민

의힘 경기지사 후보는 18일 삼성전자 노사 갈등 해결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울산선대위 공동선대본부장인 서범수(재선·울산 울주) 의원은 같은 날 보수 단일화를 촉구하며 삭발했다.
경기에선 추미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독주 체제가 공고하고, 울산에선 최근 김상욱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와

김중훈 진보당 후보가 ‘진보 단일화’에 합의해 판세가 출렁이고 있다.
이재목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세 후보는 조용한 선거로 실점을 줄이고 열세 후보는 떠들썩한 선거로 상대를 혼드는 게 정석”이라며 “안 그래도 빈약한 정책과 비전이 튀는 행동에 가려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양수민·이찬규 기자

한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20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싱가포르 상·하원장 장관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법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연방지법,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대표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sq.

파산 : 한미는 연방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입니다.
이혼 : 합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일방 이혼, 배우자 실종 이혼
상속 : 유언장, 트러스트, 가디언, 상속 분쟁
소송 : 오버타임, 항소, 계약위반, 부도수표

사무장 김진주
Jinju Kim

이름변경 · 교통사고 · 위임장
아포스티유 · 가족이민 · 추방재판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 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 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컬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혼자 갈 수 없는 길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당신에게 희망의 꽃 한 송이 드립니다.”

● 변호사 임종범 ●

“걱정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도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 사무장 김진주 ●

Hanmi Center for Justice, PLLC (한미 법률사무소) Tel. 703-333-2005 / 301-230-3122
4216 Evergreen Lane, #131, Annandale VA 22003



교통사고 치료 전문

멀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6년 임상경험의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의학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영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성과급 파업’ 뒤엔 노봉법... 노조, 100조 손해나도 책임 안져

성과급도 쟁의 대상으로 활용
불법파업해도 손해 청구는 제한
“성과급 쟁의, 적법성 다툼 여지”

삼성전자 노조를 시작으로 LG유플러스, 카카오, HD현대중공업 등 산업계 전반에서 ‘영업이익 N% 성과급’을 달라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성과급 요구 자체를 노란봉투법의 영향으로 보기 어렵지만, 파업 예고 같은 쟁의행위로 확산하는 배경에 노란봉투법이 자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과거에는 성과급이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경영상 결정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그런데 노란봉투법이 노동쟁의의 범위를 열어버린 만큼 성과급 역시 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노사 교섭 대상은 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의무적 교섭 대상’과 교섭 테이블에는 오를 수 있지만 쟁의행위 대상은 아닌 ‘임의적 교섭 대상’으로 나뉜다. 성과급을 임금이나 근로조건으로 볼지, 아니면 경영상 판단의 영역으로 볼지를 두고 현장에서 의견이 엇갈려 왔다. 전자라면 의무적 교섭 대상에 해당할 수 있지만, 후자라면 임의적 교섭 대상에 가까워 파업 시 정당성을 다툴 여지가 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쟁의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성과급은 물론 경영상 판단과 맞닿아 있는 사안까지 파업(쟁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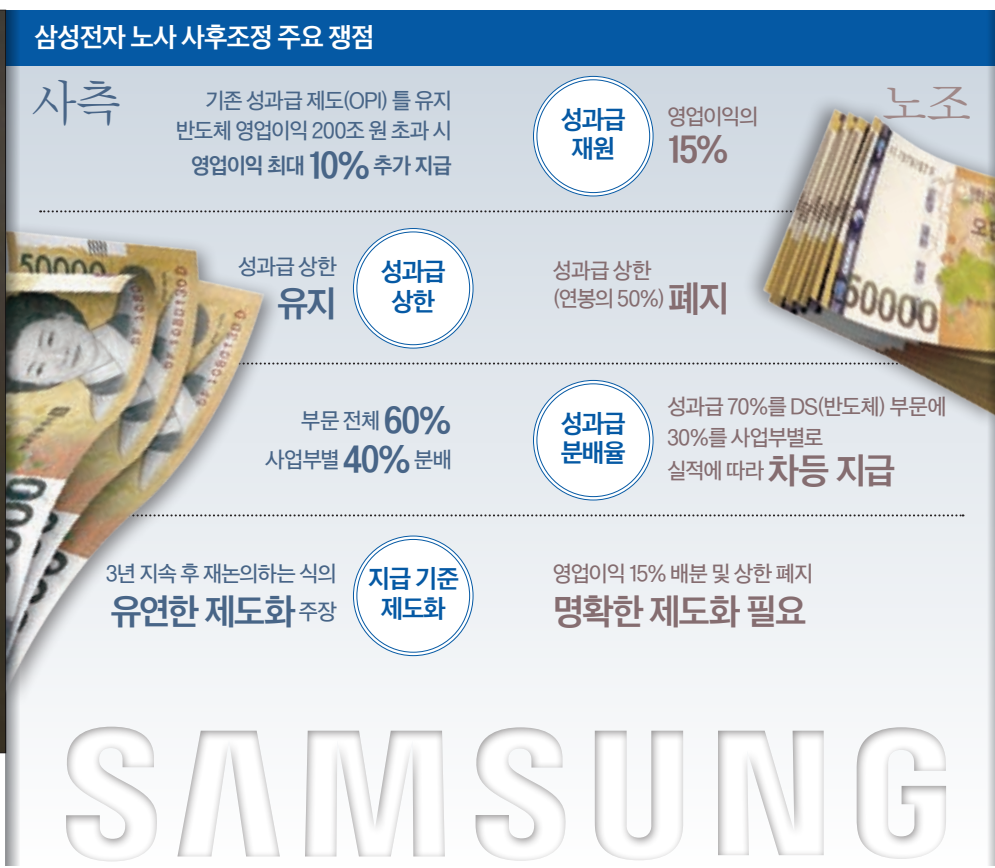
위)이 가능한 사안이 됐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란봉투법 도입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넘어 기업의 초과이익 배분과 경영 판단 영역까지 쟁의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잇따르고 있는 성과급 요구 자체를 노란봉투법의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성과급 요구가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이어질 정도로 격화한 배경에는 노란봉투법의 영향이 적지 않다는 진단이다. 당초 노란봉투법의 취지는 노조법상 사용자의 정의를 넓혀 하청노조가 실질적인 교섭 상대를 찾게 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자는 데 있었다. 그러나 노조법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의 원인으로 추가되면서, 오히려 대기업 노조가 이를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다. 실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회사 측에 ‘노사 공동 경영협의회’ 구성을 요구하고, 신기계·신기술 도입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안을 제안했다. 다만 노란봉투법이 도입되더라도 성과급 자체가 곧바로 쟁의행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권혁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현재 삼성 전자에서 논의되는 영업이익에 연동되는 경영성과급은 순수한 경영상 판단에 가까워 보인다”며 “성과급을 이유로 한 쟁의행위의 적법성은 노란봉투

법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성과급을 주된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가 불법파업이라고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노조가 부담하는 법적·경제적 리스크는 과거보다 크게 준다. 적법한 쟁의행위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뿐더러, 설령 불법파업이더라도 노조원의 생계를 위협하거나 노조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노란봉투법에 담겼기 때문이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단약파업이 불법으로 판단되고 피해 규모가 100조원에 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배상액은 노란봉투법에 따라 훨씬 감액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주 기자



삼성전자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여명구 DS 퍼플팀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노조 삼성전지부위원장(가운데)이 1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쟁점은 성과급 제도화·배분 비중... 삼전 노사, 막판까지 줄다리기

사측 “파업 땀 하루 7087명 근무를 노조 “비조합원 먼저 배치해달라” 사상 첫 총파업을 하루 앞둔 삼성전자가 노사 ‘성과급 제도화’를 두고 이틀째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가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정 이 파업 전까지 최종 담판을 짓기로 하면서, 막판 이견 조율을 통한 극적 타결 가능성도 거론된다. 19일 삼성전자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고 막판 조율에 나섰다.

노사 간 핵심 쟁점은 ‘성과급의 영업이익 일정 비율(N%) 제도화’ 여부다. 노조는 반도체(DS) 부문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연봉의 50%로 묶인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을 폐지해 이를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배분 방식을 둔 시각차도 벌어진다. 노조는 메모리사업부의 이익을 적자 사업부(시스템LSI·파운드리)와 나누는 ‘부문 공통 70%, 사업부 30%’ 안을 제시했다. 사측은 이에 대해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삼성 고유의

성과주의 철학을 흐드는 일이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노사는 연봉의 50% OPI 상한선을 폐지하는 데는 일정 부분 공감대를 이뤘으나, 성과급 재원의 배분 비중과 합의안의 제도화 여부를 두고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삼성전자의 성과급 체계가 향후 실적 악화 국면에서 또 다른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도체 업황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사업부별 성과와 공통 재원 배분을 둘러싼 논

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고정하는 방식이 제도화될 경우, 모든 산업에서 일종의 ‘포물리(공식)’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노조 측에 쟁의 기간에도 하루 7087명의 근로자가 안전·보안 업무에 투입돼야 한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초기노조는 “비조합원을 우선 배치해 조합원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해

달라”며 각을 세웠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직원 보상을 통해 근로의욕이 높아지고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는 기업의 재무자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 경쟁력 확보에 바람직하다”며 투자 여력 감소를 우려했다. 글로벌 고객사 이탈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삼성이 내부 진통으로 주춤한 사이 글로벌 파운드리(위탁생산) 후발주자인 인텔은 18일 최근 첨단 18A(1.8나노) 공정의 수율 개선을 바탕으로 올 하반기 굵직한 외부 고객사 수주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수민·박영우·김연주 기자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정승욱
연방세무사

IRS 감사 세무탐감 전문

김영선
연방세무사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탐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유엔(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뉴욕대(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www.naturadent.net

www.naturadent.net

임플란트 Implant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Emergenc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naturaden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여종업원과 밀착사진 2만원... 이런 카페 고교생도 줄선다

종업원들 노출 옷 입고 고객 접대 고가 술 주문하면 1:1 응대 서비스 음식점 등록돼 미성년도 고용·출입 '관련 고시 바뀌 단속 근거 마련해야'

지난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콘카페(콘셉트와 카페의 합성어). '양키데이' 행사가 진행된 이곳에선 여성 종업원 6명이 찢어진 짧은 상·하의 등 불량 배 콘셉트의 의상을 입고 손님을 맞고 있었다. 30㎡(약 10평) 정도 되는 내부엔 작은 무대와 6개 원형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일한지 4일 됐다는 대학교 1학년 A씨(19)는 "평소에도 화려한 옷을 입고

꾸미는 것을 좋아해 관심을 갖게 됐다"며 "손님은 고등학생부터 20대까지 젊은 층이 많다"고 말했다.

메이드 복장을 한 종업원이 손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거나 '뽀뽀 맛기' 서비스를 판매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메이드 카페'가 각기 다른 콘셉트의 카페로 변형해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마포구에 문을 연 한 콘카페는 고양이 콘셉트로 한다고 홍보한다. 선정적인 의상을 입은 채 고양이 머리띠를 한 종업원의 사진 등이 올라와 있다. 지난해 서울 관악구와 서대문구에 각각 문을 연 카페는 '동물 메이드' '게임 플레이어' 등을 표방하고 있다.



콘카페에서 손님이 고가 샴페인을 주문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올린 SNS 게시물. [사진 SNS]

일부 콘카페에선 더욱 선정적인 영업 행태를 보인다. 고가 샴페인을 주문하면 특정 종업원에게 개별 접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식 등이다. 손님이 1

만~2만원을 내면 선정적인 의상을 입은 종업원과 신체적으로 밀착해 '체키'라고 불리는 플라로이드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

문제는 이들 가게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미성년자도 출입하거나 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마포구의 한 콘카페에서 만난 고교생 김모(16)군은 "SNS를 통해 메이드 카페를 알게 돼 친구들과 몇 번 다니다가, 이제 혼자 다닌다"고 말했다.

지자체에선 이 같은 영업 행태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경우 미성년자 출입·고용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선정적인 영업 방식에 대한 상·행위 등 구체적인 규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단속이 어렵다고 한다. 한기초지자체 관계자는 "한때 논란이 됐던 룸카페는 방이라는 시설을 기준으로 규제했지만, 콘카페는 시설상 일반 카페와 차이가 거의 없다"며 "유형接客 행위가 입증돼야만 단속이 가능한데, 법적 잣대가 엄격해 이를 적용하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허민숙 국회의원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성평등가족부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고시를 신속하게 개정해 단속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오삼권 기자

하루 세 번 사과한 스벅... 결재 4~5단계 거치지만 '5·18 탱크데이' 놓쳤다

평상시 대표이사까지 결재 5·18 관련 단체, 사과 받기 거부

스타벅스코리아(이하 스타벅스)의 '5·18민주화운동 평행'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19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사과문을 통해 "스타벅스코리아가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을 진행했다"며 "그릇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며 "이번 사태 발생 경위와 승인 절차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벅스는 18일 오전 논란이 불거지자 당일 오후 2시 스타벅스 사과문을, 오후 7시 손정현 SCK컴퍼니(스타벅스코리아) 대표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어 19일 오전 9시 정 회장까지 19시간 동안 세 번의 사과문을 냈다.

이번 논란은 텀블러 이벤트로 불거졌다. 스타벅스는 단테·탱크·나수라는 명칭의 텀블러 홍보물을 만들어 이벤트를 진행했다. '한손에 착, 단테데이'(15일), '책상에 탁, 탱크데이'(18일), '가방에 착, 나수데이'(20일) 순서였다. 문제가 된 건 18일 공개된 '책상에 탁, 탱크데이'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탱크 진입과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사살 순례를 위해 치안본부에 '책상에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고 발표했던 내용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 5·18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사과는 했다.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행정적·법적·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19일 오전 김수완 신세계그룹 부사장은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로 찾아 사과하려 했지만, 관련 단체를 만나

지 못했다. 양재혁 5·18유족회장은 "정용진 회장이 직접 와서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이 불매운동을 하니 방문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이벤트는 스타벅스 전략기획본부 산하 기획담당에서 진행했다. 전략기획본부 산하에 전략·기획·마케팅·식음개발담당이 있고 각 담당은 음료팀, 푸드팀, MD팀 같이 별도 팀으로 꾸려졌다. 결재는 대개 '기획자→팀장→기획 담당→전략기획본부장→대표이사'까지 5단계를 거치지만, 이벤트 규모 등에 따라 결재 단계가 축소되기도 한다. 이번 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논란은 불매운동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이날 점심시간 서울 스타벅스 용산점을 찾은 고모(36)씨는 "평소엔 12시만 조금 넘어도 수십명이 대기하는데 이시간에 대기없이 바로 커피를 사보긴 처음"이라고 말했다.

최현주 기자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앞둔 19일 울산시 울주군의 한 주차장에 부산·울산·경남 지역 후보들의 유세 차량이 주차돼 있다. 선거운동은 오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13일간 진행되며, 이 기간에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와 공개 연설, 선거공보 발송, 벽보·현수막 게시 등 공식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활동을 할 수 있다.

9036억 쏟아부었던 체외충격파... 1년 12번만 실손

(한해 진료비)

오는 7월부터 대표적인 과잉 진료 항목으로 꼽혀온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해 실손보험금이 연간 12회까지만 적용될 전망이다. 치료 횟수 상한을 담은 의학적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서다. 기준을 초과하는 치료에 대해서는 환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정형외과학회·대한재활의학회·대한마

취통증의학회·대한신경외과학회 등 4개 학회와 대한의사협회(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과 협의를 거쳐 체외충격파 치료를 최대 주 1회, 연 1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최근 마련했다. 부위별 치료 횟수는 최대 6회로 정했다.

이 기준을 넘어서면 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서 의학적 근거가 있는 범위 내 치료만 보상하면 된다는 기준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어깨 통증으로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는 환자는 어깨에 대해서 6회까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후 허리 등 다른 부위에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더라도 연간 총 보장 횟수가 12회를 넘길 수 없다.

체외충격파 치료는 어깨·팔꿈치·무릎 등에 분당 1000~1500회의 충격파를 가해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인 데다 실손보험과 맞물려 불필요한 치료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연간 진료비 규모가 9036억원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체외충격파·도수치료 등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가격과 치료 횟수를 직접 관리하는 '관리급여' 전환을 검토해왔다. 관리급여로 지정된 도수 치료는 다음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1회당(30분) 가격이 4만~4만3000원 수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가 비급여에 대한 자율 규제안을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체외충격파 치료를 관리급여로 바꾸려 하자 자정안을 만들었다.

복지부는 자율 규제안을 일단 수용하기로 했다. 다음 달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 이를 확정하고,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는 7월부터 함께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채혜선 기자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주소	상태	가격	특징
13343 Connor Dr, Centreville, VA	SALE	\$438K	Stone Gate at Faircrest 콘도 2, 2차, 2차, 1, 3층 터오픈 콘도, 학군(콜린 파월 초등) 좋고, 교통, 생활 편리 NEW
7209 Valleycrest Blvd, Annandale, VA	SALE	\$700K	에너제틱 좋은 위치에 있는 반듯한 명의 집, 생활 가능하나 As-is Condition 으로 매매.
1936 Lord Fairfax Rd, Vienna, VA	SALE	\$1.39M	타이슨스 DMV 근처에 위치한 잘 생긴 싱글하우스, 방 5, 화장 3.5, 현채 탁외교관 \$6,200/월 렌트 (7/31 종료)
6501 Divine St, McLean, VA	SOLD	\$2.79M	셀러가 흡족할 만 조건으로 계약 완료, Seller So Happy 4/14 세팅먼트 완료
6619 Weatherford Ct, McLean, VA	SOLD	\$1.7M	Langley 권에서 제일 좋은 단지 북수 오피 중에서 경쟁 최고 특별, 바이어 So Happy 4/9 세팅먼트 완료
1465 Hampton Hill Cir, McLean, VA	SOLD	\$1.25M	로리가 Hampton of McLean 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현 에이전트라고 소문이 나서 본인 집도 팔아 달라고 연락 음, 4/3 세팅먼트 완료
3883 Billberry Dr, Fairfax, VA	SOLD	\$1.25M	마켓에 나온 주말 바로 계약 완료, 셀러 + 바이어 So Happy 3/17 세팅먼트 완료

갤럭시부동산

★ 최근에 마켓에 올리지 않고 주인 *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렌트 구하는 분도 환영함, 갖고 있는 집도 많음)

주소	기간	세입자
울 거울/내년 봄에 파견 나올 주재원 30여명 있음, 렌트 높을 집 갖고 있는 집주인 환영	4월 - 10월	\$2,000 - \$5,500 가격대 렌트
2233 N Underwood St, Falls Church, VA	6/1 입주가능	\$10,000 2020년에 새로 지은 싱글 홈, Haycock ES - Longfellow MS - McLean HS
5280 Julie Star Dr, Centreville, VA 20120	5/5 입주가능 Coming Soon	\$3,300 교통/생활/학군/안전한 인기있는타운하우스 단지, 방 3, 화장 3.5, Nice Owner
2302 Tanglevale Dr, Vienna, VA	5/1 입주가능	\$4,900 평화로운 동네 싱글하우스, 방 4, 화장 5, 이쁜 정원, Flint Hill ES, Thoreau MS, Madison HS
8370 Greensboro Dr, McLean, VA	6/1 입주예정 PENDING	\$3,400 사랑하는 우리 고민 2년, 마켓에 올리지 않고 바로 연결
1793 Brentidge St, Vienna, VA	5/1 입주예정 PENDING	\$4,800 주재원 3년, 마켓에 올리지 않고 바로 연결
1448 McLean Mews Ct, McLean, VA 22101	4/21 입주예정 RENTED	주재원 3년, 마켓에 올리지 않고 바로 연결
1423 McLean Mews Ct, McLean, VA	RENTED	주재원 (3년)

리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일 년에 80~100여 주재원 렌트 구해 중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김원근 변호사 재판·소송

- 민사·형사·이혼·강제집행·공사관련·세입자분쟁·비즈니스·프랜차이즈 분쟁·세금분쟁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가정폭력·범죄기록말소·임금 연장근로수당·경업금지 소비자 보호법 명예훼손·자동차 교통사고·산재보험·화재보험·자동차 보험·각종 보험사고 기타 각종 재판 및 소송처리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외시·사시 석권한 엘리트 ... 검사·장관 찍고 다시 정치로

The JoongAng Plus

6·3선거 후보 탐구

박민식 부산 북구갑 후보

“막 밀고 들어가면 총격전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2005년 8월 19일 아침. 한 건물의 정문 앞에 승합차와 소형 버스가 집결했다. 탑승자는 검사 8명과 수사관 40여명, 그리고 컴퓨터 분석 전문가들이었다. 그 문의 안쪽은 삼엄했다. 겹겹의 바리케이드와 무장 요원들이 총을 들고 있었다. 얼마나 대치했을까. 문이 열렸다.

그 건물은 국가정보원이었다. 그들이 단행한 건 사상 초유의 국정원 압수 수색이었다. ‘국정원 도청 사건’에 대한 강제 수사의 시작이었다. 수사를 이끈 이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소속이던 박민식(국민의힘 부산 북갑 국회의원 후보) 검사였다. 그들은 곧바로 옛 과학보안국 사무실로 향했다. 한때 도청을 담당했던 조직, 이른바 ‘미립탐’의 흔적이 남아 있을 것으로 지목된 곳이었다.

압수수색은 대성공이었다. 수사의 끝은 자연스럽게 ‘윗선’으로 향했다. 박민식은 전직 국정원장인 임동원과 신건을 구속하는데 성공하면서 세간에 이름 석 자를 뚜렷이 각인시켰다.

검사로서의 절정기에 뜻밖의 시련이 들이닥쳤다. 핵심 조사 대상이던 이수일 전 국정원 2차장이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 박민식은 대검에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만신창이가 됐다. 그는 결국 떠나기로 결심했다.

생각지도 못했던 전화가 걸려온 건 그 무렵이었다. 발신자는 윤석열 검사였다. 같은 ‘특수통’이지만 근무 인연이 없어 특별한 친분이 없던 사이였다. 박민식과 마주 앉은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검사하다가 사표 쓰고 변호사를 해봐서 아는데, 너 같은 검사 체질은 변호사 못해. 돌아가서 일이나 해.”

박민식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고했다.

“이름만 아는 정도로 잘 아는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떨떠름했는데,



■18대 총선을 통해 국회 입성 후 지역 곳곳을 돌며 방역 활동을 하던 박민식 후보(가운데). 20193년 서울지검 형사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을 당시의 박 후보. 3 박 후보는 국회의원 재임 당시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안 처리 등의 공로로 관련 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4 박 후보의 아버지 박순우 육군 중령은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1972년 6월 순국 후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묘비 바로 뒤에 선 이가 어린 시절의 박 후보. [사진 박민식 후보 캠프]

한 시간 정도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달라졌어요. 잘 모르는 후배에게도 진심으로 대하는 그 마음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박민식은 ‘외시·사시’를 차례로 석권한 냉철한 엘리트의 이미지가 강하다. 그러나 사실 그의 유년 시절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가난’과 ‘부산 구포시장’이다. 1965년생은 그는 부산 구포에서 줄곧 성장했다. 부친인 박순우 육군 중령이 맹호부대 정보·통역장교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1972년 6월 전사하면서 그를 비롯한 6남매는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살아야 했다.

구포초·중, 부산사대부고를 졸업한 그는 1984년 서울대 외교학과에 입학했고 1988년 제22회 외무고등고시에 합격했다. 하지만 바로 회의감이 찾아왔다. 도피하듯 군 복무를 하고 돌아왔지만, 방향은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외무부를 떠났고 곧바로 사법시험 준비를 시작했다.

각고의 노력 끝에 그는 1993년 10월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의 혹독한 2년을 지나 통영, 부산, 여주를 거치며 본격적인 검사 생활이 이어졌다. 2004년 ‘유전게이트’ 사건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 범조비리 사건까지 10여 년의 검사 생활 동안 굵직한 사건들을 도맡았다. 그러다가 국정원 도청 사건 수사를 끝으로 검사 옷을 벗었다. 윤 검사의 만류도 그의 결심을 뒤집지는 못했다.

정치는 우연인 듯 운명인 듯 찾아왔다. 변호사 생활을 1년 정도 했을 무렵, 몇몇 지인이 “고향에 출마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했다. 정치는 깊이 고민해본 적이 없는 영역이었지만 결정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는 제18대 총선에 출마했고 승리했다.

하지만 현실 정치는 밖에서 보던 것과 확연히 달랐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았다. 미디어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분회의장 안팎에서 밤샘 대치를 이어가는 등 국회는 전장터의 연속이었다. 그는 그로 인한 자괴감을 밀어내려는 듯 정정보다 분업인 입법에 매진했다. 사회적 영향력이 컸던 그의 법안은 화학적 거세법(성충동약물치료법), 오후 9시 이후 채권추심 금지법, 범죄피해자보호 기금법이었다. 그러나 정치 여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그는 부산 북·강서갑에 네 번 출마해 처음 두 번은 이겼고 이후 두 번은 졌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는 입각했다. 검사 시절 박민식의 사직을 만류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그를 등용했다. 박민식은 국가보훈처장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이 됐다. 부친이 순국용사였던 만큼 안성맞춤인 인사였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을 맹종하지는 않았다. 2023년 여름 박민식은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발신자인 국방부 소속 고위 인사는 다짜고짜 통보하듯 말했다. “육사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을 내일 아침에 독립기념관으로 옮기겠다”는 것이었다. 전화를 걸어온 이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 내의 이념적 강경파들은 이미 방침을 정한 상태였다. 박민식이 그에게 말했다.

“상황을 제대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민심은 그게 아닙니다.”

그의 말마따나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홍상 이전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을 압도하고 있었다. 이와 맞물려 윤석열의 지지율도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박민식은 결국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드문 일이었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은 해당 사안과 연결된 역사적 맥락을 상세히 언급하며 자신의 인식을 설명했다. 다만 홍상 이전 여부에 대한 명확한 지시는 없었다. 그래서 박민식은 통화 말미에 이렇게 정리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국방부와 저에게 맡겨주세요.”

시간이 촉박했다. 그는 즉시 대통령실 안보실과 접촉해 상황의 긴급성을 강조했다.

“내일 아침에 옮기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결국 박민식은 홍상 이전 연기를 관철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 정부 관계자의 말이다.

“정치적 과장을 동반할 메가톤급 사안이었어요. 언론의 집중 조명이 불가피한 시점이었죠. 박민식 장관이 정치인 출신답게 정부 감각이 있어서 겨우 사태를 수습한 겁니다.”

장관직까지 마친 박민식은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정치권의 역학 구도 속에서 한 때 떠나야 했던 고향이다. 그는 지난 5월 6일 부산시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출사표를 던졌다.

“빈손으로 돌아온 저에게 북구 주민들은 ‘고향은 결코 바랄 수 없는 것’이라며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 용서와 환대는 평생의 빛입니다. 빛 갚겠습니다.” 현일훈 기자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NVAR Top Producer
▶ Zillow Premier Agent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비엔나 콘도	스프링필드 타운홈	센터빌 타운홈	클럽턴 싱글홈
\$339,000	\$645,000	\$595,000	\$1,120,000
방1 / 화1+Den, 비엔나 중심 위치 전체마루, 넓은 데크 가스, 물 포함한 저렴한 관리비	방3 / 화2.55 / 차고1 / End Unit 업그레이드 많이 함. 교통 편리한 로케이션	방3 / 화3.5 / 2 Assigned. 지붕, 부엌(2024), P Bath (2026), HVAC 등등	방 4 / 화 3.5. 집 전체 수리 많이한 집

“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1961년생 메디케어 가입 상담 및 신청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어/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헬렌 서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571-225-0110**

독점 Aldie 고급 싱글홈

5,800sq, 40만불 이상 업그레이드한 집, 2024년, 방5, 화5 1/2, 최고급 빌더, Premium Lot, 더블 아일랜드, 최고급 기능 부엌, 특별하게 디자인된 인방 화장실과 Working Closet

\$1,725,000



Sold

독점 Centreville 타운홈

엔드 유닛, 가라지 타운하우스, 집 전체 리모델링, 탁트인 고급 부엌과 새 주방용구, 새 지붕, 새 창문, 새 나무마루, 새 HVAC, 새 페인트, 남향 밝은 DECK과 FENCE

\$500,000



Contract

독점 Woodbridge 타운홈

방4, 화3 1/2, 2021년 지은 새단지, 탁트인 밝고 환한 구조, 나무마루,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고급 부엌 (업그레이드된 Granite Countertop & SS Appliances), 넓은 Deck와 Fence

\$560,000



독점 Annandale 오피스

전체 업그레이드하고 리모델링한 밝고 환한 사무실, 변호사, 부동산, 미장원, 닥터 오피스, 교통편리, 넓은 주차장, 예난데일 중심가

\$280,000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

우리말 바꾸기

아내, 와이프?

1969년 가을, 친구에게 편지를 쓰던 한 남자가 잠시 고민에 빠졌다. 신혼여행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다.

편지 받을 사람은 영국인. 친구에게 자기 부인을 뭐라고 소개해야 할지 적절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처, 부인, 아내, 집사람, 안사람...? 영 내키지 않았다. 맞지 않는 듯 같았다. 고심 끝에 남자는 '와이프'라고 썼다. 그러고는 어쩔 수 없이 '영어'를 빌렸다. 말도 적었다. 물론 한글로 쓴 편지였다.

이제 '와이프'는 조금 더 편한 말이 된 것일까. 국립국어원이 공개한 '국어 사용 실태 조사(어휘)'에 따르면 결혼한 남성은 자신의 여성 배우자를 친구에게 소개할 때 '와이프'를 가장 많이 사용했다. 그다음은 '아내' '집사람'이었다.

결혼한 여성은 '남편'을 가장 많이 썼다. '신랑'이 그다음이었다. 이 조사에서 남성 20대는 66.4%, 30대는 65.6%, 40대는 56.4%가 '와이프'라고 했다. 여성 20대는 59.7%, 30대는 53.2%, 40대는 51.9%가 '남편'이었다. 1997년 당시 문화체육부는 '와이프' 대신 '아내, 안사람, 집사람, 부인, 처' 같은 우리말을 쓰자고 했다. 그렇지만 젊은이들에게 '부인' '처'는 낡아버린 듯 보였다. '아내, 안사람, 집사람'은 어른들처럼 입에 붙지 않았다. '남편'의 반대쪽에 있던 '여편'은 '네'가 붙은 말이 더 쓰이면서 사라져 갔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는 긴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양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양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홍말벗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자 계약 제휴사 한국중양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기자의 눈

소수계 정치 입지 좁힌 연방 대법원 판결



박춘호 시카고 중양일보 기자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매우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루이지애나주의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헌으로 판결한 것이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찬성했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965년 제정된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연방 대법원은 'Louisiana v. Callais'라고 불리는 이번 판결에서 투표권법 제2조의 핵심 내용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즉 루이지애나주가 흑인 유권자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흑인 다수 선거구인 제6선거구를 만든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이다. 주 정부가 선거구를 나눌 때 인종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것은 헌법상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한 불법적인 게리맨더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결과적으로 소수 인종의 투표권을 저해하면 소송이 가능했으나, 이번 판결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주 정부가 차별의도를 가졌음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연방 대법원은 또 주 정부가 인종이 아닌 정당 간 정치적 이득을 위해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헌법적 권한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종적 불균형은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도 함께 내렸다.

결국 소수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이들의 밀집 거주지역을 하나의 지역구로 만드는 일

은 사실상 힘들게 됐다. 반면, 각 정당의 이익에 맞게 선거구를 나눌 수는 있게 됐다. 연방 대법원의 판결 이후 루이지애나주는 연방 하원 예비선거를 중단하고 소수계 대표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선거구를 다시 그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는 루이지애나주만의 문제는 아니다. 인종을 고려해 선거구를 나누려는 다른 주 정부들의 정책도 위헌 주장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일리노이주에서는 독자적인 투표권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번 판결이 있자 일리노이주에서는 지난 2011년 아시아계 여성 최초로 주 의원에 당선된 테레사 마의 사례가 다시 언급되고 있다. 중국계인 마 의원은 팻 전 주지사의 스테프로 일했으며 시카고 한인 사회와도 가까웠다.

마 의원은 2011년 일리노이주가 투표권법에 따라 시카고 다운타운 남부의 차이나타운 지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만들었기에 당선 가능성이 높았다고 밝힌 바 있다. 투표권법의 수혜자였던 셈이다.

당시 일리노이 주의회는 투표권법을 제정했다. 주 차원에서 소수계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각 선거구는 인구수의 평등성뿐만 아니라 특정 인종이 절대다수가 아니더라도 다른 인종 그룹과 연합해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의 인구 비중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이전까지는 4개의 주 하원, 3개의 주 상원, 3개의 연방 하원 선거구로 쪼개져 있던 시카고 차이나타운을 하나의 주 하원 선거구로 만들었다.

이번 판결이 시카고 한인 사회에 끼치는 영향 역시 과소평가할 수 없다. 글렌뷰와 노스브룩 등 대표적인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을 하나로 묶는 선거구 획정이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일리노이 주의회는 연방 대법원의 투표권법 판결로 주 헌법 개정을 유보했다. 당초 주의회는 인종적 요소를 선거구 획정 규칙에 포함하는 내용의 주 헌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연방 대법원 판결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처리를 미룬 것이다. 당장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위헌 소송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일리노이주가 독자적으로 주 투표권법을 제정하고 연방법 이상의 보호 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 놓고 있다. 아무튼 이번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일리노이주는 물론 연방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야침에

보태닉 가든에서 찾은 마음의 안식



최숙희 수필가

미국 이민 후 자영업이라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앞만 보고 달려왔다. 일 년 365일 가게 문을 여닫으며, 은퇴를 기다렸다. 은퇴하면 모든 짐을 벗어 던지고 마냥 행복할 줄 알았다.

하지만 막상 마주한 자유는 뜻밖에도 '매일 무언가 특별하고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한다'라는 또 다른 강박으로 다가왔다. 여행에 대한 갈증을 풀듯 떠난 몇 차례 세계 여행도 그때뿐이었다. 돌아오면 다시 막막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집 근처 '사우스코스트 보태닉가든(South Coast Botanic Garden)'의 연간 회원권을 끊으면서 일상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 마침 남가주 하이킹 트레일에서 방울뱀 사고가 잇따른다는 기사를 읽은 뒤라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기도 했다.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던 이곳이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울창한 숲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황무지 같은 이민 생활을 일구낸 우리네 삶과도 닮아 있어 더욱 정이 갔다.

사우스 코스트 보태닉 가든은 LA 북쪽의 데스칸소 가든이나 헌팅턴 라이브러리처럼 화려하

고 압도적인 규모는 아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소박해서 더 정감이 가는 장미 정원과 강인한 생명력이 느껴지는 선인장 가든, 그리고 마음을 차분히 내려놓게 하는 일본 정원이 있다.

완만한 오르막과 내리막이 적절히 섞인 산책로는 당뇨 때문에 매일 일정 걸음 수를 채워야 하는 내게 더할 나위 없는 운동 코스다. 편안한 운동화에 모자 하나 눌러쓰고 물 한 병 챙겨 가볍게 나설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이다. 나무들과 호흡하고 나무 그늘에 잠시 쉬며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이 좋다.

어느새 벌써 네 번째 방문이다. 입장료를 따져 보면 이미 본전은 뽑은 셈이다. 자주 찾다 보니 그

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계절에 따라 미세하게 변하는 나뭇잎의 색깔과 피고 지는 다양한 꽃들에 시선이 머문다. 이름 모를 새들의 지저귐과 흙냄새가 잠자던 오감을 깨운다. 예전에는 무심히 지나쳤을 길가의 들꽃 한 송이에도 걸음을 멈춘다. 뜻밖의 '자연 공부'를 저절로 하게 되는 셈이다.

산책길 벤치에 새겨진 기부자의 이름 중에서 한인들의 이름을 발견할 때면 반가운 마음이 든다. 낯선 이국땅에서 치열하게 살아내고, 마침내 아름다운 정원의 한 자락을 채운 그들의 삶에 존경심이 생긴다. 언젠가 나도 이곳에 누군가를 위한 의자 하나 남기고 싶다는 소박한 상상도 해 본다.

이제 나는 세계 지도를 펼치는 대신 산책로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본다. 다음번에는 돛자리와 간단한 간식, 그리고 읽다만 책 한 권을 챙겨와야겠다고 마음먹는다. 은퇴 후의 삶은 특별한 '사건'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벗 삼아 숲길을 걷는 '평범한 일상'들로 완성되는 것임을 이 정원에서 배워간다.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Immigation - 영주권/시민권 - E2 비자/투자이민 - 취업/가족초청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종교비자/이민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촌앞 빌딩 3층

1. 센터빌 하이 싱글 \$1,379,000 방5, 화4.5, 차고2, 콘택, 포플라 트리 초등, 최고 학교, 장거리 대중교통, 새 지붕 (2018) 및 HVAC 시스템, 현대적 싱크대/세탁기 교체, 최신 주방 장비 (2024) 인바운딩, 주차장, 수영장, 교외, 주유기, 인바운드 (냉장고, 전자기기, 가구, 테이블, 의자 등) (2018 - 2026) 바닥재 업그레이드 (침실 및 지하 카펫, 지하 침실 LVT 바닥) 2. 현존 콘도 \$579,000 2022년 새 콘도 방2, 화2, 차고1, 새집 같은 컨디션, metro 인근 3. 센터빌 스톤게이트 콘도 \$390,000 방2, 화2, 풀린 파워 초, 센터빌 고, 교통 중심 Coming Soon 4. 케인스빌 골프 싱글 SOLD \$1,060,000 케인스빌 레이커 매나사스 Stonewall Golf Club 내 럭셔리 싱글 5. 빌더 새집 구매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 Sold 1. Haymarket 55+ Villa \$670,000 방3, 화3.5 차고 2 2. 매나사스 2025 새집 \$670,000 방4, 화3.5, 2400sqft, 차고2 3. Bristow 55+ single \$750,000 방4, 화3.5 차고 2 6. 도미니언 밸리 컨트리 클럽, 헤이마켓 싱글 \$1,699,000 1베이크리 숲속, 6,700sqft, 방5, 화5.5, 차고3, 선룸, 고급 조경, 트레이 천장, 스파 욕실, 드레스룸, 인모우 스위트, 미디어룸, 게임룸, 바포움, 최신 HVAC, 정수 시스템 \$460K 업그레이드 7. 알디 싱글 SOLD \$869,000 2004년, 방4, 화2.5, 차고2, 천재마루, 굿컨디션, New Trex deck, New paint, New roof, John Champe High School 8. 알링턴 아이네이비 콘도 \$345,000 방1, 화1, 2000년, 700 sqft, DC 근교 교통요지 Coming Soon

황계실 571-239-6054 고객만족 18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건물·오피스·창고·상가 부동산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CNN은 알고, 한국 미디어는 모르는 것

안혜리의 직격인터뷰

본설위원



을 자극했던 방송사가, 1988년과 달리 2026년엔 스타 진행자를 내세워 “김치를 좋아한다”며 소맥을 마시며 웃는 모습을 노출하도록 그 계기를 끌어냈다는 것만으로도 평가할만하다. 다음은 일문일답.

친 트럼프 인사의 CNN 인수

-파라마운트가 CNN 모기업 워너브라더스디스커버리(WBD) 인수자로 결정됐다.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

“정부 승인이라는 험난한 길이 남긴 했지만, 오라클 창업자 엘런 일가의 스카이댄스가 지난해 CBS 모회사 파라마운트를 인수한 후 흘러나오는 여러 얘기를 들으면 좀 겁이 난다.”

※배경설명이 필요하다. 파라마운트는 지난해 10월 MAGA 진영과 가까운 신생 매체 TFP(The Free Press) 인수 후 창업자 배리 와이슬을 CBS 국장에 임명했다. 트럼프와 갈등을 빚던 시사 프로그램 ‘60분’ 등을 책임지는 자리다. 스타 앵커 앤더슨 쿠퍼(CNN·CBS 겸직) 사임 등 독립성 관련 문제 제기에도 아랑곳없이 WBD 인수 전 와중에 파라마운트가 “(CBS와 같은) CNN의 광범위한 개혁을 약속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트럼프 최측근이자 방송 면허 승인권이 있는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브랜드 카 위원장이 최근 파이낸셜타임즈(FT)와의 인터뷰에서 CNN의 미디어 전문가를 거리낌 없이 마가(MAGA) 진영 안에서 통용되는 멸칭으로 언급할 정도로 CNN과 트럼프 정부는 적대적 관계다. 트럼프는 1기 당선인 시절 첫 기자회견부터 CNN의 정치적 정파성을 문제 삼아 “가짜뉴스, 국민의 적”이라 낙인 찍었고, 2기 때는 “아무도 안 본다”거나 “팔려야 한다”는 악담을 이어갔다.

어려운 이슈도 설명하는 경영진

-경영진은 어떻게 소통하고 있다.

“불안감이 없다면 거짓말일 거다. 하지만 CEO는 물론 최고재무책임자(CFO)까지 수시로 전 세계 직원을 대상으로 글로벌 타운홀 미팅(Zoom)을 열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같은 경영진 노력이 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가끔은 아시아 시각에 맞춰 타운홀을 하는 식의 실질적 소통 노력을 통해 회사의 현재 상황과 향후 방향을 전달한다. 이번 파라마운트와



마크 톰슨 CNN 회장

지난 2023년은 CNN 안팎이 유독 시끄러웠다. CNN 모기업인 워너미디어와 디스커버리와 합병 마무리 직후 부임한 크리스 리히트 회장이 그해 6월 13개월 만에 불명예스럽게 물러나면서 CNN을 둘러싼 비관적 뉴스가 절정을 이뤘다. 바로 이때 구원등판한 게 뉴욕타임스 개혁의 상징 마크 톰슨 최고경영자(CEO)다. 그는 NYT 시절과 마찬가지로 과거의 영광은 뒤로하고 폭스뉴스·MSNBC와의 시청률 경쟁에 밀려 고전하는 CNN을 탈바꿈시키기 위한 미래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NYT식 유료 구독 모델로의 전환을 위한 피쳐(오리지널 시리즈 등) 강화도 그중 하나다.

이를 책임진 이가 한국계 일레이나 리(55·이하 이 총괄) CNN 글로벌 프로덕션 총괄이다. CNN 황금기인 1997년 뉴욕지부 프로듀서로 입사해 30대에 아태 본부장(2006), 그룹 수석부사장(2014)으로 초고속 승진을 거듭한 인물로, 지난해 5월 미국 포함 모든 스폰서 콘텐츠 제작을 위해 신설한 이 조직(글로벌 프로덕션)을 맡았다. 그 첫 시도가 현대차 협찬을 받아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는 K컬처를 집중 조명하는 4부작 오리지널 시리즈 ‘케이 에브리띵(K Everything)’이다. 진행과 공동 총괄 프로듀서까지 겸한 한국계 배우 대니얼 대 김이 최근 지미 팰런 쇼(NBC)나 켈리 클락슨 쇼(NBC) 등 주요 토크쇼에 출연해 소맥을 원샷하고 달팽이 크림을 발라 화제가 된 바로 그 프로그램 말이다.

지난달 10일 홍콩에서 날아온 이 총괄을 서울 한남동의 한 전통 찻집에서 만났다. 그는 CNN 같은 글로벌 채널이 K컬처를 집중 조명하는 프로그램을 내놓은 배경을 한국문화의 급부상 뿐만 아니라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CNN 리더십과도 연결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케이 에브리띵’의 의미, 그리고 한국을 바라보는 미국 미디어 시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가능할 수 있었다. 솔직한 한국인 눈엔 ‘케이 에브리띵’의 아쉬운 면이 꽤 보인다. 다만 88서울올림픽 때만 해도 한국 깃대내리기로 일관해 반미 감정을



경영진, 외부 격변 앞 안 숨고 설명 내부 불안에도 미디어 혁신 지속 유튜브 좋은 일만 하는 듯 해도 시청자 점점 위한 시스템 작동 중

지난달 10일 서울 한남동 찻집에서 일레이나 리 CNN 그룹 글로벌 프로덕션 총괄을 만났다. CNN이 변화에 대응하고자 만든 조직으로, 이번에 ‘케이 에브리띵’을 내놨다. 김경록 기자

의 합병 건처럼 중대 사안에는 WBD 경영진까지 나서 인수합병 이유 등에 대해 뒤로 숨지 않고 명확히 소통한다. 톰슨 부임 후 이런 전 세계 직원 대상 타운홀 미팅이 매년 10회 정도 열리고 있다.

-마크 톰슨의 구독 전환 시도는 잘 진행되고 있다.

“톰슨은 NYT에 앞서 BBC 시절부터 굉장히 혁신적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다만 NYT가 성공하기까지 7년 넘게 걸렸다는 걸 항상 얘기한다. 단기간 이뤄낼 수 있는 전환이 아니라는 거다. 급한 마음에 “너 이거 해야 돼”라는 식의 일방적 지시를 내리는 여느 경영진과 다르다. 비전을 포착할뿐더러 구성원들에게도 그 비전을 아주 명확히 제시한다. 신규 채용 역시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만 뽑는다. (외부에 그가 100명 넘는 인원을 줄인 거로만 알려졌지만)

사람, 특히 기자는 함부로 내보내지 않는다. 전쟁 취재 등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는 돈으로 살 수 없고 쉽게 만들어 지지도 않기 때문이다. 기존의 좋은 기자들이 변하는 트렌드에 맞게 새 역량을 갖추도록 소통과 교육 등 환경을 조성한다. 동시에 과거 우리가 집중해온 TV 뉴스를 넘어 멀티 플랫폼 전략을 짰 후 이를 뒷받침할 콘텐츠와 제대로 맞물려 갈 수 있도록 조직에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기자에게 필요한 새 역량이라니.

“가령 유튜브 등 TV와 다른 플랫폼은 한국 미디어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도전이다. 전 세계 미디어가 유튜브 좋은 일만 시켜주고 있다. 거기서 CNN 브랜드 가치를 인정해 우리의 고품질 콘텐츠를 본 시청자가 정착 우리한테는 오질 않으니 말이다. 그럼에도 우리 유튜브 구독자를 위해 거기 문법에 맞는

콘텐츠를 따로 만들어 올린다. TV용으로 만든 걸 적당히 포맷만 바꿔 올리는 건 비단 그 플랫폼뿐만 아니라 구독자에 대한 무례다. 다른 플랫폼도 마찬가지로. CNN은 진작부터 플랫폼별 문법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즉 기자들이 다양한 플랫폼에 맞춰 제작할 수 있는 멀티 플랫폼 역량을 교육해왔다. 우리 가만히 못 있는 조직이다. 끊임없는 변화 속에 있다. 10년, 15년 전 배운 건 지금 무용지물이라는 걸 안다. 새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끊임 없이 기본도 가르친다. 좋은 기자가 되기 위한 취재 윤리 등 말이다. 가령 우리 아무리 대단한 특종 기사를 가져와도 최소 두 취재원 이상으로부터 확인받기 전에는 내보내지 않는다. 이런 레거시 미디어가 트렌드에 발맞춰 변할 수만 있다면 제일 위협적이지 않을까. 우리 지금 그 여정을 하고 있다.”

시스템으로 업무 공백 막아

-CNN은 세계 각 지역에 본부가 있어 시차가 있는데 소통 문제는 없나.

“전혀 없다. ‘시차 릴레이’ 운영 방식(Follow the sun model)’ 덕분이다. 아시아 동이 트면 내가 미국 팀으로부터 슬랙, 전화, 줌 회의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밤새 벌어진 일에 대해 인수인계받는다. CNN은 경쟁 매체와 달리 전 세계 취재망을 유지하고 있는데, 밖에서 보면 오버 커뮤니케이션(overcommunicate)이라고 할 정도로 24시간 배턴 터치하듯 전 세계가 소통하면서 공백이 없도록 한다. 누구든 아침에 눈을 떠서 밤새 벌어진 일과 무관한 사람한테 전화 걸어 상황 묻는 일 같은 게 벌어질 일이 없다.”

-그런 시스템을 갖춘 건가.

“맞다. 플래닝(Planning) 팀 역할이 그중 하나다. 지금 당장 뉴스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내일부터 미래에 일어나는 일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하고 뭘 취재해야 할지 결정하는 팀이다. 나 같은 매니저먼트(경영)뿐 아니라 유튜브 스페셜리스트 등 플랫폼별 스페셜리스트가 함께 참여한다.

가령 트럼프와 시진핑 만남이 예정되어 있다면, 단순히 만난다는 사실(who, when)을 넘어 어떤 의미인지 분석한 후 플랫폼 스페셜리스트들이 그 플랫폼에 맞는 속도와 문법을 다 고려해 어떤 포맷으로 내보낼지 결정한다. 마·중 회담 같은 사안은 모든 플랫폼을 동원하지만 다른 어떤 스토리는 TV만 내보내기도 한다.”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미국 이민법 전문

성공률 최고

만족도 최고

실력 최고

김응용 변호사

미국 이민

이제 이민법 전문 김응용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시민권 / 영주권

- 가족초청이민
- 취업이민
- 종교이민
- 간호사(RN)
- 투자이민 (EB-5)
- 추방재판

비 이민비자

- 학생비자 (F-1)
- 단기취업비자 (H-1B)
- 투자비자 (E-2)
- 단기취업비자 (H-1B)
- 종교비자 (R)
- 기타 조기 유학상담 및 신분 변경

고객에게 기쁨을 주는 - www.joylawgroup.com

Joy Law Group, PLLC.

(Eng/Kor) (구원행방) (한국어 상담)

703-246-9100 |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 3863 Plaza Drive, Fairfax, VA 22030

뉴욕 오피스

646-256-9156 (Kor) | 212-739-0843 (Eng)

17 State St., Suite 4000 New York, NY 10004

시 설

금리 오르는데 가계빚은 사상 최대... 위험관리 필요하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물가 불안이 커질 것이라 우려 속에 주요국 채권 금리가 급등했다. 미국 국채 30년물 금리는 지난주 5%를 넘어섰다. 일본·영국·독일 등 선진국 채권 금리도 일제히 오르고 있다. 한국 국채 10년물 금리도 4%대 초반이다. 금리가 오르면 일반적으로 안전자산인 국채에 비해 위험자산인 주식의 투자 매력 떨어진다. 지금 증시를 뜨겁게 달구는 인공지능(AI) 관련 투자에 대한 평가도 금리가 계속 오르면 상대적으로 박해질 수 있다. 현재 가치로 할인한 미래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 증시가 흔들린 것도 글로벌 금리 상승과 관련이 깊다. 어제 코스피는 3% 넘게 하락했다.

금리는 오르는데 가계빚은 계속 늘고 있다. 3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이 1993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보다 14조원 늘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는 '영끌'과 대출받아 주식을 사는 '빚투'가 이어지면서 가계빚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증시의 '빚투' 지표인 신용거래용자 잔액은 36조원을 넘어선 사상 최대 수준이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최근 "금리

인하를 멈추고 인상을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며 금리 인상 감빡이를 줬다.

지금처럼 빚이 잔뜩 쌓여 있을 때 금리가 오르면 민생이 겪는 고통은 더 커질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만 올라도 가계의 이자 부담은 3조2000억원 늘어난다.

이제는 경제 주체 모두 글로벌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위험 관리를 해야 한다. 가계는 물론 기업도 자금 관리에 보다 신경써야 한다. 채권 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조달 금리가 비싸진다. 확장재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 표명도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하는 게 맞다. 다른 선진국 국채보다 한국의 국채 금리가 더 빨리 오른 데엔 반도체 경기 호조와 함께 우리 정부의 확장재정 공언도 영향을 미쳤다. 재정 지출로 민생을 돕겠다면서 시중금리를 올려놓으면 무슨 소용인가. 올해 예정된 적자국채 발행액만 110조원이다. 초과세수를 활용해 적자국채 발행이라도 줄이겠다는 메시지가 나오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걱정하는 외부의 시각을 다독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일 셔틀외교, '에너지 안보' 협력 계속 강화하길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어제 경북 안동에서 세 번째 정상회담을 했다.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올해 1월 일본 나라현 회담에 이은 3달 만의 셔틀외교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의 방향을 오가는 만남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평가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시차도 없으니 자주 통화하자"며 차기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두 정상은 셔틀외교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졌다.

양국은 중동 사태로 불안해진 LNG와 원유 공급망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비상시 원유와 석유 제품을 상호 유통하는 협력 체계를 구체화하고, 동남아 공동비축 체제 구축에도 뜻을 모았다. 호르무즈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오랜 난제인 조세이탄광 유해의 DNA 감정 개시 등 인도주의적 첫걸음을 뗀 점도 성과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일 관계는 극심한 반목과 갈등의 늪에 빠져 있었다. '노재팬'과 '죽장가'로 대변되는 감정적 대립 속에 양국 관계는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정상들이 격식을 깨고 자주 만나 소통하자 얼어붙었던 외교 채널이 복원되고 성과로 이어졌다. 마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중과 이어지는 중·러 정상회담으로 북·중·러의 안보 블록화 거세어지는 가운데 한·미·일 안보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도 의미가 있다.

이 같은 협력 관계가 정상 궤도에 안착하려면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두 나라 모두 과거처럼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적 쟁점에 악용해 국민감정을 악화시키는 구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국가 간 약속과 합의는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일관되게 지켜져야 비로소 정상적인 동반자 관계가 유지된다. 두 정상들이 이번에 양국 국민을 울리는 온라인 스텝 범대응 등 개인정보보호 협력을 논의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셔틀 외교의 본령은 결국 양국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형 협력 방안을 만들어내는 데 있다. 국민이 외교의 이익을 직접 체감할 수 있어야 한·일 관계의 뿌리도 비로소 단단해질 수 있다.

다시 86, 다시 그 논리

고정애의
시시각각

時 視 各 角



하나하나를 보며 '과오' '반성' '부족'보단 세(勢)나 자부심이 앞섰다.

실제 권력의 획득·유지·확장 게임에서 86세대는 압도적이다. 머릿수도, 패권 기간도 그렇다. 여러 차례 퇴진론도 이겨냈다. 특히 2019년 조국 사태가 위기였는데 이들은 강하게 맞섰다. 우상호는 "우리가 무슨 자리를 놓고 정치 기득권화돼 있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약간 모욕감 같은 걸 느끼고 있었다"고 했고, 박홍근은 "우리가 당 대표를 했냐, 대통령을 했냐"고 했다.

하지만 우상호의 명단을 보라. 국회의장이 나오려 하고(조정식), 당 대표가 여럿이고(송영길·정청래), 장관은 지천이다. 산업화를 이끈 육사·엘리트관료 연합체를 능가한다. 물론 보수주의 자멸 덕분일 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명은 이들의 철 지난 '민주대 반민주' 주장들 그럴싸해 보이게 했다.

여기에는 이들의 정교한 권력 담합 구조도 있다. 노선이 달라져도 패권 유지엔 유기체 같다. 이번 6·3 선거에도 86

이번 선거서도 확인되는 86 여성
적군·아군 이분법 인식도 여전
보수자멸과 맞물려, 한국엔 불행

세대들이 공천을 했고, 또 공천을 받았다. 우상호가 강원지사로서 나서자 이광재가 양보했고, 그런 이광재를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했다. 대통령 참모에게 밀릴 듯 하니 송영길을 따로 챙겼다. 서로 차이를 미루고, 파이를 키우는 길을 택했다. 놀라운 권력감이다. 대신 새 얼굴은 덜 보인다. 지인 A는 "말 잘 듣는 후배만 쓴다"고 했다.

86들이 반성 속에 진화했다면 새 인물 이 군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 이들의 인식 틀은 그러나 30년 전에 고정된 듯하다. 세계관은 당시와 다를 바 없고, 적(敵)과 아(我)의 대결로 물아가 전자는 절멸하려 들고 후자는 뭐든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정치 행태도 여전하다. 공소취소 특검이 그렇고, 30년 전 주취 폭행을 두고 "5·18에 대한 이견 때문"이라고 농치는 것도, 광화문광장에 6·25 기념물 설치하는 불가하다는 태도도 그렇다. 구린데, 보수의 더한 한심함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중앙일보

구독신청·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ibfe.joongang.co.kr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기사제보 및 기사관련 불만·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사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허경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국 편집국장 김중윤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7100195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사 인쇄(재)제사사 (주)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재)FINANCIAL TIMES 일본(재)매일경제신문, 日本経済新聞 구독료 | 월정 20,000원 | 1부 1,000원

박용석 만평

수렁에 빠지다



parkys@joongang.co.kr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광고비는 쓰는데,
매출은 그대로인가요?"

구글에서 안 보이면, 고객은 오지 않습니다.

- ✓ 구글 검색 & 지도에서 고객이 먼저 찾게 만들고
- ✓ 광고비 낭비 없이 실제 문의와 방문으로 연결하고
- ✓ 매출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흐름을 만듭니다.

intelisystems
Think eMarketing

"2주 안에 새고객과 매출 향상을 경험하십시오!"

지금 연락주세요 - 무료 로컬 마케팅 진단
(서울·목재 한정)

571-506-0220

sales.intelisystems.com/k1



구글 지도 랭킹,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광고, 구글광고 & SEO, 온라인 리뷰관리, 문자마케팅, 소셜미디어, 유튜브 광고, 온라인 쇼핑물, 이메일 마케팅, 웹사이트 제작 www.intelisystems.com



8,000sf의 완벽한 휴식처,
각종행사, 가족,
교회 단체 모임
센터빌에서 40분
전화예약 703-485-5483
(138 Wooded Lane,
Front Royal, VA)

**창문
WINDOW
SPECIAL**

JGL 건설회사

JGL 건설회사는 VA/MD/DC 컨트렉터 클래스 A 라이선스 및
시공 보험에 가입된 전문 건설회사입니다.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실내공사
INTERIOR**

**실외공사
EXTERIOR**

★ 마루 ★
LVP, Hardwood
스페셜 프로모션
1,000sq 이상
\$500 할인

★ 창문 ★
스페셜 프로모션
창문 20개 이상
\$500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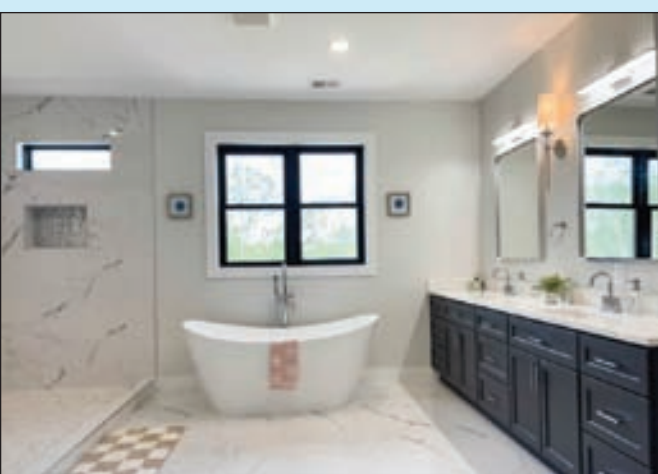
**3개월
할부
무이자**



마루시공
Hardwood, Carpets



주방 리모델링
Cabinet, Sink, Fauc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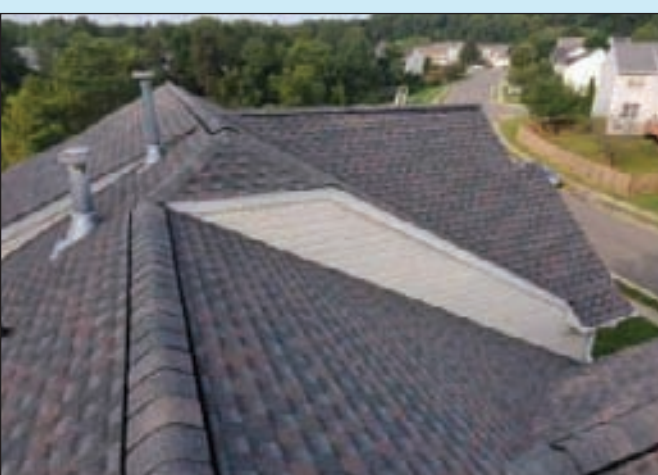
욕실 리모델링
Bathroom, Tile



덱 / 사이딩
Deck / Siding



창문
Windows



지붕
싱글, 플랫폼

강풍 / 우박 피해 지붕 보험 상담 환영

믿을 수 있는 자재 시공과 건설능력으로 당당하게 제공할 수 있는 보증기간!

Exterior 문의 : 703.628.5216 / 703.474.3112
Interior 문의 : 703.559.4213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6년 현재 **30년 이상**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SPECIAL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예촌 앞 빌딩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건강 & 연예/문화 Sports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Wednesday, May 20 2026 C

빙·난방 제로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규모가 큰 신용입니다
LENNOX TRANE Carrier, Lennox 전문딜러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추방재판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95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5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한미 홈헬스)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평평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감당 하실 수 있도록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t. (703)303-4556 / f. (703)303-0988
f. (703)569-0600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우리 곁의 펫지피티

외로운 노인·청년과 교감... 반려 AI 로봇, 말벗 넘어 동반자로

챗GPT 등 연계한 생성형 AI 로봇
응급상황 땀 보호자에 자동 연락도

특별한 관리 없이 즉시 '교감' 장점
정부·지사제, 무상 대여 사업 확산

“자주 부모님을 찾아볼 수 없으니 요즘 인기 있는 인공지능(AI) 로봇 하나 보내드리려 합니다.”

지난 9일 서울 성동구의 한 대형마트.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고르던 직장인 최상민(49)씨가 매장 한쪽에 진열된 AI 로봇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가 찬찬히 들여다본 것은 AI 반려·돌봄 로봇. 챗GPT와 연동돼 한국어와 영어 등으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은 기본. 로봇에 설치된 카메라와 센서로 주인의 표정이나 움직임을 인식하고 상황에 맞게 실시간 대응할 수 있었다. 최씨는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가족에게 즉각 연락해 준다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들었다”며 만족해했다.

최근 고령층을 위한 AI 로봇을 찾는 건 최씨만이 아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홀로 거주하는 박경희(83)씨는 매일 아침을 AI 반려·돌봄 로봇과의 대화로 시작한다. 잠에서 깬 박씨의 움직임을 감지한 로봇이 “잘 잤어요?”라고 아침 인사를 건네고, 조금 뒤엔 “이제 식사할 시간이에요” “약 드셔야 할 때입니다”라며 박씨의 평소 스케줄을 하나씩 체크해 준다. 박씨는 “홀로 지내다 보니 잠에서 깨도 그냥 누워 있거나 끼니를 거를 때가 많았는데 대화 상대가 생기니 한층 활력이 생겼다”며 “사람이 아니

란 걸 알지만, 누군가 말을 걸어준다는 건 나 같은 노인에게겐 너무나 고마운 일”이라고 말했다.

현실로 다가온 AI 로봇 시대. 특히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라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AI 반려·돌봄 로봇이 주목을 모으고 있다. 지난 1월 말 AI 로봇 판매를 시작한 이마트 영등포점 일렉트로마트의 경우 한 달여 만에 170대나 팔려 인기를 실감케 했다. 국내 개인 건강 관리 및 감정 교감 로봇 출하액도 2022년 331억원에서 2024년엔 578억원으로 갈수록 증가 추세다.

독거노인뿐 아니라 홀로 거주하는 2030세대나 어린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부가 정에서도 AI 반려 로봇은 실제 반려동물의 ‘대체제’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특별한 유지·관리 노력 없이도 정서적 교감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AI 반려 로봇의 큰 장점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AI 로봇을 찾는 수요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엇보다 자녀들의 독립과 분가, 배우자와의 사별 등 다양한 이유로 홀로 지내는 고령층이 급격히 늘면서 이들의 반려·돌봄 요구 또한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실제로 2024년 국내 65세 이상 고령자 중 홀로 사는 1인 가구는 228만9000가구에 달한다.

이렇게 홀로 지내는 고령층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는 ‘사회적 고립’이다. 국가데이터저 조사에서도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층의 43.4%가 ‘평소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했고 ‘사회적 관계망이 전혀 없다’는 응답도 4.5%나 됐다. 학계에선 신체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사회적으로도 고립될 경우 고독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돌봄 정책의 강화가 필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문제는 돌봄 인력 부족으로 고령층의 ‘돌봄 공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년 19만 명가량 부족했던 고령층 돌봄 인력이 2042년엔 155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저출산 영향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돌봄 인력을 양성·확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영주 사회국가치연구원 연구기획팀장은 “AI 로봇을 비롯한 AI 기반 케어 테크는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돌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추세 속에서 정부와 기초자치단체들도 고령층 1인 가구를 중심으로 AI 돌봄 로봇을 무상 대여해 주거나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등 AI를 활용한 돌봄 정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17일 ‘AI 복지·돌봄 혁신 로드맵’을 내놓기도 했다. 일부 기업과 지역돌봄센터도 전력·수도나 통신 데이터 등 매일 사용하는 필수 사용량을 AI가 분석해 낙상 사고나 고독사 의심 신호가 발생

할 경우 즉각 구조 신호를 보내는 방식으로 ‘AI 고독사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보다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과 유럽 국가들도 일찌감치 AI 반려·돌봄 로봇을 적극 활용하고 나섰다. 고령화와 함께 ‘은둔 고립 청년’ 증가로 골머리 앓는 일본에선 최근 AI 반려 로봇인 ‘러봇’이 1만8000대 넘게 보급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 돌봄 로봇인 ‘파로’도 일선 요양 시설에 5000대 이상 보급됐다. 스웨덴도 전국 치매 요양시설의 절반 이상에 AI 반려 로봇을 보급했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AI 반려·돌봄 로봇이 치매 환자의 고립감 완화와 고령층의 우울증 해소 등에 도움을 준다고 인정하고 기준을 충족한 AI 로봇을 정식 의료 기기로 승인하고 있다.

이규옥 세종대 교수는 “최근 연구에 따르면 AI 반려·돌봄 로봇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사나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등 돌봄 인력과의 상호 작용이 필수”라며 “인간과 AI 로봇의 역할 분담 방식 등 AI 시대의 새로운 돌봄 체계를 어떻게 갖춰나갈지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황건강 기자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서울아산병원 출신
전문의 진료
나움 메디컬 센터

12600 Fair Lakes Circle, #100
Fairfax, VA 22033 / naumhealth.org
703-994-4511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내 집보다 편안한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사랑과 정, 효를
다하여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443.691.7968

CarePeople Home Health, Inc. Korean

언어와 문화를 배려한 세심한 관리
각 나라별 언어를 배정, 관리하는 차별화된 홈케어

케어피플 홈헬스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서비스 지역
애난데일, 알링턴, 페어팩스, 센터빌, 리치몬드, 뉴포트뉴스, 북버지니아와 남버지니아 / 메릴랜드 지역

간병사가 필요합니다
간병사 찾기

직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찾기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6/8 ~ 6/12 → 전화 예약 필수!

Centreville (Main Office) 14631 Route 29, #401 Centreville, VA 20121	Annandale (사랑방) 4324 Evergreen LN. #D (2FL) Annandale, VA 22003	Annandale (V)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Gaithersburg (MD)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	---	--	--

눈 촬영하는 안저검사, 심혈관 질환 위험도 바로 예측할 수 있어

망막 이미지 AI 분석해 질환 체크 녹내장·황반변성 위험까지 확인

어제와 다른 평온한 아침을 맞이하다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진다. 드라마 속 익숙한 장면이지만, 심혈관 질환의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순간이다. 심혈관 질환은 전 세계 사망원인 1위다. 진행 과정이 잘 드러나지 않아 변화를 제때 인지하기 어렵다. 증상이 없으면 검사의 필요성을 체감하기 힘들고, 막상 확인하려면 비용과 절차 부담이 따른다. 그러다 보니 건강검진에서도 심혈관 검사는 쉽게 선택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은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 눈 속 망막 이미지를 분석해 심혈관 질환 위험도를 예측하는 것. 기존의 번거로운 검사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명쾌한 해답처럼 들렸다. 단 몇 분의 투자로 심장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검사를 마다할 이유가 있을까. 눈을 촬영하는 안저(眼底) 검사를 통해 심혈관 상태를 들여다봤다.

“턱 고정하고, 앞의 초록색 불빛 보세요. 자, 찍습니다.”

지난달 23일 오후 은평연세병원의 안과 검진실. 안저카메라 앞에 앉아 턱과 이마를 장비에 대고 렌즈를 응시했



닥터는 CVD는 간단한 안저 촬영만으로 심장 CT에 준하는 심혈관 질환 위험도를 예측한다.

다. 몇 초 뒤 눈앞에서 짧은 빛이 번쩍이며 섬광이 지나갔다. 검사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간단했다. 일반적인 안과 검사와 다르지 않다. 양쪽 눈을 촬영하는 데 걸린 시간은 1분 남짓. 심장 CT에서 겪어야 할 주삿바늘의 따끔함도, 폐쇄된 기기 안에서 압박감도, 방사선 노출에 대한 찜찜함도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검사 결과지가 출력됐다. 심혈관 위험 점수는 18점, ‘저위험군’에 해당했다. 심장 CT에서 활용되는 관상동맥 석회화지수(CACS) 기

준으로는 0점과 유사한 수준이다. 같은 연령대 대비 상대 위험도는 약 12%로 제시됐다. 현재 상태만 놓고 보면 위험 신호는 크지 않은 범주다. 직관적인 지표로 심혈관 건강 상태를 확인하니 안도감이 컸다.

이쯤에서 궁금증이 생긴다. 눈을 통해 심혈관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는 걸까. 핵심 단서는 ‘망막 혈관’에 있다. 망막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혈관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부위다. 촘촘하게 분포된 미세혈관이 심장·뇌혈관과 구조적으로 비슷하다. 망막 혈관의 굵기나 밀도 등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전신 혈관 상태와 일정한 연관성을 가진다. 망막 혈관이 꼬이거나 미세한 석회가 쌓였다면 심혈관에도 유사한 병변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심혈관 질환은 심장과 주요 동맥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질환이다. 고지혈증,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증이 대표적이다. 검사에 사용된 ‘닥터는 CVD’는 안저카메라로 촬영한 망막 이미지를 기반으로 향후 심혈관 발생 위험도를 평가하는 의료 AI 솔루션이다. 기존 심장 CT나 경동맥 초음파와 달리 검사 시간이 짧고 비용 부담이 적어 접근성이 높다. 검사 준비부터 결과 확인까지 5분이면 충분하다.

은평연세병원 내과 안정수 진료과

장은 “닥터는 CVD는 정밀검사에 앞서 심혈관 질환 위험군을 가려내는 데 가장 유용한 1차 스크리닝 도구”라며 “안저 촬영만으로 심혈관 상태를 가늠할 수 있어 효율적인데, 같은 안저 이미지로 녹내장·당뇨망막병증·황반변성 같은 주요 안과 질환의 위험도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평가 결과는 저위험군, 중등도 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나뉜다. 위험도가 낮게 나오면 당장 정밀검사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 일정 기간(1~2년 정도) 간격을 두고 추적 관찰을 권장한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면 추가적인 혈액검사나 심장 CT, 순환기내과 진료로 이어질 수 있다. 고혈압·당뇨·고지혈증을 동시에 앓는 환자군에서는 고위험군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안저 검사 결과만으로 심혈관 상태를 판단할 수는 없다. 심혈관 질환은 단기간에 급격히 악화하지 않는다.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안 진료과장은 “이 검사는 혈관 상태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도구”라며 “검사 시점에서는 문제없어 보여도 이후 생활 습관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 혈액검사나 환자의 생활 습관, 기존 질환과 함께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경 기자

Tip

망막 AI 심혈관 예측 검사 ‘닥터는 CVD’ 5가지 장점

- 신속성** 촬영부터 결과 확인까지 5분 내외
- 안전성** 입산부 및 고령자도 검사 가능
- 정확성** 심장 CT와 유사한 수준의 예측 성능 입증
- 비용** 수만 원대(비급여 항목), CT 검사 대비 저렴
- 접근성** 내과나 검진센터 등에서 상담 후 처방 가능

전문의 칼럼 이규평 새길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보행 장애 초래 ‘근감소증’ 걷기로 근육 지켜야

50대부터 근육 줄며 전신 쇠약 불러 걸으면 근섬유 자극, 기능 유지 도와

외래 진료실에서 노인 환자의 무릎 X선 사진을 펼치면 관절 간격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다. 대퇴골을 감싸야 할 근육의 그림자가 지나치게 얇다는 것이다. 뼈는 아직 버티고 있는데, 그것을 지탱해야 할 근육이 이미 사라져버린 것이다.

근감소증을 노화에 의한 단순한 부산물로 보면 안 된다. ▶낙상 ▶골절 ▶보행 장애 ▶대사 기능 저하 ▶전신 쇠약으로 이어지는 엄연한 임상적 질환이기 때문이다. 하지 근육 중 가장 두드러지게 약화하는 건 대퇴사두근이다. 50대 이후 근육량은 연간 약 0.5~1%씩 감소한다. 특히 속근섬유의 위축이 두드러져 단면적 기준으로 젊은 성인 대비 최대 29%까지

감소할 수 있다. 이는 순발력과 보행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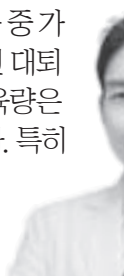
문제는 대퇴근육의 약화가 증상 없이 진행된다. 환자들은 “무릎이 시리다” “계단이 무섭다” “앉았다 일어나기가 힘들다”고 호소하지만, 이미 근력이 상당 부분 소실된 뒤다. 임상에서 ‘일어서서 걷기 검사(TUG)’를 시행하면 예상보다 훨씬 많은 50대 이상이 기준치를 하회한다. 근감소는 대퇴사두근에서 가장 두드러지지만 햄스트링과 고관절 외전근 역시 동시에 약화된다. 이들의 복합적인 기능 저하는 골반 안정성을 무너뜨리고, 하지 운동 시 슬관절의 기능 저하로 이어진다.

걷기는 하지 근육 전체를 동원하는 복합 운동이다. 발뒤꿈치가 닿는 순간부터 발끝이 떠날 때까지 대퇴사두근·햄스트링·대둔근·중둔근·종아리 근육이 순서대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한다. 또한 걷기의 반복적인 하중이 관절 연골을 자극해 활막액 순환을 촉진하고, 연골 건강을 유지시킨다.

근감소 예방에서 ‘무조건 많이’는 정답이 아니다. 관절염이 진행된 환자에게 무제한적인 보행을 권하는 것은 오히려 연골 손상을 가속할 수 있고, 심한 통증을 참으며 걷는 것은 근육을 지키는 게 아니라 상황을 악화시킨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노인에게 주당 150분, 즉 하루 30분·주 5회의 중등도 유산소 운동을 권고한다. 30분의 빠른 걸음은 약 3000보에 해당한다.

이미 근감소가 진행된 경우라면 걷기에 더해 하지 근육을 직접 자극하는 저항 운동을 주 2~3회 꾸준히 병행하면 좋다. 특히 무릎이 아픈 사람은 안장을 높여 실내 자전거 타기, 누운 자세에서 다리 들기(20회 이상), 수영처럼 관절에 무리 없는 동작부터 시작하면 된다. 걷기가 근육을 지킨다면 저항 운동은 근육을 키운다.



이규평 새길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전문의 칼럼 최윤석 서울성모병원 혈액병원 림프종센터 교수

혈액암 림프종, 환자별 맞춤 치료로 완치 기대

CAR-T·이종특이항체 치료제 주목 협진 체계·치료 접근성 개선해야

림프종은 우리 몸의 면역 세포인 림프구가 암으로 변해 발생하는 혈액암이다. 이름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생각보다 흔한 암이다. 국내에서는 매년 약 6000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며 전체 암 발생의 약 2.3%를 차지한다.

림프종은 크게 호지킨 림프종과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나뉜다. 국내 환자의 약 95%가 비호지킨 림프종에 속한다. 비호지킨 림프종은 60가지가 넘는 아형으로 구성된 매우 복잡한 질환군이다. 세포의 종류에 따라 B세포 림프종, T세포 림프종, NK세포 림프종으로 구분하는데, 이 중 B세포 림프종이 약 80%로 가장 많다.

최근 림프종 치료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면역 세포를 활용한 새로운 치료법이 등장하면서 과거에는 치료가 어려웠던 환자에게도 새로운 완치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대표적인 치료가 환자 자신의 면역 세포를 활용하는 CAR-T 세포치료다. 이 치료는 환자의 T세포를 채집해 유전공학적으로 재설계·가공한 뒤 다시 체내에 주입해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만드는 방식이다. 일부 환자에게는 장기 생존이나 완치의 가능성을 보이며 혁신적인 치료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진료 현장에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CAR-T 치료는 환자의 세포를 채집해 제조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치료까지 수주에서 두 달 가까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문제는 림프종, 특히 미란성 거대세포 림프종과 같이 매우 공격적인 성향을 갖는 경우 암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치료를 기다리는 동안 병이 악화하는 경우도 경험하게 된다.

이런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치료로 최근 주목받는 것이 이종특이항체 치료제다.

진료 과목

- 척추질환
- 뇌졸중
- 좌골신경통
- 오십견
- 관절염
- 요통
- 소아과
- 부인과
- 생리불순
- 생리통
- 입덧
- 두통
- 위장질환
- 면역질환
- 한약처방 조제
- 불임치료
- 종풍
- 안면 신경마비
- 비염
- 알러지 질환
- 수술 및 사고 후 통증
- 노인성 변비
- 질환성 비만
- 추나 요법
- 전기침 요법
- 부항 및 운동 처치 요법
- 테이핑 요법
- 한국산 수제 우황청심환



중의학 박사 연태흠 원장

- 상해중의약대학 본과 및 박사 졸업
- 상해 서광의원 정현외과 4년 연수
- 한국 한일한의원 부원장 역임
- 중국 국가급 명의 석사상과 사사

교통사고 보험

- CareFirst
- United Healthcare
- Anthem
- Aetna
- Humana
- Medicare Advantage Plan
- Worker's Compensation Program
- Veterans Affairs
- ※ 보험 플랜에 따라 혜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예약 703.642.6066

웹사이트 hanilacu.com

100년을 이어오는 신실함
한일한의원
7345 Mcwhorter Pl. Suite 101, Annandale, VA 22003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 고려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대학원
- Internship for ProteinOne's Lab at UMCP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Certified in Gonstead System
- Certified in Gonstead Extremity Adjusting
-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Practitioner (C.C.E.P.)
-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F.I.A.M.A.)
-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Neck Pain Clinic in GA
-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 Licensed in Virginia Board of Medicine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이도록 도와드리며,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lovespineclinic@yahoo.com
코리안타운에서 3분, 워버스트로 북대 워튼 센터(Home)에서 10분 거리

센터빌 / 찰들리 클리닉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lovespineclinic@gmail.com
센터빌 북대/한양대(Home)와 찰들리 북대에서 각각 5분거리

하루 일과 중 15분, 나만을 위한 마음챙김 시간을 갖자

윤제연
서울대병원 교육인재개발실 교수

우리의 뇌는 하루의 일상 동안 각종 정보를 처리하고 자신이 경험하는 세상을 해석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도움을 제공하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인지기능의 속도와 방식은 나의 정서 상태와 마음의 에너지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중요한 점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기분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컨대 어떤 날은 유달리 머릿속이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답답하고 아주 단순한 결정조차 내리기 힘들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생각이 너무 빨라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쏟아져 나와 당혹스러운 날도 있을 수 있다.

한 템포 늦춘 삶, 뇌 피로회복 첫걸음
우선 새로운 일에 대한 아이디어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걱정든 간에 생각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여러 갈래로 동시에 진행되는 생각들의 정보를 논리적으로 조직화하기가 어려워지고 마음은 혼란스럽고 갈피를 잡기 어려워진다. 이럴 때 흔히 계획하는 일의 긍정적인 측면에만 집중하게 된다. 대안을 검토하거나 위협을 분석하는 과정 없이 일을 개시하거나 중요한 일에 대한 결정을 선불리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심사숙고하지 않은 감정적 추론에 기반한 충동적 결정은 이후의 생활 스트레스를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

이와 달리, 지치고 무기력하며 매사가 버겁게 느껴지는 마음 상태에서는 마치 배터리 충전량이 얼마 남지 않은 휴대폰과 같이, 평소라면 아주 쉽게 처리했을 일상적인 과제들도 10배는 더 어렵게 느껴지고 버거워지기도 한다. 평소라면 순조롭게 읽을 만한 책의 내용도 잘 안 들어오고 잡생각이 파고들거나 금방 지치거나 하여 한 페이지를 읽는 데도 몇 번씩 다시 읽어야 하는

스스로를 발견하기도 한다. 이는 의지 부족이나 게으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친 마음과 일시적으로 저하된 인지적 효율성일 수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자신의 대처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증가하고 내가 일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실패하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의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여 작은 일상의 과제에 대해서도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거나, 행동의 발동이 걸리지 않고 몸속에 마음이 갇힌 것처럼 답답해지기도 한다.

이럴 때 마음과 행동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첫 번째의 단계는 ‘천천히 하기’이다. 하루 일과 중 15~30분 정도 시간을 마련하여 조용한 음악 듣기, 요가, 명상, 일상의 간단한 활동에 집중하기 등을 매일 규칙적으로 시행하여

일상생활속 '마음 컨디션' 관리 어떻게

음악·요가·명상으로 긴장부터 완화
오늘 할 일 순위 정해 선택과 집중
격정·아이디어는 일단 메모로 표시
과제 종료시간 정해두는 것도 도움

몸과 마음을 이완하고 '지금 여기 내가 하는 움직임'에 집중해 본다. 또한 집 밖에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거나 공공장소를 방문할 때 예기불안(豫期不安)이나 부담감이 너무 크게 느껴지거나 너무 빨리 지치고 기가 빠리는 느낌이 든다면, 해당 일정을 시행하기 전에 앞서 조용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한 후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거나, 활동 참여 시간을 적절히 사전 설정(제한)하여 정서적으로 압도되지 않는 동시에 회피행동이 증가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다.

과부하 걸린 뇌 푸는 4가지 방법

두 번째의 단계는 '하나에 집중하기'이다. 한 번에 한 가지의 작업만 수행하여, 인지 과제 수행의 뇌 부하를 줄여보는 것이다. 오늘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가 높은 일 세 가지를 A 리스트에 적고, 이외에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들을 B 리스트에 적는다. A 리스트의 과제를 완료하기 전에 먼저 B 리스트로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 만약 다른 일에 대한 생각이나 해보면 좋을 일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라 불안해지거나 산만해진다면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 노트'에 일단 적어둔다. 오늘의 과제 수행을 마무리한 후 내일의 생활계획을 세우는 시간에 이 아이디어 노트를 함께 검토하기로 약속하면,

현재 하는 일에 대한 집중을 더 잘 유지할 수 있다.

세 번째의 단계는 '전략적인 일정관리'이다. 즉 복잡한 판단 과정에 체계적인 틀을 부여하여 혼란을 줄이는 것이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내가 고려하는 결정의 장점과 단점을 표로 정리하고, 각 항목의 중요도를 별 3개(매우 중요), 2개(중요), 1개(보통)로 표시해 본다. 이처럼 각 요소들의 중요도를 시각화하면 혼란스러운 마음속에서도 판단 지점을 확인하고, 보다 명료한 판단으로 생활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혼자 하는 일یدن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회적 활동을 하는 일یدن 간에 자극이 과부하되어 통제력을 잃지 않도록 '밤 12시'와 같은 구체적인 과제수행 종료 시간을 미리 정해두고 이를 엄격히 지키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리스트 적힌 계획부터 순서대로 해결

마음의 컨디션 변화에 따라 나의 집중력과 판단력 및 과제수행능력도 함께 변화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방지하면 삶이 지속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 전략을 배우고 일상에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나의 일상생활의 운전능력'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도 있다. 오늘 내가 느끼는 자신감, 에너지, 생각의 속도가 어떠한지 점검해 보자.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게 느껴진다면 잠시 멈춰 서서 나만을 위한 ① 하루 15분 마음챙김 활동으로 숨을 고르고 ② 중요도의 별표 3개를 활용해서 오늘 우선순위 활동 3개의 A 리스트를 정하며 ③ 넘치는 아이디어와 걱정은 아이디어 노트에 적어두고 ④ 과제수행의 종료시간을 정하고 지키기를 오늘부터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러한 작은 구조화가 나의 일상을 보다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자신의 생각에 휩쓸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다.



인터뷰 한승범 고려대 안암병원장

중증 환자 치료는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다. 치료가 얼마나 늦어지느냐에 따라 환자의 예후가 달라진다. 한승범(사진) 고려대 안암병원장은 "규모보다 중요한 병원의 경쟁력은 치료 속도와 구조"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고령화로 늘어날 중증 질환 치료 핵심은 속도와 안전”

-대규모 투자에 나서는 이유는.

“고령화가 심해지면 암과 심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 질환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 의료체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중증 환자는 치료 시점이 늦어질수록 예후가 나빠지기 때문에 빠른 수술과 집중치료가 필요하다. 이번 프로젝

트는 중증 환자 치료를 더욱 신속하게 연계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고난도 환자 치료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병상과 수술실, 중환자 치료 자원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의료자원을 중증 환자 중심으로 재배치하고, 응급·수술·집중치료가 함께 묶이는 구조로 의료체계가 재편되어야 한다.”

-구조 전환 이후 환자가 체감할 변화는.

“치료 속도와 안전성이다. 입원 병상이 늘지 않아도 치료 서비스가 강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수술실 확대와 중환

자 치료 환경 개선으로 수술 대기 시간을 줄이고 응급 중증 환자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여기에 스마트병동 시스템까지 구축되면 환자 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면서 보다 정밀한 치료가 가능해질 것이다.”

-안암병원이 지향하는 모습은 뭔가.

“고난도 수술과 중환자 치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최첨단 치료기관이 되는 것이다.”

신영경 기자

최지호

가정의학 / 노인의학 클리닉

24/7 전화 진료

전문 노인의학 / 일반 진료

- 처방전 관리(당뇨, 고혈압, 고지혈, 갑상선, 위장약, 기억력/치매, Pain Patches(Lidoderm, ZTlido, Flector, Pennsaid)
- 통증치료(체외충격파 / 치료 초음파)
- 치매(기억력) / 우울증 검사
- 상·하 기도 감염, 요로 감염
- Xray / CT / MRI 리퍼럴
- 종합 피 / 소변 검사
- 심전도 검사

건강백세+건강 지킴이 주사 (수액/정맥주사)

- 기력회복
- 면역력 강화
- 항산화
- 머리카락 & 피부 건강
- 뇌 건강(기억력, 집중력)
- 관절통 완화 & 염증 개선
- 심혈관
- 신경 안정

한방 치료 / 치료 마사지 (MD만 가능)

- 한방 치료 Ace Acupuncture 571-438-4644
- 치료 마사지 Healing Hands Massage 703-314-9461

* 메디케어 파트 B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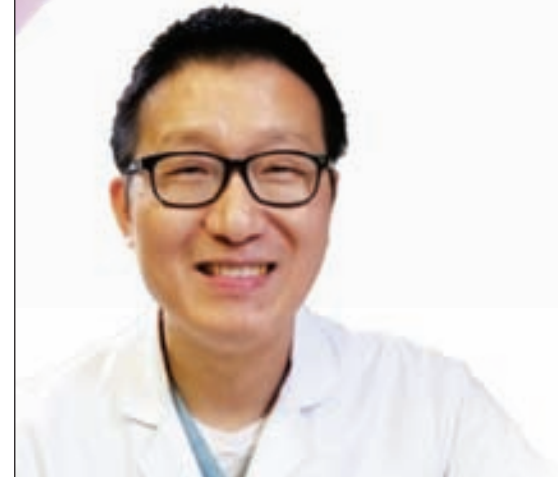
*남자 간호보조원 (MA) 채용합니다.

VA 4216 Evergreen Lane, ste 125
Annandale, VA 22003-3256

진료시간 월 ~ 수, 9am ~ 3pm
토, 9am ~ noon

MD 16051 Comprint Circle,
Gaithersburg, MD 20877-1320

진료시간 목 ~ 금, 9am ~ 3pm
*메릴랜드에서만 치료 마사지와 한방 치료가 가능합니다.



최지호, MD
가정의학/노인의학 전문의

-1995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2006년 플로리다 대학교 가정의학 전문의 수료
-2013년 조지워싱턴 대학교 노인학 펠로우 수료

전화/문자/사진/비디오
240-232-5989
Fax: 703-662-6165
frontdesk@immediatehousecalls.com
immediatehousecalls.com

“시력교정술, 습관까지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원추각막 예방”

시력교정술이 국내에 도입된 지 30여년이 지났다. 의료 기술, 장비의 발전으로 수술은 빠르게 보편화했고, 이제 시력교정술은 안경을 벗고 싶은 이들에게 친숙한 선택지가 됐다.

수술이 대중화되다 보니 큰 고민 없이 결정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연세안과 고일환 원장은 “시력교정술은 눈에 영구적인 변화를 가하는 엄연한 수술”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특히 “평소 생활 습관이나 잠재적 위험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경우, 시력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원추각막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경고했다.

고일환 원장은 시력교정술 부작용·원추각막 치료에 뚜렷한 해답이 없던 시절부터 묵묵히 그 길을 개척해온 전문가다. 특히 원추각막 치료 분야에서 독보적인 임상 경험을 쌓아왔으며, 가장 고난도로 꼽히는 3가지 병용 수술을 국내 최초로 성공하며 원추각막 치료 분야를 선도해 왔다. 서초동 진료실에서 그를 만났다.

원추각막은 어떤 질환인가.

“정상적인 각막은 눈 속 안압을 잘 버티지만, 약해지면 안압에 의해 밀려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둥글었던 각막이 원뿔처럼 뾰족하게 돌출되고 조

각막 두께·모양·위험 요인 다양

눈 비비면 원추각막 생길 수 있어 시력교정술은 수술, 꼼꼼히 따져야

각막 두께·모양·위험 요인 다양 눈 비비면 원추각막 생길 수 있어 시력교정술은 수술, 꼼꼼히 따져야

“수연세안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나.

“개원했을 때부터 지켜온 두 가지 원칙이 있다. 하나는 내 가족에게 내리는 결정과 환자에게 내리는 결정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환자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이다. 사소해보이는 이야기 속에도 환자가 겪는 고통의 원인과 치료 실마리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검안부터 수술, 경과 관찰까지 전 과정을 주치의 한 명이



고일환 원장은 “각막 변형이 있는 경우 수술을 배제하는 선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환자의 눈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충분히 소통해야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원추각막·시력교정술 부작용 치료에 집중해 왔다.

“원추각막은 오랫동안 치료 방법이 많지 않았고, 있어도 까다로웠다. 더 나은 치료법은 없을까 고민하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또한 2000년대 중반부터 시력교정술을 받는 사람이 급격히 늘었지만, 수술 역사가 짧아 관련 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태였다. 환자는 불편을 호소하는데 그 원인조차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누군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들었다.”

고원장이 쉽지 않은 길을 택한 후 전국에서 환자들이 모여들었다. 원인 모를 시력교정술 부작용으로 병원을 전전하던 환자, 원추각막 진단에 막막해 하던 이들이었다. 고원장은 “지방에서 찾아오는 환자가 점차 늘어나 교통 편의성을 고려해 서울 강동구에서 지금의 서초구로 병원을 옮겼고, 이후 뜻을 함께하는 의료진을 영입해 지금의 진료 체계를 갖췄다”고 회상했다.

치료는 어떻게 이뤄지나.

“먼저 각막내림삽입술로 뾰족하게 튀어나온 높이를 낮춘다. 각막 두께가 충분한 경우에 한해 지형도 기반 레이저로 남은 불규칙한 부분을 절삭한다. 링삽입술로 일차적으로 교정한 뒤 절삭하기 때문에 절삭량을 줄여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절삭한 후에는 각막 교차결합술로 굳혀 진행을 막는다. 절삭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링삽입술로 호전된 상태를 유지한 채 굳히기만 한다. 초기에 발견됐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이라면 링삽입술 없이 각막 교차결합술만 시행하기도 한다.”

원추각막 치료는 변형된 각막을 바로잡으면서도 얇아진 각막의 절삭한 계층을 지켜야 하기에 안과 분야에서

도 난도가 높기로 유명하다. 고원장은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여년간 국내외 학회 활동과 강연 및 논문 등을 통해 노하우를 공유하며 각막 질환 치료 수준 향상에 힘쓰고 있다.

또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나.

“각막이 불규칙하게 깎이거나 중심이 벗어난 경우 안경으로 교정되지 않는 불규칙 난시가 생길 수 있다. 건조함, 이물감이 생기기도 한다. 소수이긴 하나 의학 지식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분명히 불편한데 병원에서 별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는 경우도 있다. 이런 환자는 불안감이 커지면 증상이 더 증폭되기 때문에 환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며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부작용,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

“우선 수술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 필요성이 클 때는 작은 불편함이 생겨도 견딜 수 있지만, 가볍게 결정하면 사소한 증상이 크게 느껴질 수 있다. 또한 수술 전 검사 수치는 물론 렌즈 착용 여부와 생활 습관, 이상 증상 여부까지 자세히 살펴야 한다. 수술 전 과교정된 안경·렌즈를 착용하면 굴절도수 측정 시 왜곡된 검사 결과값이 나올 수 있어 적절한 도수의 안경·렌즈를 착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김가영 기자

“중증의료 역량 강화” 고려대 안암병원 1200억원 들여 체질 바꾼다

미래형 진료 환경 조성

중환자실 늘리고 수술 기능 고도화 응급·수술·집중치료 하나로 연결

병원의 경쟁력은 더는 ‘크기’로 설명되지 않는다. 한동안 국내 병원계는 규모를 키우는 것이 성장의 공식처럼 여겨졌다. 병상 수가 병원의 위상과 실력을 보여주는 지표였고, 이른바 ‘빅5’ 경쟁의 기준이기도 했다. 하지만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어 지금 상급종합병원에 요구되는 역할은 달라지고 있다. 중증환자를 얼마나 빠르고 정밀하게 치료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경쟁력이 된다. 이런 배경에서 고려대 안암병원의 행보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고려대 안암병원은 1200억원을 투입해 미래형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급성기·중증 질환 중심의 필수 의료 진료 역량을 고도화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안암병원은 오는 19일 기공

식을 시작으로 약 36개월에 걸쳐 본관 1·2병동 리모델링과 수술부 확장 공사를 추진한다. 총 사업 규모는 리모델링 3402명, 증축 2077명이다.

한승범 고려대 안암병원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병원 운영의 중심축을 중증의료로 재편하는 작업”이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사업에 선도적으로 참여한 안암병원의 중증의료 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중환자 치료 기반’과 ‘고난도 수술 기능’ 강화다. 응급 대응부터 검사·진단, 수술, 중환자 치료, 회복까지 이어지는 중증 환자 중심 진료체계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중증 환자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와 지연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가장 먼저 병동의 기능이 달라진다. 본관 병동 리모델링을 통해 중환자실 32병상과 고위험산모집중치료실 14병



고려대 안암병원은 1200억원을 들여 중환자실과 수술실을 확대해 중증의료 역량을 고도화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사진 고려대 안암병원)

상, 응급병상 5병상이 추가로 확보된다. 감염 대응을 위한 격리병상 19개도 새롭게 마련된다. 이에 따라 중환자실은 총 135병상 규모로 늘어나 고위험산모집중치료실 22병상, 격리병상 34병상, 응급병상은 35병상 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와 함께 뇌졸중집중치료실과 무균병동, 정신건강의학과 병동도 새 단장을 거친다.

한 원장은 “특히 중환자실은 전실 1인실로 운영해 환자 상태를 더 정밀하게 관리하면서 감염 대응 역량을 높일

것”이라며 “의료진 동선과 장비 배치도 최적화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진료 환경을 갖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술 기능도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수술실은 증축을 통해 기존 25실에서 8실 늘어난 33실로 확대된다. 또 병원에는 첨단 영상장비를 갖춘 ‘하이브리드 수술실’이 마련된다. 이곳에선 수술과 시술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한 원장은 “심뇌혈관 질환이나 중증 외상 환자처럼 빠른 판단과 복합 처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하이브리드 수술실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암병원은 로봇 수술 분야에서도 선제적인 투자를 이어왔다. 2007년 국내에서 두 번째로 다빈치 수술 시스템을 도입했고, 2024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최신형 다빈치5를 가동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고난도 수술 경험을 축적하며 중증 질환 치료 역량을 강화해 왔다. 신영경 기자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침·부항·뜸·한약 (치료제, 보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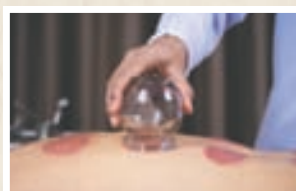
교통사고 전문

진료 과목

- 모든 통증치료 (두통, 편두통, 경부통, 요통, 오십견, 좌골신경통, 관절통, 손목통증, 무릎통증, 근섬유통 등)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전문
- 구안와사 (안면마비)
- 대사증후군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 만성피로
- 소화장애 (위염, 소화불량, 역류성식도염 등), 순환장애, 수족냉증
- 불면증, 우울증, 어지럼증
- 불임, 생리통, 갱년기증상, 전립선질환, 발기부전
- ADHD (과잉행동장애), PTSD (외상후 증후군)
- 수술후 후유증

원장 채여혜

- 북경중의약대학 중의과 졸업
- 중국 국의대사(国医大师)
- 연정화(颜正华) 교수님께 사사
- 상해중의약대학 중의학석사, 박사
- 임상 26년 경험



한국산 공진단 판매

한방에서 처방되는 명방 중에서도 으뜸인 최고의 보약!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703-828-0056

4208 Evergreen Ln, Ste 221, Annandale, VA 22003 홈페이지: WWW.CHAIORIENTALMEDICINE.CLINIC

진료 시간

- 평일: 9am-5pm ● 토요일: 9am-1pm
- 야간진료: 전화 예약환자에 한함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Anthem
- United Healthcare/GEHA
- Innovation Health
- Blue Choice
- Aetna
- CareFirst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교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은퇴 자신감, 작년보다 약해졌다

61%만 편한 은퇴생활 기대
지난해보다 6%포인트 줄어
소셜연금 구조변화 우려 커
메디케어 신뢰 급격히 악화

미국인의 은퇴 자신감이 눈에 띄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여 년 동안 은퇴 자신감을 조사한 비영리 연구기관 근로자복지연구원(EBRI)은 최근 그린왈드리서치와 공동으로 '2026 은퇴 자신감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근로자와 은퇴자 모두 지난해보다 은퇴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 근로자 가운데 "은퇴 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지난해보다 6%포인트 하락한 61%였다. 은퇴자도 5%포인트 감소한 73%로 집계됐다.

최근 1년은 은퇴자들에게 어려운 시기였다. 생활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과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함께 의료비와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노후 생활비 압박이 더 커졌다.

조사에서는 소셜연금과 메디케어에 대한 신뢰 하락도 두드러졌다. 은퇴자의 70%, 근로자의 약 80%는 정부가 은퇴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미래에도 현재와 같은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비율은 근로자의 절반에 불과했다. 은퇴자 역시 약 60%만이 소셜연금과 메디케어가 앞으로 비슷한 가치의 혜택을



올해 은퇴 자신감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과 소셜연금의 불안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제공할 것이라고 답했다. 메디케어 신뢰도 역시 급격히 악화했다. 은퇴자 가운데 메디케어 신뢰도는 지난해 70%에서 올해 62%로 떨어졌다. 올해 메디케어 보험료가 인상됐고 일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보험사들이 보장 범위를 축소하거나 본인 부담금을 올리면서 불안감을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부채는 은퇴를 위협하는 핵심 요인으로 떠올랐다. 근로자의 58%는 부채

가 은퇴 저축이나 은퇴 후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지난해 49%에서 크게 증가했다. 연 3% 수준의 인플레이션도 부담을 키우고 있다. 이는 연방준비제도 목표치를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다. 불과 1년 전보다 은퇴 생활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 EBRI의 크레이그 코플랜드 자산복지 연구 책임자는 조사 결과에 대해 "미국인의 은퇴 자신감은 올해 확연히

약해졌다. 데이터에 이유가 다 들어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가지 압박이 겹치면서 사람들이 은퇴를 안정적이라고 느끼기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은퇴를 늦추거나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려는 움직임도 늘고 있다. 은퇴자의 약 31%는 은퇴 후에도 어느 정도 계속 일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최근 65세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남는 고령층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모든 전망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은퇴자의 47%는 자신의 재정 상태가 좋거나 매우 좋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은퇴가 불안할수록 통제할 수 없는 제도보다 개인 차원의 준비에 집중하라고 강조한다. 401(k) 납입액을 최대치로 늘리고 건강 관리를 꾸준히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 역시 장기적으로 의료비를 줄여 은퇴 안정성을 높인다. 안유희 객원기자

사회보장국 계산 오류 유족연금 덜 지급

안내도 정확히 못 받아
감찰관, 소급 지급 권유

사회보장국(SSA)의 계산 오류로 수천 명이 유족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연방 감찰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장국 직원들이 유족 배우자 8618명의 연금을 잘못 계산해 5000만 달러 이상을 적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손실액은 약 5800달러였다.

감찰 보고서는 또 다른 문제도 발견했다. 수천 명의 유족들이 연금 신청 시점과 방식에 대해 안내를 잘 받지 못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받아 추가로 손해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

문제의 핵심은 '윈덱스(WINDEX)'로 불리는 계산 방식이다. 윈덱스는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는 직업을 가졌던 이가 저소득층으로 오인돼 연금이 높게 책정된 경우 공정하게 이를 낮추는 지수다. 하지만 유족들은 윈덱스로 인한 감액 없이 연금을 받는다.

연방 감찰관은 사회보장국 직원들이 일부 유족연금 신청을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윈덱스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과소 지급 피해는 주로 배우자가 만 62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 집중됐다. 또 자동 처리 시스템이 아닌 수작업 심사가 필요한 사례일수록 오류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찰관은 조사 기간 동안 유족 배우

자의 40% 정도에게 비슷한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감찰 보고서는 사회보장국의 안내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5367명의 유족 배우자가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면 1억4000만 달러 이상의 추가 혜택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은 유족연금을 먼저 받으면서 자신의 은퇴연금 신청을 늦출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조기 신청을 한 이들은 평생 적은 연금을 받게 됐다. 이로 인한 1인당 평균 손실액은 2만1000달러 이상으로 추산됐다.

연방 감찰관은 사회보장국에 피해

를 본 유족 배우자들을 과하게 피해액을 소급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또 사회보장국 직원 교육과 안내 문서를 개선해 수령자들이 가능한 모든 신청 전략과 선택 방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보장국은 조사 결과를 인정하고 시정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손해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사회보장국에 직접 연락해 연금 재심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윈덱스가 제대로 적용됐는지와 신청 전략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오류가 확인되면 적게 지급된 연금에 대해 소급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배우자의 사망

진단서와 혼인증명서, 부부의 소셜번호, 소셜연금 통지서와 신청 기록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식 재심 요청을 제출하고 사회보장국 사무소에 직접 문의하거나 연방 하원의원 지역구 서비스 부서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자동 수정 조치를 기다리기보다는 직접 사회보장국에 연락해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중앙일보
구독 문의
703.281.9660

임마누엘 홈헬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s)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주2회 방문), 마사지체어실, 탁구대, 당구대, 노래방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 의료동행서비스 (병원 예약 및 진료에 동행, 맞춤형 지원)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 즐겁고 활력 넘치는 다양한 액티비티 프로그램 |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288-6677
Email: care@emmanuel.care / www.emmanuel.care

Main Office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D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443-878-6611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105억 '오텔로' 놓고 부산 양분... 세금 낭비 vs 오페라 메카 기회

〈공연 사업비〉

“라스칼라 오프닝은 부산시에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 누구도 절대 손해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정명훈 클래식부산 예술감독의 말이다. 그가 이런 말을 한 건 내년 9월 부산 북항에 개관하는 부산오페라하우스가 때아닌 ‘돈 잔치’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개관 공연으로 오페라의 본산인 이탈리아 라스칼라 극장의 ‘오텔로’ 프로젝션을 105억원에 초청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다.

2008년부터 건립이 추진됐으나 부실 시공 등 20년 가까운 진통을 겪어온 부산오페라하우스는 시작부터 세계적 수준의 제작극장을 목표로 삼았다. 지난해 문연 부산콘서트홀까지 도맡은 정명훈 감독도 여러차례 “부산을 아시아 음악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혀왔다. 이번 사업도 정 감독이 2027년 라스칼라 음악감독 취임을 앞두고 두 극장의 시너지를 도모하며 기획했다. 오는 12월 공연하는 라스칼라 취임 기념 프로젝션을 그대로 부산에 가져와 오페라의 진수를 보여준다는 의도다.

이게 지방선거 일정과 맞물리며 논란이 됐다. 지난달 업무협약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하자 전제수 더블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쟁점으로 불을 붙였다. 전 후보는 “공연 3일에 105억원을 쓰는 행정은 피눈물 흘리는 지역 예술인들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당선 시 집행을 금지하겠다고 예고했다. 사업을 주도해온 부산시장이었던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측은 “빚장을 걸어잡그는 퇴행적 발상”이라고 받아쳤다.

시민사회도 양분됐다. 지난 7일 부산민예총 등으로 구성된 ‘부산시민 혈세낭비 라스칼라 초청 중단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또 다른 부산 문화예술계 인사 30여 명이 각각 상반된 주장으로



2008년부터 건립 추진됐으나 내년 9월 개관을 앞두고 ‘105억 오텔로’ 논란에 휩싸인 부산오페라하우스 조감도. [사진 부산광역시]

해외 스타들이 찾아오는 ‘라이징 마켓’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2024년 200억 원 예산을 들였던 ‘어게인 투란도트’의 연출 공백 사태처럼 해외 인력 이름값에 기대는 프로덕션 수준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지역 예술가들과 상생할 수 있는 부산형 제작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오페라 평론가인 손수연 단국대 교수는 “지역 예술가들도 고생하고 있지만 오페라는 세계 시장에서 성장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면서 “이번 논란은 부산시가 제작극장으로서의 방향성과 조직구성을 명확히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다. 그 입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지역 예술가와 외부 유입 예술가들이 싸움만 하다 동네 대관극장으로 끝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오페라하우스는 2008년 개관한 노르웨이 오슬로 오페라하우스를 만든 건축그룹 스토포헤타가 도시와 바다를 잇는 방식으로 설계했다. 오슬로 오페라하우스는 항구도시를 전 세계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문화예술도시로 탈바꿈시키며 경제적 파급력을 자랑하고 있다. 과연 부산 오페라하우스도 글로벌 허브도시로 가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까.

예술행정 전문가인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은 “홍콩과 상하이에도 오페라하우스를 짓고 있지만 입지나 잠재력 면에서 부산이 훨씬 유리하다”면서 “자랑스러운 최선 공연장을 지어 놓고 정치적 노림수로 싸울 자르는 것은 근시안적이다. ‘105억 오텔로’를 통해 부산과 정명훈, K오페라가 서로를 자산 삼아 시너지를 내는 것이 시대적 소명 이란 얘기다.”

지선으로 불뚱 뿜 부산 문화 랜드마크

내년 개관공연에 라스칼라 극장 초청 여당 반대에 현직 시장 “퇴행적 발상”

“지역 예술인 무시하는 처사” 주장에 “메이저 극장과 협업 필요” 만만찮아

기자회견을 열고, 12일에는 또 다른 시민단체들이 맞불었다. 오페라계에서도 ‘라스칼라 초청이 문화 사대주의’라는 입장과 ‘논란 자체가 밥그릇 싸움’이라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한 음악 평론가는 자신의 SNS에 ‘우리 예술가도 세계적 수준인데 첫 출발부터 라스칼라를 초청하는 건 이 멋진 공간을 운영할만한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고백

하는 격’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사실 서구인들이 문화적 자존심으로 여기는 오페라는 대중문화와는 다른 문법으로 소비된다. 2016년 개관한 두바이 오페라의 경우 개관 공연으로 플라시도 도밍고 콘서트와 이탈리아 트리에스테 베르디 극장의 ‘세비야의 이발사’ ‘아이다’ 프로젝션을 직수입해 ‘중동에서도 유럽 본토의 정통성을 똑같은 퀄리티로 감상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 ‘중동의 클래식 메카’로 급부상했다. 한정호 공연평론가는 “항구를 배경으로 한 오페라극장의 성패는 도시의 개방성과 연결된다. 라스칼라 같은 메이저 극장과의 협업은 단숨에 국제 오페라 시장의 신뢰할 만한 플레이어가 될 기회”라면서 “국제적 이미

지 구축이 관건인 오페라하우스에 지역 예술인 지원 문제가 거론되는 사태는 시민사회가 이 공간을 도시자산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부실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비판 여론은 국공립 오페라 한 편 제작비가 10억~20억원, 부산시 예술인 지원 예산도 연간 97억원에 불과하며 ‘105억 혈세’ 공격에 집중되고 있다. 박민정 클래식부산 대표는 “예산의 50% 이상을 민간 협찬으로 충당하고 매출수익 20억원을 감안하면 시비는 30억원 규모”라며 “부산오페라하우스가 제작극장을 목표로 지어진 만큼 좋은 제작 시스템의 정수를 보여주기 위한 투자”라고 말했다.

최근 국내 오페라계는



정명훈

유주현 기자

장애가 어때서? 장애인들이 유쾌하게 그린 ‘셰익스피어 코미디’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요”

시각장애인이 이런 농담을 한다면 비장애인은 웃어도 될까. 과거엔 대놓고 장애인을 조롱하는 코미디도 흔했지만, 지금은 ‘장애’에 대해 가볍게 이야기할 수 없는 세상이다. 장애인들을 배우로 또는 관객으로 끌어안는 ‘무장애 공연’도 통상 장애 당사자의 고민이나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에 관한 공익

국립극장 신작 연극 ‘당신 좋을 대로’

대표적인 희극 ‘좋으실 대로’ 각색 비장애인 배우들과 신나는 무대

적 담론 중심의 진지한 무대가 대부분이다.

국립극장의 무장애 연극 신작 ‘당신 좋을 대로’(28~31일 국립극장 달오름

극장)은 셰익스피어의 대표 희극 ‘좋으실 대로(As You Like It)’를 각색한 배꼽 빠지는 코미디다. 2021년부터 ‘합체’ ‘공생, 원’ ‘맥베스’ ‘헌치백’ 등 무장애 공연을 꾸준히 제작해 온 국립극장이 최초로 코미디로 스펙트럼을 확장한 것이다.

원작은 형의 구박을 피해 집을 떠난 올랜도가 공작의 딸 로잘린드와 사랑

에 빠지고, 이후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남편을 한 로잘린드를 알아보지 못해 각종 해프닝이 벌어지는 이야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인물들이 만나 사랑에 빠지고 우여곡절 끝에 무려 네 커플이 합동 결혼식을 올리며 이를 통해 사회적 질서의 회복과 화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무대다.

국립극장 버전은 이 이야기를 전하

는 유랑극단 컨셉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섞인 7명의 배우가 20여 명의 등장인물을 멀티로 소화하며 변장과 빠른 역할 전환으로 웃음을 유발해야 하는 고난도 미션이다. 장애 배우 최초로 제 59회 백상예술대상 연극 부문 연기상을 수상한 뇌병변장애 배우 하지성이 올랜도 역을 맡고, 청각장애 부모로 인해 수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장애인 배우가 로잘린드 역을 맡아 열정적인 사랑을 연기한다. 유주현 기자

서울 미극 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 *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 * 임상경력 50년
- * 각종 보험 취급
- * VA, MD, DC 면허 소지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목디스크,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개스, 설염, 부인과 하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신원/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d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6년 over 120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378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l Laser and Surgery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각종 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셀서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월드컵 대표팀 전장으로 북중미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 본진이 18일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차린 사전 캠프로 출국해 마지막 담금질에 나선다. 나머지 멤버들은 추후 미국 캠프로 직접 합류한다. 강정현 기자



신네르 역대 최연소 골든 마스터스 달성

남자 테니스 세계 1위 안니코 신네르(이탈리아·사진)가 대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마스터스 1000등급 9개 대회를 모두 제패하며 '커리어 골든 마스터스'를 달성했다.

신네르는 17일 이탈리아 로마의 포로 이탈리아코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이탈리아오픈 남자 단식 결승에서 카스페르 루드(25위·노르웨이)를 2-0(6-4, 6-4)으로 물리치고 우승했다. 강력한 포핸드 위너로 챔피언십(우승 확정) 포인트를 따낸 그는 뜨겁게 환호하는 1만5000여 관중 앞에서 두 팔을 들어 올리며 포효했다. 이탈리아오픈에서 자국 남자 선수가 단식 정상에 오른 건 지난 1976년 아드리아노 파나타 이후 50년 만이다.

이번 우승과 함께 신네르는 '살아있는 전설' 노바크 조코비치(4위·세르비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커리어 골든 마스터스'를 완성했다. 마스터스 1000은 4대 메이저대회(호주오픈·프랑스오픈·US오픈·윌빙턴) 다음으로 권위가 높은 시리즈다. 순서로는 역대 두 번째지만, 달성 시점은 가장 빨랐다. 30세에 기록을 작성한 조코비치의 기록을 6년이나 앞당겨 24세 9개월에 기록 보유자가 됐다.

신네르는 이번 대회 우승과 함께 상금 100만7165유로(약 117만달러)를 챙겼다. 조코비치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아무나 올 수 없는 특별한 클럽(커리어 골든 마스터스)에 가입한 걸 두 팔 벌려 환영한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올 상반기 코트를 평정하며 거침 없는 행보를 이어가는 신네르의 다음 목표는 오는 23일 개막하는 프랑스 오픈 제패다. 파주영 기자

A조 몸값 전쟁, 한국은 29위

홍명보호 시장가치 1억 6천만불 월드컵 48개국 중 몸값 29위에 팀 내 최고액 3260만불 이상인

11회 연속 본선 무대를 밟는 한국을 포함해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A조 참가국들은 경기력 뿐만 아니라 시장가치로도 치열하게 경쟁한다.

글로벌 축구 이적 전문 사이트 트랜스퍼마켓 집계(18일 기준)에 따르면, 지난 16일 확정된 한국축구대표팀 최종 엔트리 26인의 시장가치 총액은 1억4020만 유로(약 1억 6327만달러)다. 본선 48개국 중 29위에 해당한다. 시장가치는 선수의 현재 기량과 잠재력, 상업적 가치를 종합 반영한 지표로, 최근

활약상과 부상 여부에 따라 실시간 변동한다.

한국 선수 중 최고액 주인공은 플레이메이커 이강인(파리생제르맹)이다. 평가액 2800만 유로(약 3260만달러)로, 한국 선수단 전체의 약 20%에 해당한다. 빅 클럽 파리생제르맹(프랑스)에서 선발과 교체출을 오가며 꾸준히 기대치를 끌어올리고 있다.

독일 분데스리가 최강 바이에른 뮌헨 소속 중앙수비수 김민재가 2500만 유로(약 2911만달러)로 그 다음이다. 3위는 1700만 유로(약 1979만달러)로 평가 받은 손흥민(LAFC)이다. 전성기 시절이던 지난 2020년 토트넘(잉글랜드) 소속으로 9000만 유로에 이르는 천문학적 액수를 기록한 뒤 나이(30대 중반), 미국 이적 등의 이슈가 맞물리며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베식타시(튀르키예)에서 골 폭풍을 몰아친 오현규는 몸값이 2배로 치솟아 1500만 유로를 기록하며 4위에 올랐다. 울버햄프턴(잉글랜드) 공격수 황희찬(30)과 페예노르트(네덜란드) 미드필더 황인범(30)이 나란히 800만 유로로 공동 5위다.

A조에서 '가장 비싼 팀'은 체코다. 총액 1억7680만 유로(약 2억590만달러)로 한국보다 3660만 유로(약 4262만달러)나 높다. 울버햄프턴(잉글랜드)에서 뛰는 주장 겸 주축 수비수 라디슬라프 크레이치가 2200만 유로로 전체 1위다.

공동최고액 멕시코는 7980만 유로(약 9293만달러)로 3위지만, 우선 소집한 국내과 선수들의 시장가치만 반

영한 금액이라 착시에 가깝다. AC밀란(이탈리아) 공격수 산티아고 히메네스, 페네르바체(튀르키예) 수비형 미드필더 에드손 알바레스 등 유럽파 핵심 전력의 추가 합류하면 체코 이상으로 뛰어오를 전망이다.

A조 꼴찌는 선수단 시장가치 총합이 4115만 유로(약 4792만달러)에 불과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그중 1000만 유로(약 1164만달러)가 번리(잉글랜드) 공격수 라일 포스터의 몫이다.

본선 참가국 중 가장 비싼 시장가치가 경쟁력의 척도인 건 맞지만, 결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지난 2018년 러시아 대회 당시 한국은 시장가치 기준 13배가 넘는 독일을 2-0으로 꺾은 바 있다.

박린 기자

손끝 가득 아버지 사랑... 검은 양손장갑의 메이저 챔피언

홍명보 감독, 골 가뭄에 깊은 고민 손흥민·조규성 등 무득점 길어져

23년 전, 영국 울버햄프턴의 한 지역 신문 귀퉁이에 작은 광고가 실렸다. "돈이 없어 골프를 포기해야 할지 모르는 8살 아들을 도와줄 분을 찾습니다."

그 아이가 메이저 챔피언이 됐다. 애런 라이(31·잉글랜드·사진)가 17일 펜실베이니아주 아로니밍크 골프클럽에서 막을 내린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다. 최종 라운드 5언더파 65타, 합계 9언더파로 2위 존 램 등을 3타 차로 따돌렸다. 첫 메이저 타이틀이다.

라이에겐 두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 양손에 낀 검은 장갑, 그리고 아이언마



다 씌워진 헤드커버다. PGA 투어에서 양손 장갑을 끼는 선수는 거의 없고, 프로가 아이언에 커버를 씌우는 일도 드물다.

둘 다 아버지와 관련이 있다. 광고를 본 한 장갑 제조업체가 양손용 검은 장갑을 보내왔다. 라이는 그때부터 양손에 장갑을 끼고 연습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실수로 한 짝만 챙겨왔고, 그날 플레이를 완전히 망쳤다. 양손 장갑은 그렇게 루틴이 됐다.

라이는 "양손 장갑을 벗으면 그림 각이 나빠져서"라고 기술적인 이유를 대곤 했다. 하지만 인조 가죽 검정 장갑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용 가능했고, 선수들이 쓰는 양피 장갑 보다 오

래 쓸 수 있었다. 검정 장갑은 어려운 시절을 잊지 않으려는 그의 의지인지도 모른다. 23년 동안 매일 장갑을 끼고 벗을 때마다, 그는 손끝으로 전해지는 아버지의 지독한 사랑과 헌신을 기억했을 것이다.

라이는 지금도 매 샷 후 직접 아이언 커버를 끼운다. "내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의 겸손과 이로 인한 노력이 그를 메이저 챔피언으로 만든 이유 중 하나였을 것이다.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는 합계 4언더파 공동 7위, 김시우는 1오버파 공동 35위로 대회를 마쳤다. 성호준 골프전문기자

중앙일보 구독 문의 703.281.9660

독자에게 힘이 되어 드리는 신문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김민지 변호사 가정법 (Family Law) 합의를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이혼 후 양육권/양육비/위자료 변경,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영주권/시민권, 결혼 이민, 가족 초청 이민, 각종 비자, 추방 방어, 망명 신청,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11166 Fairfax Blvd, Ste. 406, Fairfax, VA 22030 MD 전화 TEXT: 443.901.8693 1451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kim@prosperlawpllc.com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직장사고

운동사고

교통사고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허리 통증
- 목이 뻣뻣한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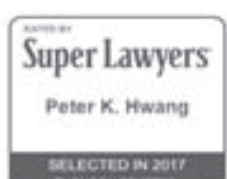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Office Hours by Appointment

교통사고

SHK FIRM
ATTORNEYS-AT-LAW

합동법률사무소



www.shkfirm.com

Toll Free: 888.772.3001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폴 김 변호사
PAUL W. KIM, J.D., MPH.



대니얼 페이 변호사
DANIEL W. PEI, ESQ.

Columbia, MD
Annandale, VA

T. 410.772.2324
T. 703.436.1444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5월
구
인
광
고

귀하의 성공을 돕는 중앙일보

①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g., #310, Annandale, VA 22003

창고 사무실 RENT

사무실 딸린 창고 같이 쓰실분
위치: 매나사스 (센터빌에서 15분)

창고(1700sf)
사무실(800sf)
*사용 가능합니다

(202)515-6746
(월~금: 9am~12pm)
office@ecinvest.net

구인

스파에서 바디 필링하실 여자 직원 구함

유 경험자, 무 경험자도 환영 (트레이닝)

Stafford, VA

(540)368-9699

독자에게 힘이 되어 드리는 신문

①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g., #310, Annandale, VA 22003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WBS 사무직으로 함께 일하실 책임감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경험자 우대, 체계적인 교육과 업계 최고대우 보장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 hr@worldbankcard.net

HYUNS HOMECARE
Senior Services

현스 홈케어와 함께 하실 분을 찾습니다.

- 간호사 (RN, LPN)
- Full or Part Time 가능
- 재택근무

703-507-2492
hyunshomecare@gmail.com

황계실 부동산

고객만족 18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571-239-6054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숲속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옵니다"

한국신사복전문점 **젠틀맨**

- 골프바지/티셔츠/남방/와이셔츠 Buy2 Get1 Free \$100 (단 1장은 \$50)
- 봄·여름 점퍼 \$100
- 봄·여름 콤비 (자켓) \$150
- 춘·하·추·동 신사복 완비

취급 품목 양복/콤비/점퍼/와이셔츠/티셔츠/신사바지/면바지 넥타이/벨트(가죽)/양말/팬티/등산바지/신사구두

한국신사복 알베르토 세리니 571-481-1020
7720 Royston St. Annandale, VA 22003

메디케어
정문기·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브리지원 보험 (BridgeOne Insurance)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

리셉션리스트 구함

- Chantilly, VA 지역
- 이중언어 필수
- 근무시간 조정 가능(플타임)
- 인터뷰 후 급여 조정 가능

703.622.7737
accounting@lbuniversa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6년 5월 20일 수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광고 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메릴랜드

구인/사무/직원모집

함께 세일즈 하실 팀원 구합니다.
-메릴랜드 주정부 LED 교체 프로그램
-메릴랜드 BGE, PEPCO 서비스 지역
-기본적인 영어소통가능자
-Sales Training 제공 및 Transportation 지원 가능
-연 10만불 이상충분히 가능
문의: 410-599-7000

H-Mart Wheaton 매장 직원 모집
모집부서: Customer Service
근무지: 워튼점
배네핏: 401K, 유급 병가/휴가, 보험 등
자격요건: 합법적근무조건소유자
지원방법: <https://www.hmart.com/about-us/careers/job-openings>
문의전화: 301-942-5071

식품 도매 회사에서 직원 구함
-사무직 0명, 배송기사 0명
주 5일 근무, Full time or Part time
Paid time off, Medical insurance 제공
eni@enidist.com
Essex MD (301)477-4010

콜롬비아 복지센터에서 함께 일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RN 간호사, 운전 기사 (옴니 거주 환영)
주방 보조
443-691-7968

BridgeOne Insurance MD
보험 에이전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 경험자 가능
703-598-3316/703-862-5395

H-Mart 메릴랜드 직원 모집
모집부서: 인사, 자산, 영업, 물류
근무지: Upper Marlboro MD
배네핏: 401K, 유급 병가/휴가, 보험 등
자격요건: 합법적근무조건소유자
지원방법: <https://www.hmart.com/about-us/careers/job-openings>
문의전화: 201-554-6047

실버스프링에 위치한 종합보험 에이전트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이중언어 (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 경험자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락빌 롯데플라자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 간병인
-건강보험 및 좋은 조건의 연봉과 배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443-288-6677

기타구인

한식당 해반(HYEBAN)에서 직원 모집
-주방 쿡/헬퍼/웨이츄리스 (숙식제공)
Tel: 443-420-3096

SD Mechanical에서 테크니션 모집
냉장, 냉동쪽 유경험자, 또는 관심 있으신분
서비스 지역 VA, MD, DC
문의: 703-447-4683
E-mail: Sdmeh.office@gmail.com

엘리엇씨티 한식당에서 웨이터/웨이츄리스 (풀/파트타임) 직원 구합니다.
메세지 남기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443-243-8429

메릴랜드 하노버에 위치한 무궁화시니어 의료 복지관에서 직원 구함
-풀타임 운전하실분
-주방 보조
410-850-4059

중고 매매/기타

무빙 세일합니다.
고급 리빙룸 셋, 책장, 도자기, 고급 일본 접시, 노래방 기계, 금고, 병풍등등
301-801-9921

케이 퍼플에서 간병사 교육합니다
기간: 6/08 - 6/12 전화예약 필수
571-297-4747 (VA)
301-966-7000 (MD)

현대 산타페 스포츠 2.0터보 2017년
풀옵션 10만 마일 \$13,000 상태 매우 양호
703-618-7924

싱글/타운/방렌트

메릴랜드 버트스빌 싱글홈 1층 렌트 (콜롬비아에서 15분 거리)
방2, 화1.5, 욕실, 주방, 프리 파킹,
유포 \$1,900
443-983-8100

싱글하우스 베이스먼트 방렌트
Arundel Mills Live Casino 뒷편
프라이빗 부엌, 세탁실, 인터넷, 유포, 쾌적한 환경, 편리한 교통, 금연 필수, 남자분 환영
804-381-1552

메릴랜드 엘리엇시티에서 15분 거리
큰 싱글 지하전체 렌트, 간이 주방, 큰 방, 큰 거실, 큰 욕실, 주차 가능, 유포 \$1,200
703-231-5572

조용/교통 편리한 워튼 도서관, 한아름, 메트로 근처 싱글홈방하나 렌트
아파트식, 뒷문 별도, 인터넷, 직장인 환영
301-655-3248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홈 2층방 렌트
유포, 직장인, 잠만 주무실분 \$700
240-393-3615 (문자요망)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홈 방렌트 합니다.
욕실, 주방, 가구, 인터넷 완비
301-533-1438

메릴랜드 하워드 카운티 반지하 전체 렌트
방2, 부엌, 욕실, 세탁실, 출입문 별도, 롯데에

부동산매매

서 15분 거리
443-797-7293

For Sale by Owner MD Jessup Builders Model
55+ Condo: 4bd 3.5bt, 2 car garage
3,200ft, near 95 & 32 \$545,000
Phone: 443-838-5458
E-mail: vrupen@gmail.com

사업체매매

비어와인 컨비니언 스토어 매매
-월 1만5천수수익
-매매가 15만+ 인벤토리
-메니지먼트 가능
-피터스버그, VA
703-229-9702

버지니아 프레스리츠버그 이발소 매매
-고정 단골 손님 많음
-월세 \$2500, 월 순수익 \$6천이상
-PT 일하실분 구함
703-907-9541 (문자주세요)

40년 성업중인 테일러링샵 매매
은퇴 관계, 좋은 조건, 리치몬드 중심지
703-937-7261

1. 치킨 프랜차이즈, 주매상 4만, Fairfax
2. 타이식당, 주매상 \$1만8천, 대로변, 쿠팡킹, 저렴한 레트, Fairfax co, VA
3. 치킨 식당, 주매상 \$2만3천, 렌트 \$4,500, VA
4. 일식당, 주매상 \$2만, \$16만
5. 애난데일 식당, '포차'로 운영하기 최적의 장소
DJ Lee 703-303-8003

1. 애난데일 한국식당 4,000sf, \$27만
2. 벨츠빌, 말리, 주 \$만불, 렌트 \$3,300 9년 리스, \$17만
3. 엘리엇 시티 지역 식당 파실분, 바이어 대기중!
4. Tysons 창고 1,800sf \$4,800/Month
5. Alexandria 테권도장 간장자리, 2,750 sf
문의에 703-534-4989

메릴랜드 솔로몬 아일랜드안에 위치한 한식당 매매합니다.
\$300,000, 최적의 위치, 좋은수익, 저렴한 렌트비
804-519-1918

DC 백악관옆 픽업 스토어 매매
저렴한 렌트비, 주 5일, 좋은수익, 은퇴 예정
443-618-8100

1. 주 5일 Deli & Cafe 애난데일 근처 \$60,000/1,400sf/렌트 \$2,900/쿠팡킹
2. 주 5일 Deli & Cafe DC NW \$70,000 렌트 \$4,300/매상 증대 최적장소
3. 대형 식당, 패어팩스 \$250,000 7,000sf/180석/연회 전문/쿠팡킹
4. DC NW 2층 한식당 \$200,000 리퀘 라이센스/퓨전 한식 적합
5. 명품 간장게장 2nd Location 투자자 모집
6. 일식집, GMU 근처 15만불 주매상 1만5천, 넉넉한 파킹

7. DC NW 잘꾸며진 한식/분식 식당 20만
8. DC NW 드라이크리닝 픽업, 주매상 9천, 주 5일, 대로변 위치
DJ Lee 703-303-8003

베데스타 델리 \$170,000 렌트 \$5,791
너무 좋은 자리, 1200 SF, 주매상 \$10,000
703-928-5990

델리샵 (DC) \$150K
DC내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안정된 수입, 투자용
703-625-9909

버지니아

구인/사무/직원모집

Annandale, VA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 경험자도 환영
Benefie 있음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 휴가 등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 acct2014a@gmail.com

첸트리 러브랜드 홈헬스 사무직 직원 구함
-경력 무관
-이중 언어 필수, 풀타임 가능자
-건강보험, 401k, 유급 휴가 제공
문의: 703-657-0944
이력서 이메일: account1@lovehandhomehealth.com

센터빌, 첸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이민법 사무실, I-140 파일, 법률보조원 구함. 타이슨 코너
이력서: admin@eb3recruit.com

현스 홈케어와 함께 하실 분을 찾습니다.
-간호사 (RN, LPN)
- Full or Part Time 가능
- 재택 근무
문의: 703-507-2492
hyunshomecare@gmail.com

WBS에서 사무직으로 함께 일하실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경험자 우대, 체계적인 교육과 업계 최고 대우 보장
문의 : hr@worldbankcard.net

Bristow, VA에 위치한 Commercial Remodeling 회사에서 Project Manager 구함. Auto Cad 경험 필수
703-507-3495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Office Maintenance
Van Driver
은퇴하신분 환영
이력서 제출 bongL@ccdc.edu
www.ccdc.edu

굿피플 USA 사무행정/사업관리 직원모집
비영리 단체 경험자, 한/영 통통자 우대
풀타임 (급여는 경력별 협의)
근무지 McLEAN, VA, 이력서 / 자기소개서 :
info@goodpeopleusa.org

참여행사 미동부 투어 가이드 사무직원 구함
-센터빌 지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info@toptravelusa.com
703-543-2322

우리 아메리카 은행에서 Full Time 텔러를 찾습니다.
근무지: 센터빌 지점
배네핏: 의료보험, 유급휴가, 401K
자격요건: 합법 신분자
이력서: hr@wooriamericabank.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보험회사에서 일하실 풀타임 사무직 직원 구함
Kmw122@gmail.com
703-750-2205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파트타임,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703-309-7885

애난데일 홈케어 매니저/지점장 구함
매니저 유경험자 우대, 영어/한국어 이중언어 우대
문의: 571-389-4415
이력서: hr@yicompany.com

애난데일 회계 사무실 직원 모집
매니저/시니어 어카운턴트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문의: 571-389-4415
이력서: hr@yicompany.com

버지니아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합니다.
다. 이중 언어자 환영
703-259-5617

노인 의학 클리닉에서 남자 간호 보조원 (MA) 채용합니다.
240-232-5989

패어팩스에 위치한 생명보험, 은퇴연금, 비즈니스 세무 절감 플랜까지 전문적으로 상담 해 드리는 보험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생명보험 라이선스 소지자
703-939-2737

CarePeople Home Health RN 구함
이력서: carepeopleinfo@gmail.com

애난데일 회계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이력서: k546272@gmail.com

안과에서 리셉셔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다. 이중언어 가능자
이력서: dceyclinic@yahoo.com

ANNANDALE, VA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 경험자도 환영
Benefit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있으며,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 wjkim0111@gmail.com

BridgeOne Insurance 보험 에이전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 경험자 가능, VA & MD
703-598-3316 / 703-862-5395

애난데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조를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실에서 일한 경력 환영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HYEBAN

한국식 BBQ 구이 전문 한정식

해반에서 직원을 구합니다.

- 주방 쿡 / 헬퍼
- 웨이츄리스
- 숙식 제공

443.420.3096

HyeBan23@gmail.com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7
Ellicott City, MD 21042

매매

40년 성업중인 테일러 샵

- ★ 은퇴관계 매매
- ★ 좋은 조건
- ★ 리치몬드 중심지

703.937.7261

문의: 전화 or 문자

직원 구함

센터빌, 첸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보내실 곳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JJ Watch & Jewelry

www.jjwatchusa.com

페어옥스 몰 안에 있는 JJ Watch & Jewelry Shop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하시면서 기술 배우실 분 환영합니다.

703.691.1993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광고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경우이메일주시기바랍니다.)

2026년 5월 20일 수요일 중앙일보

sjsinh.esq@gmail.com
 리셉서니스트(이중언어 필수)를 모집합니다
 장소: Chantilly, VA 20151
 시간: 조정가능(풀타임)
 급여: 인터뷰 후 조정 가능
 전화문의: 703-622-7737
 Email: accounting@lbuuniversal.com
 홈케어(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hco.com
 ▶571-549-6789
 김서규 공인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 전공
 자나 경력자우대 이력서 보내주세요.
 ▶Resume: skim@skimcpa.com
 보험회사 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
 지역 근무시간 8시-5시(월-금)
 401(K), 초과보형, 유급휴가 \$25.00/hr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경력자 우대
 -오후근무가능하신분
 ▶연락처 703-712-7089
 Fairfax 풀/파트타임 직원 구함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서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서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식당/식품

페어팩스 Sushi Friends Hashi 직원 구함
 니다.
 -서버(영어 필수)
 -스시 헬퍼
 -경험자페이우대
 -풀타임, 파트타임
 703-628-9168 (문자 요망)

애난데일 한식당에서 홀서버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703-712-7417

애난데일 명품 계장에서 함께 일하실 웨이츄
 리스 & 웨이터 구합니다.
 703-398-2226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우대
 매니저: 조성수 점장
 ▶703-573-6300

롯데프라자 스텀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넷서널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주세요. 풀/파트타임
 ▶571-991-4172

기타구인

스파에서 바디 필링 하실분 구함
 -여성분
 -유경험자, 무경험자도 환영
 (트레이닝 가능)
 -스테이프, VA
 문의: 540-368-9699

경험자우대 간병인 구합니다. 영어약간
 시간당 \$25, 타이슨스코너
 202-860-7680

가사도우미 급구-장기 근무 환영
 요리·세탁·청소 등 기본 가사
 오후 12시~7시
 McLean 깨끗한 가정집
 안정적 장기근무 / 대우 좋음
 연락: 703-795-1896

밀워크 캐비넷 공장에서 목수 구합니다.
 델레스 공항 근처 (Dulles, VA)
 -가구 페인트/스테인 경험자
 -가구 제작 헬퍼/ 주니어 목수
 성실하고 취업 결정 사유 없는분
 703-859-2499 (문자/전화)

애견 그루밍 선생님 구함
 알렉산드리아, 레스톤 지역
 givingtree.alison@gmail.com
 ▶문의: 571-660-8182

B3 플러밍에서 함께 일하실분 구함
 메케닉 & 준 메케닉
 ▶703-220-1400

InCourage Martial Arts 에서 태권도 사범
 모집합니다.
 버크, 페어팩스, 애쉬번, 퍼셀빌
 Tony@incouragemartialarts.com
 문의 571-243-7027 (text 가능)

No.1 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센터빌)
 ▶571-591-4455

싱글/타운홈 렌트

센터빌 Faircrest 타운홈 렌트 \$3,200
 방3, 화2.5, 차고2, 콜린 파월초, 마루, 리모
 델링, 핏가능, 66/28/286/29/50
 교통요지
 ▶571-239-6054 (문자)

센터빌 싱글홈 지하 전체 워크아웃, 출입문
 별도, 모두 독립적임, 주방, 세탁 설비 완비,
 울 리모델링, 주차공간 충분, 핏 가능
 571-214-0404

페어팩스 메리필드 지역 타운하우스 렌트
 방4, 화3,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주차2
 \$2,400

571-229-7124 (문자 요망)
 센터빌 타운홈 렌트
 방3, 화2.5, 밝고 환한 편리한타운홈, 업데
 이트한부엌(그레닛 카운터탑, 새냉장고),
 새마루, 새 페인트, 잘수리된 화장실,
 펜스있는 뒷마당, 독점파킹 2개, Visitor 파
 킹다수, 교통편리
 ▶703-477-3114

콘도 렌트

업그레이드된 밝고 환한콘도 \$1,750
 방1, 화1, 새 나무마루, 넓은 리빙룸, 나무가
 보이는 경치, 편리한 1층, 새 페인트, 넓은 새
 발코니, 몰값 & Gas값 포함, 교통 편리
 Falls Church, 애난데일 10분
 ▶703-477-3114

센터빌 콘도 렌트 \$2,000
 방2, 화2, 나무 마루, Granite Counter Top,
 탁트인구조, 업 데이트된 부엌과 화장실,
 넓은 리빙룸, 발코니, 밝고 환한콘도, 롯데 마
 트 근처, 교통 편리
 ▶703-477-3114

비엔나메트로 근처 콘도 렌트 \$2,700
 방2, 화2, 차고1, 수영장, 휘트니스 센터,
 몰값 포함
 571-271-2457

알렉산드리아 콘도 렌트 \$1,750
 방1, 화1, 주차2, 모든 관리비 포함
 703-863-0321

방 렌트

애난데일 예촌앞 타운홈 방렌트
 가구 완비, 취사 가능, 직장인/학생 환영
 703-622-2033

애난데일 시투아웃 방하나 렌트
 가구 완비, 취사 가능, 직장인 여성분 환영
 703-973-8123

게인스빌 싱글홈 베이스먼트 전체 렌트
 워크아웃, 방2, 풀베스, 리모델링된 주방,
 새 세탁기/건조기, 새 페인트, 새 플로어,
 여성분 환영
 703-501-4478

애난데일 INOVA 뒤 타운홈 반 지하 렌트
 방1, 화1, 세탁실, 가구 일체, 유포 \$800
 6월초 입주, 직장인 여성분 환영
 703-350-1986

애난데일 원룸 스타일 방 렌트합니다.
 방안에 샤워실, 키친, 냉장고, 침대, 책상 다
 갖추어져 있고 깨끗합니다. 개인 주차
 571-232-6052

헤이마켓 도미니언 벨리 라센시 골프장안에
 있는 싱글홈 2층 전체 렌트
 방1, 리빙룸, 풀베스, 골프장 회원 가능
 문자로 연락 바랍니다.
 516-242-8466

애난데일 방하나 렌트합니다.
 간단 취사, 유포, 가구 포함
 703-677-1889

센터빌 (New Braddock Road) 타운홈 방하
 나 렌트,
 남자분 환영, 저녁 6시 이후 전화요망
 703-606-0053

애난데일 H마트 근처 타운홈 방하나 렌트
 인터넷, 가구 완비, 간단 취사, 욕실 별도,
 직장인 여성분 환영
 571-230-7121

센터빌 극장 근처타운, 방, 화장실, 마루, 파
 킹, WIFI, 학생/여성분 환영
 571-239-6054 (문자)

애난데일 싱글홈 방렌트,
 495, 노바 & 조지메이슨 6분, 가구 일체,
 인터넷, 금연자, 여자분 환영, 주차 넉넉
 571-205-0903

로튼 싱글홈 워크아웃 지하전체 렌트
 방2, 거실, 부엌, 화, 세, I-95 1마일 거리, 가
 족 환영, 출입문 별도
 703-774-4939

센터빌 H마트 5-10분 거리, 싱글하우스 밝
 고 조용한 뒷층방, 마루, 유포, 교통편리, 여
 자분 환영
 571-345-8879 (문자요망)

애난데일 K마켓 뒤 싱글하우스 방하나 렌트
 주차 넉넉
 703-965-2343

센터빌 H마트 근처 베이스먼트 전체 렌트
 방2, 거실, 욕실, 가구 완비, 유포, 워크아웃
 703-835-0945

애난데일 한강 뒤 방하나 렌트합니다.
 여자분 환영
 571-355-9223

애난데일 H마트 근처 콘도 방1, 화1 렌트
 가구 완비, 간단 취사, 유포, 엘리베이터
 703-989-0103

센터빌 H마트 근처 타운하우스 지하전체 렌
 트, 앤드 유닛, 출입문 별도, 욕실 완비, 유포
 (3시 이후 전화요망, 또는 문자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703-474-5590

스프링필드 조용한 싱글홈 방 렌트,
 가구, 인터넷, 학생 또는 직장인 여성분 환영
 571-286-2439

센터빌 타운홈 작은방 임대 \$700 (유포)
 문의: 301-928-4125

센터빌 타운홈 큰방, 개인욕실 \$1,200
 베이스먼트 전체 \$1400
 571-243-7027 (Text)

실악가든 근처 조용한 싱글홈
 방1, 화1, 출입문 별도
 간단 가구, 취사, 인터넷, 금연자, 즉시 입주
 571-243-6295

로튼 싱글하우스 반 지하전체 렌트
 \$2,000 (유포), 방3, 거실, 주방, 출입문 별도
 즉시 입주 가능
 571-488-5860

스프링필드 싱글하우스 1층 큰방 렌트,
 가족같이 지내실 여자분 환영
 703-517-9108

사무실/점포 렌트

창고/사무실 렌트
 매나사스에 있는 사무실 딸린 창고 같이 쓰실
 분, 센터빌에서 15분 거리

창고 1700sf, 사무실 800sf 사용 가능
 전화: 202-515-6746

애난데일 에버그린 오피스 사무실 렌트
 월 \$500
 문의: 703-677-1889

워싱턴 DC 중심가가게 임대
 \$4,000/월
 그로서리, 컨비니언스 스토어, 커피숍
 문의: 703-231-5572

매나사스 코스코 근처 일반 오피스
 또는 병원, 한의원도 가능, 즉시 입주 가능,
 390sf, \$24/sf/yr, 3-10년
 연락처: windmill7000@gmail.com

센터빌 던킨 도넛 뒤 오피스 렌트
 1층, 1250sf, 주차다수, 즉시 입주 가능
 703-861-9923

애난데일 오피스 전체 렌트
 나무 마루, Newer Windows, 계단 없는 1층
 위치, 새로 단장한 화장실, 넓은 주차장, 교통
 편리 \$2,000 즉시 입주
 ▶703-477-3114

애난데일 (자이언트 근처) 오피스 렌트
 룸 4개, 화장실, 주차다수
 301-741-6567

센터빌 던킨뒤 환한 오피스콘도 렌트
 \$1,900, 1,200sqft,
 룸3개, 화1, 오픈 스페이스, 파킹다수,
 RT29/66/28/286
 ▶571-239-6054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

애난데일 오피스 매매 \$280,000
 전체 업그레이드하고 리모델링한 밝고 환한
 사무실, 변호사, 부동산, 미장원, 닥터 오피
 스, 교통편리, 넓은 주차장, 애난데일 중심가
 ▶703-813-8949

1. 페어팩스 뉴타운 홈 매매
 2. Langley high school 학군 지역
 주택 매매
 (703) 677-1889

1. 센터빌 중학교 교근처 싱글 \$1,050,000
 방3, 화3, 5 에이커 전원 주택, 최신 수영장
 2. 레스톤 싱글홈 \$855,000
 방7, 화3.5, 워크아웃 부엌, 차고 2
 타운센터/메트로 근처
 3. 헌돈 럭셔리 타운 \$850,000
 방3, 화3.5, 차고 3
 ▶703-489-6926

For Sale by Owner MD Jessup
 Builders Model
 55+ Condo: 4bd 3.5bt, 2 car garage
 3,200ft, near 95 & 32 \$545,000
 Phone: 443-838-5458
 E-mail: vrupen@gmail.com

1. 챈들리 하이 싱글 \$1,379,000
 방4, 화4.5, 차고2, 콘택, 최고 학군 (포플라
 트리 초, 락키런 미들) 새 지붕 및 HVAC
 새 페인트, 주방 가전 업데이트, 바닥 업그레이드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빙트리 펫 리조트

이제두 여행갈 때 지인에게 강아지를 맡기시나요?
 여기 한인 2세가 운영하는 Pet Resort를 이용해 보세요!

Room

- 아늑한 럭셔리 룸
- 특급 Hotel급 특실
- 경력이 풍부한 훈련사
- 한적한 뒷동산 산책로

Grooming

- 한국인 선생님들의 풍부한 경력, 예술적 그루밍
- 목욕 및 스킨 케어
- 최신식 목욕 시설
- 실내 및 야외 놀이 시설

*애견미용사 구함. (givingtree.alison@gmail.com/한인 담당: 571-660-8182)

- 1호점 (본사/레스톤): 571-325-2994
1912 Association Dr. Reston, VA 20191
- 2호점 (플스처치): 571-799-8100
130 West Jefferson St. K9 Club, Falls Church, VA 22046
- 3호점 (알렉산드리아): 571-257-6420
6118 Rose Hill Dr. Alexandria, VA 22310

*3월 15일까지 10% 글루밍 세일 및 액세서리 선물 등!!

www.givingtreepetresort.com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자?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탈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 kdclass2018@gmail.com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6년 5월 20일 수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 kdclass2018@gmail.com (계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이드, 잘 관리된 집
2. 헌돈 콘도 \$579,000
2022년 새 콘도, 방2, 화2, 차고1, 새집 같은 컨디션, metro 인근
3. 센터빌 스톤 케이트 콘도 \$390,000
방2, 화2, 풀린 파워크, 센터빌 고, 교통중심
▶571-239-6054

1. 패어팩스 스톤 게이트 콘도 \$438,000
방2, 화2, 차고1, 3층 타운형 콘도, 학군(콜린 파월츠) 좋고, 교통 & 생활 편리
2. 애난데일 싱글홈 \$700,000
좋은 위치에 있는 반듯한 평의 집, 생활 가능하 나 As-Is Condition으로 매매
3. 비엔나 싱글 하우스 \$1,390,000
방5, 화3.5, 타이슨스 DMV 근처, 위치 좋고 조용한 동네
▶703-625-9909

1. 우드브릿지 타운홈 \$560,000
방4, 화3.5 2021년 지은 새단지, 탁트인 밝고 환한 구조, 나무마루,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고급 부엌(업그레이드된 Granite Countertop & SS Appliance), 넓은 텍과 펜스
2. 센터빌 타운홈 \$500,000
랜드 유닛, 게라지 타운하우스, 집 전체 리모델링, 탁트인 고급 부엌과 새 주방용구, 새지붕, 새 창문, 새 나무마루, 새 HVAC, 새 페인트, 남향 밝은 텍과 펜스
3. 클립튼 콘도 \$379,000
호수를 품고 있는 멋있는 단지, 방2, 화2, 완전 히업데이트된 집, 새 페인트, 새 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고급 SS Appliances, 새 Washer & Dryer, 넓은 거실, 계단 없는 1층, H마트 1분 거리
▶703-813-8949

1. 알링턴 싱글홈 \$2,099,000
방5, 화6, 4,275sf, 2026년 신축 하우스
2. 매나사스 싱글홈 \$840,000
방5, 화3.5, UVA PG 메디컬 센터 근처
3. 패어팩스 싱글홈 \$930,000
방4, 화3, 3038sf, 우스하이스쿨 도보거리, 집 전체 리모델링
▶703-486-6082

1. 비엔나 콘도 \$339,000
방1, 화1+Den, 굿 로케이션, 전체 마루, 넓은 텍, 가스, 물 포함한 저렴한 관리비
2. 센터빌 타운 \$680,000
방4, 화2.5, 차고2, End Unit
3. 페어팩스 싱글홈 \$980,000
방4, 화3.5, 차고2
4. 센터빌 타운홈 \$600,000
방3, 화2.5, 차고1
▶703-919-0472

1. 패어팩스 타운홈 \$850,000 2005년
방4, 화3.5, 차고2, 집 전체 마루, 교통과 학군이 우수하며 높은 부동산 가치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핵심 입지 조건, 코스코 부근
2. 센터빌 타운홈 \$530,000
방3, 화3.5, 1250sf
▶703-231-5572

1. 엘리트 시티 싱글홈 \$820,000
방5, 화장실 3+1, 차고2, 밝고 이쁘게 잘 꾸며진 집, 넓은 뒷뜰
2. 포토크 싱글홈 \$1,075,000
방4, 화장실 2+1, 차고2, 포토크에 위치한 잘 꾸며진 집, 좋은 가격
▶410-417-7080

사업체 매매

비어와인 컨비니언 스토어 매매
- 월 1만5천 손수익
- 매매가 15만 + 인벤토리
- 메니지먼트 가능
- 피터스버그, VA
703-229-9702

버지니아 프레드릭스버그 이발소 매매
- 고정 단골 손님 많음
- 월세 \$2500, 월 손수익 \$6천 이상
- PT 일하실분 구함
703-907-9541 (문자 주세요)

40년 창업중인 테일러샵 매매
은퇴 관계, 좋은 조건, 리치몬드 중심지
703-937-7261

1. 관티코 VA, 군 부대안 3층 상업용 빌딩
5,300 sf \$1.1M
2. 패어팩스 VA, 4층 빌딩 13,000 sf
임대 원로 \$4.5M
3. 알렉산드리아 VA, 커머셜 Lease Space
6,500 sf, 1층 대로변, 포토크 야드 근처,

편리하고 넉넉한 주차, DC에서 10분
4. 타이슨스 VA, 커머셜 Lease Space,
1,800sf
▶매가 703-534-4989

성업중인 픽업 스토어 매매 \$7만(스타포드)
아웃수전 전문, 저렴한 렌트비
(\$3,000/월)
문의 : 703-231-5572

1. 차킨 프랜차이즈, 주매상 4만, Fairfax
2. 타이식당, 주매상 \$1만8천, 대로변,
굿쿠킹, 저렴한 렌트, Fairfax co, VA
3. 차킨 식당, 주매상 \$2만3천,
렌트 \$4,500, VA
4. 일식당, 주매상 \$2만, \$16만
5. 애난데일 식당,
포차로 운영하기 최적의 장소
▶DJ Lee 703-303-8003

1. 애난데일 한국 식당 4,000sf, \$27만
2. 벨츠빌, 델리, 주 \$만불, 렌트 \$3,300
9년 리스, \$17만
3. 엘리트 시티 지역 식당 파실분,
바이어 대기중!
4. Tysons 창고 1,800sf \$4,800/Month
5. Alexandria 태권도장 나간자리,
2,750sf
▶문미애 703-534-4989

DC 백악관 옆 픽업 스토어 매매
저렴한 렌트비, 주5일, 좋은 수익, 은퇴 예정
443-618-8100

1. 주 5일 Deli & Cafe 애난데일 근처
\$60,000/1,400sf/렌트 \$2,900/굿 파킹
2. 주 5일 Deli & Cafe DC NW \$70,000
렌트 \$4,300/매상 증대 최적 장소
3. 대형 식당, 패어팩스 \$250,000
7,000sf/180석/연회전문/굿 파킹
4. DC NW 2층 한식당 \$200,000
리퀴 라이선스/퓨전 한식 적합
5. 명품 간장게장 2nd Location
투자자 모집
6. 일식집, GMU 근처 15만불
주매상 1만5천, 넉넉한 파킹
7. DC NW 잘 꾸며진 한식/분식 식당 20만
8. DC NW 드라이크리닝 픽업, 주매상 9천,
주 5일, 대로변 위치
▶DJ Lee 703-303-8003

베테스타 샌드위치 샵 \$170,000
너무 좋은 자리, 1200SF, 주매상 \$10,000
렌트 \$5,791
▶703-928-5990

델리 샵(DC) \$150K
DC내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안정된 수입, 투자용
▶703-625-9909

중고 매매 / 기타

무빙 세일합니다.
고급 리빙룸 셋, 책장, 도자기, 고급 일본 접시,
노래방 기계, 금고, 병풍등등
301-801-9921

케어 피플에서 간병사 교육합니다
기간 : 6/08 - 6/12 전화예약 필수
▶571-297-4747 (VA)
▶301-966-7000 (MD)

현대 산타페 스포츠 2.0 터보 2017년
풀옵션 10만 마일, \$13,000 상태 매우 양호
703-618-7924

피아노 레슨 합니다.
유치부, 초/중/고 및 입시반, 성인 취미반,
특수 아동, Zoom & In-person
703-772-2987 (문자)

색소폰, 클라리넷, 호른, 트럼펫, 트럼본, 플루트 - 악기별 개인 맞춤 레슨
757-338-8496

건축/페인트/마루

밀워키 캐비닛 공장에서 목수 구인
덜레스 공항 근처 (Dulles, VA)
-가구 페인트/스테인 경험자
-가구 제작 헬퍼/ 주니어 목수
성실하고 취업 결격 사유 없는분
703-859-2499 (문자/전화)

JGL 건설 회사
하청없이 25년 이상 숙련된 분사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571-213-8678

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돈 걱정 그만하세요
▶703-835-0945

형제 건축 & 지붕
가정용, 상업용, 부엌, 화장실, 지하실
민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 드립니다.
▶703-928-6255

애버사인 건축
키친, 부엌, 베이스먼트 리모델링 및
페디오, 펜스, 텍, 기타 집수리, VA/DC 라이선스
보유, 오랜 경력, 보험 가입
▶703-994-2943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고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 페인팅(In & Out), 텍 메인터넌스와 클리닝,
샌딩, 파워 워시, 핸드맨 서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 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
체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 모든 공사, 주
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 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신가요? 메디케어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703-961-8811

생명보험, 은퇴연금, 비즈니스 세금 절감 플랜
까지 전문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안전한 미래를
준비하세요.
703-939-2737

정문기 메디케어 보험
65세 되시는 1960년생 신규 가입 신청 도와
드립니다.
▶703-598-3316

움니화재 사업체, 자동차, 집, 의료, 생명 보험
▶1-866-915-6664

정선화 브릿지원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보험
▶703-862-5395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 접수/자동차/주택/
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로리 문 맞춤형연금 & 재정관리
▶703-895-7648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사업용/재정상담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네이션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 가스 검사
페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 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SD Mechanical에서 테크니션 모집
-냉장, 냉동쪽 유경험자, 또는 관심 있으신분
-서비스 지역 VA, MD, DC
-지원방법:
E-mail: Sdmecch.office@gmail.com
Phone: 703-447-4683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버트 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
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연중 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콜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냉동 (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콜러, 아이스머신, 덕트 설치 & 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웨딩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 배우면서 일하실분 / 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웨딩스토리 토털 결혼 준비
-웨딩 플래너
-웨딩 드레스 & 텍 시드 대여
-웨딩 플라워 데코, 결혼식 장소 및 예산 선정
▶703-642-2247

골든벨라 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블라인드/카펫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 무료 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TOTAL BLACKOUT LLC
한국산 블라인드 전문, 버지니아 동부 지사
오픈, AS 전담팀 보유,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모든 샘플 가지고 방문
▶703-600-9031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
우드 / 타일, 주거용/상업용 한번 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파워 스타
팀 샴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브러쉬
파워 폴싱, 응급 수해 복구 및 타일 플로우
웍스
▶703-967-4155

플러밍

B3 플러밍에서 함께 일하실분 구함
-메케닉 & 준 메케닉
▶703-220-1400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온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홈 플러밍
수도꼭지 교체, 싱크/디스포저, 워터히터/물
새는것, 하수막힘/변기 교체, 셉텀프 교체
571-594-4080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
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 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 안밖 물새는 것
▶703-499-5984

이사짐

Movers LLC (GOOD HAND)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
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리해 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사짐 포장
이사, 타주 이사(차량운송) 무료 견적
▶703-298-1919

HD 현대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
장이사, 타주, 시내이사, 자체창고 보관
▶703-550-5550

리모델링/핸디맨/전기

Mechanical, LLC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컨/역류장치/
MD fire 스프링클러/주방화재방지/복구작
업(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 처리 가능/용
접(철, 스텐, 알루미늄) /제작및설치(키친후드,
덕트)
▶301-222-3277

H.P.C 집수리 센터
집 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드맨 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가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JJ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 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유리

JK유리 & Window/삼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생활안내 줄광고 게재요청
703-281-9660 (text)
kdclass2018@gmail.com

보험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1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 · C 플랜 · 약보험 · 치과 · 안경 · OTC

자동차 · 주택 · 사업체 보험

보험료 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큰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 · MD · 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 · 시공 및 건물 ·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 · 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 · 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선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목수, 타일, 마루, 욕, 캐비닛
샌딩 보수

핸디맨, 플로링,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유리 / 이삿짐 / 재테크 / 건축 / 전기 / 헬스케어 / 미용 타투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93-209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 타주, 시내 이사
-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 **귀국이삿짐**
- **타주이사**
- **해외이사**
- **시내이사**
- **ICC인가업체**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100% 자체보험으로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 20년 전문!!
- 귀국 이사 전문
- 자체 창고 보관
- 타주, 시내 이사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수아 미용 타투

SERVICE LIST

- 두피 염색 (가르마, 정수리 전체)
- 눈썹, 아이라인, 입술
- 속눈썹/헤어 생장술
- MTS (미백, 주름개선 세럼)
- 스킨케어



443-722-5925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들 반지 팔찌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콧시티 롯데플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용자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용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인테리어 / 사진관 / 웨딩 / 부동산 / 데이케어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 웨딩 플래너
-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 웨딩플라워 데코
-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703-657-0944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토탈카펫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현대부동산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실 분, 경매)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Yami PHOTO STUDIO

Passport Photos Family Photos
Maternity Photos Wedding Photos

Photos & Video For Any Event!

Call: 513-570-7017
7023 Little River Turnpike #340, Annandale, VA 22003

JGL Construction Inc.

JGL 건설회사

“아청없이 저의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롤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vac.com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 Dishwashers, Disposals
-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 금 고가 매입
- 순금 아기 돌반지 팔찌
-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EVERSHINE Construction

KITCHEN & BATH BASEMENT REMODELING

HOME REMODELING
Patio / Fence / Deck / 기타 각종 집수리

• 15년 이상의 경험 • 보험가입

VA Class A License / DC / MHIC
evershine-construction.com
info@evershine-construction.com

703.994.2943
Ray Kim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통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blinds.com / bbgbblinds@gmail.com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프,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형제건축·지붕

H BROTHERS CONSTRUCTION, INC.

가정용 상업용

민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드립니다.

부엌 화장실 지하실

703-928-6255
14516 Flag Staff Ct, Centreville, VA 20121

집·가게 수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작은 일도 열심히 해드립니다.

VA **703-340-5858**
MD **443-980-5858**

홈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 ◆ 수도꼭지 교체
- ◆ 싱크 / 디스포저
- ◆ 워터히터 / 물새는것
- ◆ 하수막힘 / 변기교체
- ◆ 씽폼프 교체

571.594.4080
VA 라이센스/보험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우주 Mechanical, LLC

-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콘
- 역류장치(Backflow)
- MD Fire 스프링클러
- 주방 화재 방지
- 용접(철, 스텐, 알루미늄)
- 제작 및 설치 (키친후드, 닥트)
- 복구작업 (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처리가능

DC, MD, WV 라이센스 소지
301-222-3277

블라인드 / 틈트

“100% 한국산 공장직영”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블라인드 하나로 여러분의 집이 확 바뀝니다.

한국 명품 블라인드 드디어 미국 상륙!
VA, MD, DC, PA, NC 전지역을 총괄하는 지사 오픈!!

- 한국산 지브라셰이드, 전통블라인드, 롤스크린, 허니콤, 스마트커튼
- 최상의 품질, 다채로운 색상과 디자인 및 A/S Team 보유
- 최고급 공기정화, 향균 원단, 방염 기능
- 가정/상업/교회용 등 다양한 맞춤 제작

Total Blackout LLC
Young Lee
무담 방문
상담 및 견적 **703.600.9031**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one) is better off (doing or having something); (~을 하는게) 낫다

(Two friends are at a restaurant ~)

(친구 둘이 식당에서~)

Fred: Everything on the menu looks so good.
프레드:차림표에있는음식이전부꽤좋아보인다.
Gary: This place just opened up. I was here for the opening.
개리: 이 식당 막 문 열었어. 개업식 때 여기 왔었거든.
Fred: It feels nice in here too. Well I'm up for fish.
프레드: 여기 근사하다. 어쨌든 난 생선 요리가 당기는데.

Gary: If you want fish You're better off ordering the salmon.
개리: 생선 시키려면 연어로 하는게 좋을 거야.
Fred: Is it good here?
프레드: 여기 연어요리 잘 해?
Gary: It's wonderful. You're going to like it.
개리: 아주 잘해. 너도 좋아할 거야.
Fred: Thanks for the tip. I'll order it.
프레드: 귀띔해 줘서 고마워.그거 시켜야겠다.

Gary: I'm going to have a steak.
개리: 난 스테이크 먹어야겠다.
Fred: Let's look at the wine list.
프레드: 와인 뭐 있나 리스트 보자.
Gary: Yes let's do that.
개리:응.그러자.

"This place just opened last week."
(이 업소는 지난 주에 문 열었어.)
▶ I'm up for (something): (무엇을) 하고 싶다.
"I'm up for golf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골프 치고 싶다.)
▶ Thanks for the tip: 좋은 정보를 줘서 고마워.
"I went to that bookstore you told me about. Thanks for the tip."
(네가 얘기한 책방에 갔었어. 좋은 정보 줘서 고마워.)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가로열쇠

(1)한 번 그물을 쳐서 고기를 다 잡음. 어떤 무리를 한꺼번에 모조리 다 잡음. 경찰은 끈질긴 추적 끝에 갱단을 ~했다. □망□□ (3)일곱 번 넘어지고 여덟 번 일어난. 여러 번 실패하여도 굴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노력함. 칠□□□ (7)바닷속의 용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임금 (9)어려움을 참고 견디어 내는 마음 (11)물위를 떠다니도록 만든 물건. 배 (12)무엇을 큰 덩이에서 조금씩 뜯어내는 짓. 그는 ~로 주먹밥을 먹다 눈을 내리깔며 얼굴을 붉힌다 (14)얕지른 물. 한 번 저지른 일은 다시 바로잡거나 돌이킬 수 없음 (16)달콤한 말과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꾀는 말 (19)어린이 모양처럼 생긴 산삼 (21)몹시 갑탄하는 소리. 산꼭대기에 오를 순간 멋진 풍광에 나도 모르게 ~이 나왔다 (22)토향 듯 메스꺼운 느낌. 나는 속에서 ~가 치받쳐 올라오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24)전투 부대가 공격과 방어를 위한 설비를 마련하여 둔 곳. ~를 구축하다 (28)흙이 쌓여 산을 이룸. □적□□ (29)봄·여름·가을·겨울 네 철 내내의 동안. 저는 ~이 가을이었으면 좋겠어요. 사□□□

세로열쇠

(1)한 번만 쓰고 버림. ~ 반창고 (2)새 가운데서 가장 크며, 날지는 못한다. 다리가 튼튼하여 빨리 달리는데 최고 속도는 시속 90km 정도이다 (4)온 나라. ~ 노래자랑 (5)자리에서 일어나서 손뼉을 쳤 (6)여러 형제, 자매 중에서 맨 나중에 난 사람 (8)따돌리는 일 (9)약속 이행의 담보로 잡아 두는 사람 (10)마음놓고 믿을 수 있는 부하 (11)집승을 잡아서 받은 피 (13)가고자 하는 방향의 지시등. 요즘 ~ 안 켜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차선 변경 시 반드시 ~를 켜십시오 (15)부부의 한쪽에서 본 다른 쪽. 남편 쪽에서는 아내를, 아내 쪽에서는 남편 (16)달뿔 삼키고 쓰면 뱀을 옮기고 그름에 관계없이 자기 비위에 맞으면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싫어함. □□□□ (17)말하는 목소리 (18)부끄러움을 씻음. 꼭 이겨서 지난번의 패배를 ~하겠다고 작심하고 있다 (19)교육이나 감습을 함께 받은 사람 (20)타자가 세 번의 스트라이크로 아웃되는 일 (23)나오던 피를 멈춤 (25)쇠를 끌어당기는 물체. 자석 (26)태양에서 둘째로 가까운 행성. 셋별 (27)물고기의 잔뼈. 목구멍에 ~가 걸리다

스도쿠

5	2			4		3		1
				9			7	
		1	7	5	2			
3	1				7	6	8	9
		4	9	6		1		
6			5		3	7		2
		6	2		4	9	1	7
		9	2	1	8	5		
		3	6			5		8



자료제공=월드북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8	2	5	6	7	9	3	4	1
9	3	4	5	8	1	2	6	7
7	1	6	4	3	2	9	5	8
2	4	7	3	1	5	6	8	9
3	5	1	8	9	6	4	7	2
6	8	9	7	2	4	5	1	3
4	9	8	2	5	7	1	3	6
5	7	2	1	6	3	8	9	4
1	6	3	9	4	8	7	2	5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2주 \$20, 월 \$3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뒷면 3자리 EXP. DATE: / / month year CVS: <input type="checkbox"/>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기타 지역

주거용 RV파크
연순익 \$35만
65sqft 정기거주 임대단지
운영쉬움 (청소인력-격정NO)
입지부서 대통령 분기 미들랜드
가\$2.6M. 오너직관/SBA가
텍사스 Serious Buyers Only,
mbrvparkllc@gmail.com
문의Text (214)284-0804

기타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남성용품 20년
미전국도매상
Gas Station, 7-eleven
공장도 가격, 타주직송
Self제작도움
(818)533-4788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COLDWELL BANKER E-mail: baksusa@yahoo.com

10년에 한번 나오는 돈버는 세탁소
중가주 Santa Cruz
가격 \$869,000+Inv.
작년 연매상 \$920,000
월넷 \$40,000 이상
매상은 계속 증가중
셔츠 5.95, 바지 15
투피스 31.45 스웨터 16.75
***2년후 1마일내
1200유닛하우스 들어옴
AJ Singh(영어)408-646-1060
주인 (Kim) 831-476-4589

구인
한식 쿡 구함
중식 쿡 구함
알라스카-숙식제공
(907)456-2060
(907)888-6666

치질·출혈 수술 안하고 OK
항문폴립·변비·요실금 출출
직장과 대장암 발병 예방효과
새끼 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똥배·뱃살 요요없이 빠져요
기적의 티타늄벨트로
허리통증·냉증도 탈출
실제사례 www.miracletouchusa.com 검색
미라클 터치 (213)675-6877

중앙일보 온라인 쇼핑몰 **핫딜** 5월 가정의달 특별세일

5/31까지 무료 배송 Free Shipping

당뇨, 비만, 총치 안심하고 맛있게 즐기세요

타이거 사카커피 무설탕 30/50/100 스틱

사카커피 3 Packs (30 sticks) ~~\$36.97~~ **\$30.00**

5월 한달 무료배송

ZERO
슈가·콜레스테롤·당화로리
당 걱정없이 당뇨, 비만, 총치 안심하고 맛있게 즐기는 커피믹스

모공 축소, 콜라겐 생성, 손상된 피부 복원, 홍조, 건조에 탁월한 효과

프랑스 고급화장품 센티알리스 30ml

[Made in France] 프리미엄 세럼 ~~\$430~~ **\$104**

핫딜 미주최대 한인 인터넷 홈쇼핑 **213.368.2611** 가계/매장 구입은 불가능하니, PCL나 셀폰으로 QR코드 찍고, 온라인 Hotdeal.Koreadaily.com에서 구입해 주세요. QR코드 찍고 핫딜에서 편하게 주문하세요!

지긋 지긋한 **통증**과 **중풍** 치료로 기적을 경험!

"중풍과 통증을 치료하는 한방의 신비!"

중풍으로 마비됐던 델휘노 고메즈(51) 씨는 LA 한인타운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서 두 달간 치료를 받고 놀랍게 회복했다. 2022년 12월 중풍 발병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그는, 침과 뜸, 약물 등으로 이루어진 6단계 한방 치료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서영수 한의학 박사는 "중풍은 불치병이 아니다. 기혈 순환과 혈전 제거가 핵심이며, 심혈관 치료에 좋은 금육단과 위장 강화에 효과적인 도인벽사단을 병행 처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발 저림, 어지러움 등 초기 증상이 있다면 철저한 건강 관리가 필수"라고 당부했다.

▶문의: (213) 503-3304
▶주소: 809 S. Hobart Blvd, LA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통증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다!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 사례

성민산삼 한방병원 명약 산삼금육단 도인벽사단
50% 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깨끗하게 손질된 민물장어 판매
바로 구워드시세요

\$100 이상 무료 배송
장어판매할 식당 적극 환영

LW FISH MARKET 문의 **(832) 605-4890 · (281) 501-2623**
1249 Blalock Rd #201, Houston, TX 77055

2026 학년도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수시모집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439 S.WesternAve.#100 Los Angeles, CA 90020 | TEL:213-272-6031



먼길, 험한길, 언제나 한결같이 묵묵히 손잡아 주는 **사랑손**이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간병사 그리고 직원들, 모두가 만족한 회사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에 가족의 돌봄을 맡겨주세요.

은혜안에 한행복, 한소망을 나누는 곳!! 섬김이 무엇인지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메디케이드 (Medicaid) 신청이 필요하세요?
롱텀케어(Long-Term Care) 신청이 힘드세요?**

러브핸드 홈헬스의 전문 상담사가
신청부터 성실히 도와드립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간병인이 필요하세요?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러브핸드 홈헬스의
간병사분들이 여러분을 섬깁니다.

편법이 없는 간병회사를 찾고 있으세요?

원칙의 신념 러브핸드 홈헬스에 전화하세요.
저희는 원칙과 법을 준수합니다.

사랑의 섬김이 넘치는 러브핸드 시니어데이케어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시니어 데이케어
-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프로그램 구성
- 그리운 맛과 건강을 생각한 집밥으로 아침 및 점심 식사, 그리고 영양 간식 제공
- 의사 방문시 교통편 제공
- 메디케이드 혜택
- 친절한 간호사와 함께하는 수시 건강 체크 및 상담
- 취향에 맞춘 즐거움과 편리함을 주는 각종 시설 완비
- 일반 회원은 소정의 회원비로 센터이용 가능
- 서류 번역 및 작성 등 제반 소셜 서비스 제공

사랑의 돌봄이있는 러브핸드 홈헬스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전문 간병 서비스
- 노인성 치매, 장애우 전문 간병
- 메디케이드 혜택
- 개인 부담 환자 최저 부담 상담
- Skilled Nurse 서비스
-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

직원 모집

* 회사 성장으로 인해 일할 더 많은 인재를 모집합니다.
* 문의: admin1@lovehandhomehealth.com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문의 및 상담 703-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찬틀리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Chantilly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703) 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뉴포트뉴스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 Newport News
716 Denbigh Blvd., Suite E-1
Newport News, VA 23608
757) 527-4140